한국인의 미국 이민 역사와 나

History of Korean Immigrants in America and I

WHY should I know about the history of Korean immigration in America?

Essential
Immigration History
of Korean-Americans
for Second Generation
Korean-American Youth.

성 김안드레아 한국학교

〈 표 지 설 명 〉

앞표지: 삼일절을 맞아 미국 메릴랜드의 성김안드레아 한국 학교 학생들이 대한 독립 만세를 힘차게 부르는 모습

뒤표지: 이민선 갤릭호(1903, 배경사진)와 워싱턴 DC의 대한제국 공사관, 하와이 한인 이민 초기 한국어 학교의 기념사진, 유관순 열사, 미국에 간 조선의 박람회 참가단(1893), 고종 황제에 의하여 샌프란스코에 간 보빙사(1883), 샌프란시스코의 초기 한인들, 4.29 Los Angeles의 인종 폭동(1991-1992), LA 인근 글렌데일(Glendale)시 도서관 뜰에 있는 한국인 위안부상, 김연아 선수, 2018 평창 올림픽 로고, 성 김안드레아 한국학교 학생들 일부(2014)

St. Andrew Kim Korean School www.sakhangul.com sakkoreanschool@gmail.com

성 김안드레아 한국학교
St. Andrew Kim Korean School
17615 Old Baltimore Rd.
Olney, MD 20832, USA

지원: 한국 재외동포재단 (2015년 한글학교 맞춤형 사업)

후원: 워싱턴 한인천주교회

Copyright © 2016 St. Andrew Kim Korean School(SAKKS). All rights reserved.
No part of the text portion of this book may be reproduced in any form
without the prior written permission of SAKKS.

머리말

미국내 한글학교들이 교육하는 한인 2세들은 미국 뿐만 아니라 모국 대한민국을 위하여 앞으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값진 인적 자원입니다. 이들이 올바른 정체성을 유소년, 또는 청년기에 확립하여 미국 주류사회에서 성공하는 사람으로 발전하도록 돕는 것이 한글학교 뿌리 교육의 중요한 목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한국어 교육을 기초로 하여 한국의 역사와 문화, 사회를 공부하여 이해할 수 있도록 교육하는 것이 요구되며 특히 한국의 역사는 뿌리 교육에 있어서 핵심적인 요소이므로 한인 2세들이 흥미와 관심을 가지고 이를 진지하게 공부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한인 2세들에 대한 한국의 역사 교육은 오랜 역사 속에서 생존해온 한민족의 강인한 민족성을 인식하게 하고 찬란한 문화를 꽃피워온 역사적 사실을 이해하게 하며 이러한 역사 교육을 통하여 한인 2세들이 미국 주류사회에서 활동하고 뻗어나갈 수 있는 정체성과 정신적 자신감을 불어넣어줄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한인 2세 학생들이 읽어서 이해할 수 있으며 흥미를 느낄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하여 성인의 시각이 아닌 학생들의 시각에서 한국어를 동시에 익힐 수 있는 시너지 효과를 추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한국의 역사를 한국어가 부족한 미국의 한인 2세 학생들에게 가르치는 것은결코 쉽지 않습니다. 또한 한국의 고대사와 중세사는 자칫하면 어느 먼 나라의 옛날 이야기일 뿐, 그들의 가슴에 와닿지 않기가 쉽습니다. 또한 역사책에 나오는 내용이나 단어들은 너무나 어려워서 그들이 이해하기에는 참으로 힘들다고 생각됩니다. 물론 오랫동안 한국학교를 다녀서 한글을 잘 읽고 말할 수 있는 수준이 된 학생들도 꽤 있지만 대부분의 학생들은 한국어가 서툴어서 교사들이 아무리 좋은 내용을 가르치려 하여도 그들은 잘 받아들이지를 못합니다. 이러한 현실적인 문제는 미국에서 한인 2세 어린이 학생들에게 한국어를 가르치는 모든 교사들이 유념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한인 2세 학생들에게 한국의 역사는 자칫하면 흥미로운 주제가 되지 못합니다. 또한 학부모들 중에도 한글학교에서 한글을 어느 정도 배우면 되었지 역사까지 배울 필요가 있는가 하고 생각하는 분들도 꽤 있습니다. 한국학교에서 단지 한국어를 배우고 갈뿐, 한민족의 후손으로 강인한 생존력과 찬란한 문화를 창조해낸 위대한 민족이라는 것을 배우고 가야하는데 그것을 제대로 배우지 못하고 어영부영 한국어 말하기, 한글 쓰기 등만을 공부하게 된다면 미국에서 성공하는 Korean-American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초를 마련해 준다는 한국학교의 높은 이상을 실현하는데 큰 걸림돌이 될 것입니다.

저희 한국학교에서는 어떻게 하면 한인 2세 학생들에게 한국의 역사와 그들의 정체성을 확립할 수 있는 역사교육을 할 수 있을까 많은 고민과 연구 끝에 한국인의 이민역사를 시작으로 하는 역사 교육을 시도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민 역사는 그들의 부모와 그들 자신들이 지금 현재 겪고 있는 일이기 때문에 학생들 자신들도 관심을 갖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며 자신들의 정체성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책은 지금 한인 2세 학생들이 살아가고 있는 미국내에서 그들의 부모들이 어떻게, 왜 미국에 이민 오게 되었으며 또 어떻게 학생들 자신들이 이 땅에 태어나 살게 되었는지를 알아보고 자기 자신이 누구이며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생각하도록 가르칠 목적으로 만들었습니다. 이를 위해서 구한말 (19세기말) 하와이 첫 이민의 역사부터 시작하여 대한제국의 쇠망, 일제의 강점과 탄압, 조국의 독립, 미국사회의 민권운동과 21세기 한인 이민사회의 발전에 관하여 간략하지만 명확하게 가르쳐서 19세기 말부터 현재까지 역사의 큰 흐름을 어린 학생들이 나름대로 깨달을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이러한 교육이 토대가 되어 향후 자연스럽게 한국의 고대사와 중세사의 역사적 사실과 의미, 또한 세계사 속의 의미 등을 한인 2세들이 이해하여 자긍심을 갖도록 교육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또한 교사가 일방적으로 학생들에게 강의를 통하여 전달하는 교육이 아니라 학생들이 가정에 돌아가 그들의 부모와 인터뷰 및 대화를 하게 하는 과제를 줌으로써 부모의 이민 생활에 대한 이해를 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하고도 의미있는 기회를 만들 수 있게 됩니다.

본 책자의 내용은 2013년부터 성 김안드레아 한국학교의 고등반에서 시범적으로 가르친 내용을 중심으로 만들어졌습니다. 대개 한국학교가 주말에 학기당 약 15주 정도의 교육과정으로 편성되기 때문에 이 책자의 내용은 중등반 또는 고등반에서 2년 정도의 기간 동안에 2주에 한번 정도의 특별 강의를 통하여 공부하면 다 마칠 수 있도록 그 내용을 조절하였습니다. 특히 상세한 내용을 많이 기술하기 보다는 한인 2세 학생들이 전체적인 흐름을 통하여 한민족의 후손으로서 꼭 알아야 할 역사적 사실과 흐름을 그들 현재의 시각에서 이해 할 수 있도록 만드는데 노력하였습니다. 짧은 시간내에 완전한 책자를 만드는 것이 어려우나 앞으로 이 책자가 실제 교육현장에서 활용되고 고칠 점은 고치고 추가할 점은 추가한다면 한인 2세들을 위한 더 좋은 한인 이민 역사 교재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책자를 완성하기 위하여 한국 재외동포재단에서 지원하여 주셨습니다. 워싱턴 한국 교육원의 안미혜 원장님의 지원과 격려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많은 분들께서 자료 지원 등으로 도움을 주셨습니다. 미주 한인 이민사와 워싱턴 한인 이민사 책자 및 대한제국의 공사관 건물 매입에 관한 자료를 제공하여 도와주신 정갑진 전 워싱턴 한인천주교회 사목회

장님께 감사드립니다. 한국의 이철호교수(한국 공주대학교)와 심일보 전 Chemcross International 사장께서 한국 내의 애국 지사들의 동상 사진을 직접 현장에 나가서 찍어 보내주셨습니다. 삽화를 그려주신 한성은님께도 감사드리며 이 책자 편집을 격려해 주신 김종욱 미카엘 신부님께도 감사드립니다. 또한 본 교재의 보급을 위하여 재정 후원을 해 주신 다른 모든 분들과 워싱턴 한인천주교회(St. Andrew Kim Catholic Church)의 후원자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이 작은 책자가 미국에 사는 한인 2세 어린이들의 마음에 한민족의 후손으로서 자랑스러운 마음과 용기와 희망을 가져다 줄 수 있다면 저자들이 목적한 바가 달성되는 것이며 또한 소중한 시간을 이 책자를 만들기 위하여 봉헌한 의미를 확인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2016년 1월 1일

최규용 (책임 저자, 성 김안드레아 한국학교 교장, University of Maryland 교수)
공동저자: 권경희, 황태윤, 최선희, 성희종 (성 김안드레아 한국학교 임원 교사)

한국인의 미국 이민 역사와 나

1. 19세기 후반 조선과 최초의 한인 이민
Chosun in the Late 19th Century
and the First Korean Immigration to U.S. 4

(1) 19세기 후반 조선을 둘러싼 나라 안팎의 사정
Domestic/Foreign State of Affairs Surrounding Chosun
in Late 19th Century 5

(2) 한국인의 첫 미국 이민
The First Korean Immigration to U.S. 18

(3) 한인들의 미 대륙 진출과 독립운동
Korean Immigrants in the U.S.
and the Korean Independence Movement 26

2. 일본 제국주의의 우리 민족 탄압과 독립운동
Oppression by Japanese Imperialism and the
Independence Movement 34

(1) 일본 제국의 우리 민족 탄압
Oppression by Japan..... 34

(2) 항일 독립운동
Anti-Japanese Independence Movement 45

(3) 한국의 해방과 6.25 전쟁
Liberation of Korea and the Korean War 54

3. 미국 내 한인 이민자들의 미국 사회 진출과 독립운동
Koreans in the U.S.: 1910 ~ 1945 60

(1) 조선 외교 사절단의 미국 본토 최초 방문
The First Visit of Korean Delegates to the U.S. 60

(2) 미국 본토 초기 이민
The Early Days of Korean Immigrants
in the Continental U.S. 63

(3) 일제 강점기 미주 한인의 활약
Activities of Korean-Americans
During the Japanese Occupation Period 65

4. 현대 미국의 한국인 이민자들
Korean Immigrants in Modern Days 76

(1) 1960년대 이전 미국에서의 인종 차별주의
Racial Discrimination in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before 1960's..... 76

(2) 마틴 루터 킹 목사의 민권운동
Civil Rights Movement by Martin Luther King, Jr. 78

(3) 미국의 이민 정책 Immigration Policies in U.S. 81

(4) 1960년대 이후 한국인의 미국 이민역사
History of Korean Immigration to U.S. after 1960's..... 83

(5) 4.29 Los Angeles의 인종 폭동(1991-1992)
Racial Riot in Los Angeles(1991-1992) 88

(6) 2000년대 이후의 한인 이민사회
Korean-American Community after 2000 92

(7) 우리 지역의 한인 사회
Our Local Korean-American Community..... 94

5. 코리안 어메리칸 드림
Korean-American Dream 98

(1) 한국 경제의 성장 The Economic Growth of Korea 99

(2) 한국의 주요 산업 Major Industries of Korea 103

(3) 새로이 조명되는 한국 문화
Korean Culture in the Spotlight 107

(4) 세계 속의 빛나는 한국인
Globally Recognized Koreans..... 112

(5) 미국 사회에서 빛나는 한국인
Korean-Americans in America 114

1

19세기 후반 조선과 최초의 한인 이민

Chosun in the Late 19th Century and the First Korean Immigration to U.S.

(1) 19세기 후반 조선을 둘러싼 나라 안팎의 사정
Domestic/Foreign State of Affairs Surrounding Chosun in Late 19th Century

(2) 한국인의 첫 미국이민
The First Korean Immigration to U.S.

(3) 한인들의 미 대륙 진출과 독립운동
Korean Immigrants in the U.S. and the Korean Independence Movement

1. 19세기 후반 조선과 최초의 한인 이민
Chosun in the Late 19th Century and the First Korean Immigration to U.S.

19세기말 ~ 20세기 초는 우리 민족에게 격동의 시기였습니다. 이 장에서는 이 시기에 어떻게 하여 우리 나라 사람들이 미국으로 처음 이민가게 되었으며 미국에서 어떻게 살았는지, 또한 그당시의 우리나라(조선, 대한제국)의 형편과 조선을 둘러싼 이웃 나라들과의 관계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500년의 긴 역사를 가진 조선은 19세기 후반에 이르러 사회적으로 커다란 변화가 오기 시작하였습니다. 나라 안에서는 부패한 관리들과 무능한 정치때문에 나라가 발전하지 못하였고 무엇보다도 유럽 국가들을 중심으로 빠르게 변화하는 세계 정세를 잘 파악하지 못하였습니다. 서양의 강대국들이 우리 나라의 개방을 요구해 왔고 특히 조선보다 먼저 서구 문물을 받아들여 경제적으로 크게 발전한 이웃 나라 일본은 우리 나라에 대한 침략 정책을 펴기 시작하였습니다. 결국 조선은 중국, 러시아, 일본 등 주변 강대국의 영향 아래에서 정치적, 사회적으로 나라가 혼란하게 되었고 마침내 1905년에는 일본에 외교권을 빼앗기고 1910년에는 나라를 통째로 빼앗기는 비극을 맞게 되었습니다.

조선의 국내 정세가 혼란 속에 있을 때 1882년 조선은 미국과 통상 조약(Trade Treaty)을 맺었고 그 후 나라 이름을 대한제국으로 바꾸었습니다. 미국은 하와이의 사탕수수 농장에서 일할 사람을 구하였고 고종 황제가 한인들의 미국 이민을 허락하여 1902년 12월 22일 인천에서 첫 이민선이 하와이로 떠났습니다.

1903년 1월 13일 하와이 호놀룰루(Honolulu)에 도착한 첫 한인 이민자들은 사탕수수 농장에서 힘들게 일하며 살아갔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이민 선조들은 미국 땅에서 한국을 잊지 않고 한국의 정신을 미국에 뿌리박기 위해 열심히 살아갔으며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을 잊지 않았습니다.

이 장에서는 (1) 19세기 후반 조선을 둘러싼 나라 안팎의 사정, (2) 최초의 미국 이민, (3) 초기 하와이 이민 생활 모습을 알아봅니다.

장 chapter, 이민 immigration

우리나라는 중국, 러시아, 일본과 이웃하고 있습니다.

(1) 19세기 후반 조선을 둘러싼 나라 안팎의 사정
Domestic/Foreign State of Affairs Surrounding Chosun in Late 19th Century

자원 resource
지리적 정치적 geo-politically
반도 peninsula
대륙 continent
침략 invasion

우리나라 대한민국(한국, Korea)은 아시아의 동쪽에 있는 나라입니다. 한국의 이웃 나라는 중국, 일본, 러시아이며 한국을 포함한 이 지역을 극동 지방(Far East Region)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한국은 옛날부터 기후가 사람 살기에 좋고 자연도 아름다울 뿐만 아니라 산과 들, 바다에 많은 자원이 있어서 이웃 나라들이 부러워하는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를 금수강산이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또한 한국은 대륙과 바다를 잇는 반도 지형의 땅으로 이웃 나라들에게 있어서 지리적, 정치적으로 중요한 지역이었습니다. 역사적으로 우리 나라는 이웃 나라들의 침략

을 많이 받아서 고통을 많이 받았으나 5000년 역사 동안 정체성을 잃지 않고 나라를 지켰으며 또한 고유한 문화를 발전시켜 왔습니다.

정체성 identity
다리 bridge

우리나라가 이웃 나라들에게 지리적으로 얼마나 중요한 곳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섬나라인 일본에게 한국은 아시아 대륙으로 나아가기 위한 다리와 같은 존재였고, 추운 나라인 러시아는 남쪽 태평양 지역으로 진출하기 위해서 겨울에도 얼지 않는 한국의 따뜻한 항구들이 필요했습니다. 또한 중국에게 한국은 일본과 러시아가 중국에 진출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한국이 방파제와 같은 역할을 하는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이들 나라들은 한국이 비록 작은 땅의 나라지만 자기 나라의 영향권에 두려고 하였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2000년 전 우리나라 땅에는 고구려, 백제, 신라라는 세개의 왕국이 있었습니다. 660년 신라가 이 세 왕국을 통일하고 문화를 발전시키며 강력한 나라를 유지하였습니다. 고구려-백제-신라가 있던 시절을 삼국시대(Era of Three Kingdoms)라고 부르며 이때부터 한민족은 같은 언어를 쓰며 독창적이고 찬란한 문화를 발전시켜 왔습니다. 그러나 935년에 신라가 망하고 고려가 세워졌습니다. 400여년동안 고려는 불교를 나라의 종교로 삼았으며 금속활자, 팔만대장경 등 고유한 문화를 발전시켰습니다. 그러나 북쪽 오랑캐 나라들의 침략에 시달리게 되면서 나라의 힘이 약해졌고 1392년 고려는 망하게 되었습니다. 고려를 이어 조선이 건국되었습니다.

삼국시대 고구려 전성기　통일신라시대(676-935년)　고려시대(935-1392년)　조선시대(1392-1897)

자주국가 independent nation
물리 physics
화학 chemistry
산업 industry

중국이라는 큰 이웃 나라가 우리나라를 자주 침범하여 괴롭히고 우리나라를 중국에 속한 나라로 만드려고 했지만 그때마다 우리나라는 슬기롭게 잘 이겨 나가서 나라를 지켜왔습니다. 한편 우리 나라 남쪽에 있던 일본은 삼국시대 부터 남해안에 해적으로 침략하여 재산을 약탈하고 사람을 죽이거나 다치게 하여 많은 고통을 주어왔습니다. 그들을 우리 조상들은 왜구라고 불렀습니다. 왜구는 '일본인 도적떼(Japanese pirate raiders)'라는 뜻입니다. 1592년 일본이 임진왜란을 일으켜 조선을 침략하였으나 이순신 장군과 수많은 애국자들과 백성들이 용감하게 싸워 그들을 물리쳤습니다. 그러나 일본은 그 후에도 또다시 조선에 쳐들어 왔으며 백성들은 전쟁에 다시 시달리게 되었고 고통과 약탈을 당하였습니다. (정유재란이라고 합니다).

한국의 마지막 왕조인 조선은 약 500년간 자주 국가로서 발전해 왔습니다.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한글도 조선왕조의 세종대왕에 의하여 만들어졌고 1446년 훈민정음이 반포되어 모든 국민이 쉽게 우리 글을 배울수 있게 되었습니다. 19세기에 들어오면서 유럽(Europe)에서는 물리, 화학 등 과학과 수학에 바탕을 둔 현대적 기술이 발달하고 산업이 발전하면서 세계 정세는 급격히 변화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나 세계 변화의 중심지인 유럽에서 멀리 떨어져 있던 조선은 세계의 다른 나라들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잘 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가. 유럽의 산업혁명과 일본의 발전
Industrial Revolution in Europe and Modernization of Japan

산업혁명 industrial revolution
생산기술 manufacturing technology
경제적으로 economically
부강 prosperous

유럽의 여러나라들은 영국의 산업혁명을 시작으로 생산기술을 크게 발전시켰으며 많은 나라들이 경제적으로 부강해졌습니다. 영국(England), 프랑스(France), 스페인(Spain), 네델란드(Netherlands), 포르투갈(Portugal),

독일(Germany) 등 유럽의 나라들은 물건을 만들기 위한 원료를 확보하고 그들이 만든 제품을 팔기 위해 힘이 약한 동아시아의 여러 나라와 아프리카 대륙에 앞다투어 진출하여 많은 나라들을 군사력을 이용하여 점령하고 식민지로 만들었습니다. 1870년대 후반부터 이들 유럽의 많은 나라들은 더 많은 식민지를 만들기 위하여 서로 다투고 경쟁하기 시작하였으며 그들끼리 정치적, 경제적 대립이 커지게 되었습니다.

제품 manufactured goods
식민지 colony
대립 confrontation
강대국 powerful and strong country

이들 유럽의 여러 나라들은 동남아시아(Southeast Asia)에까지 진출하면서 그때까지 유럽에는 잘 알려지지 않았던 우리나라 조선에도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일본은 일찌기 서구 문명에 눈을 떠서 유럽의 나라들을 모델로 삼아 강대국이 되어 동아시아를 지배하겠다는 계획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나. 조선에 진출하려는 강대국들
Powerful Nations Reaching Out to Chosun

조선은 세계가 빠르게 변하고 유럽의 많은 나라들과 이웃나라 일본이 경제 발전을 바탕으로 강력한 군사력을 키우고 있는 것을 잘 모르고 있었습니다. 조선은 유교적 이념(Confucian ideology)을 국가의 이념으로 하였고 사회는 양반과 상민, 그리고 천민으로 나뉘는 신분 제도가 있었습니다. 조선 정부는 과학이나 기술, 상업을 중요하지 않게 여겨 19세기에 들어서서 서구의 다른 나라들에 비하여 크게 뒤떨어진 나라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또한 부패한 정부 관리들이 국민을 착취하여 못살게 하였고 국민들의 정부에 대한 불만이 점차 높아지면서 전국 여러 곳에서 이에 대한 무력 항쟁(military uprising)이 자주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유교 Confucianism
이념 ideology
부패한 관리 corrupt government officers
착취 exploitation
황제 emperor
제도 policy
개혁 modernization

당시 조선의 정치를 책임지고 있던 고종 황제의 아버지 흥선 대원군은 내부적으로 여러 가지 나라의 제도를 개

강화도를 침략하는 프랑스 군함들(병인양요)

혁하려 시도하였지만 계획대로 잘 되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유럽의 나라들과 일본, 중국, 러시아 등 주변 국가들이 조선의 주요 항구를 개방할 것을 끊임없이 요구하며 압력을 가해왔습니다. 이들 나라들이 조선에게 나라를 개방할 것을 요구한 것은 그들이 조선과의 무역을 통하여 막대한 이익을 가져가기 위해서였습니다. 여기에서 다른 나라들이 조선을 침략한 몇 가지 중요한 사건을 이야기 해 보겠습니다.

항구 port
개방 open

천주교 Catholic
선교사 missionary
처벌 punishment
통상 조약 trade agreement
문화재 cultural properties

프랑스(France): 19세기 말 유럽의 나라들이 조선에 들어오기 시작하였는데 프랑스는 천주교 선교사들이 18세기 말에 이미 들어와 선교 활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천주교를 박해하던 조선 정부가 프랑스의 선교사들을 체포하여 사형에 처하자 1866년 프랑스의 군함 7척이 인천 앞바다에 침범하여 강화도를 점령하고 프랑스 신부를 살해한 자에 대한 처벌과 통상조약 체결을 조선 정부에 강요하였습니다. 프랑스 해군은 조선의 군대에 쫓겨가기는 했으나 육지에 상륙하여 조선의 많은 문화재들을 빼앗아 갔습니다. (병인양요)

상선 merchant ship
침몰 sinking
상륙 landing
약탈행위 looting
진지 fort
해병대 marine

미국(America): 1866년 7월 미국의 상선 제너럴 셔먼호(General Sherman)가 평양의 대동강에 들어와 통상을 요구하고 야간에 몰래 상륙하여 약탈 행위를 하였습니다. 이에 조선 군대는 제너럴 셔면호를 공격하였고 결국 이 배는 침몰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1871년 미국은 강화도와 김포 사이로 군함 6척을 보내어 광성보라는 조선군의 진지를 공격하였고 싸움에 임했던 조선군 500여명이 강력한 신식 화포로 무장한 미국 해군과 해병대에 의해 이

틀만에 전멸하였습니다. 미 해군은 통상을 요구하며 주둔하였으나 조선 정부의 완강한 거부로 물러갔습니다. 이 사건을 신미양요라고 부릅니다. 그당시 현대식 군사력을 갖추지 못하고 있던 조선은 과학과 기술이 앞서 있는 유럽의 나라들과 미국의 군사력을 당해낼 수가 없었습니다. 아래의 사진은 당시 미국 해군이 조선군으로 부터 빼앗아간 어재연 장군기입니다. 이 장군기는 Maryland Annapolis에 있는 미국해군사관학교(US Naval Academy)에 보관되고 있다가 현재는 한국 강화도에 있는 박물관에서 전시되고 있습니다.

프랑스 국립 박물관에 보관된 책 직지. 이 책은 세계 최초의 금속활자로 인쇄된 책입니다.

미국 해군에 의해 빼앗긴 어재연 장군의 깃발

홍선 대원군은 결국 외국 세력으로부터 나라를 지키기 위하여 외국과의 통상, 교류를 하지 않기로 하는 쇄국정책(seclusion policy)을 펼치게 되었으나 파도처럼 밀려오는 외국의 압력에 쇄국정책은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세계 정세를 못 본 척 한다고 해서 나라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었으며 또한 나라의 힘을 빠른 시일 내에 기를 수 있는 여유가 없었던 것입니다.

전멸 wiped out
쇄국 정책 seclusion policy

다. 조선의 대미 외교와 시카고 박람회 참가
Diplomacy with U.S. and Chosun in Chicago Expo

조선이 다른 나라들의 침략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었지만 조선 정부는 나름대로 나라의 자주권을 지키고 변화하는 세계의 흐름에 발맞추어 나가기 위한 노력을 하였습니다. 1882년 조선은 미국과 한미수호통상조약(Treaty of

자주권 sovereignty
초청 invite
궁중악사 court musician
박람회 expo

조선의 박람회 참가단을 이끌고 미국에 간 정경원(앞줄 오른쪽)과 정부 관리들

Peace, Amity, Commerce and Navigation, United States-Korea Treaty)을 맺고 정식 외교 관계를 맺었습니다. 특히 1883년 미국의 초청에 의하여 파견된 보빙사(delegation to the U.S.)가 돌아와 발달된 미국의 모습을보고 하였고 조선 정부는 미국과의 외교 관계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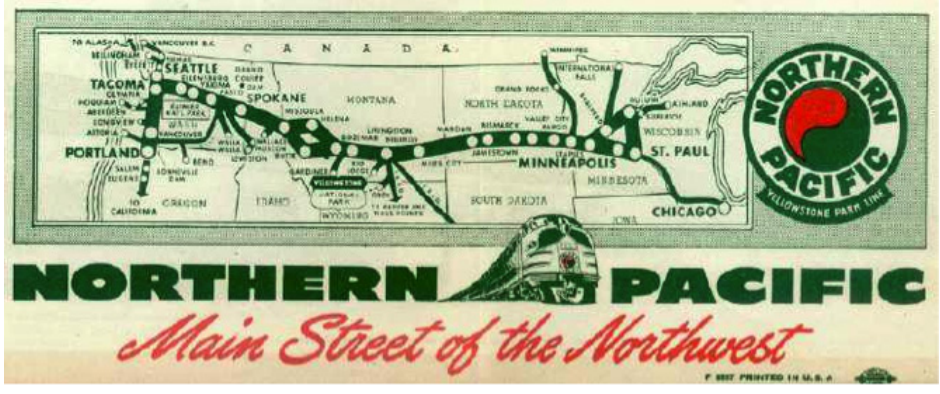
1893년 미국 시카고에서 콜럼버스가 미국 대륙 발견 400주년을 기념하는 세계 박람회(International Exposition)가 열렸는데 고종 황제는 미국의 공식 초청을 받아 궁중 악사들을 포함하여 모두 13명을 파견하여 조선의 문물을 소개하도록 하였습니다. 이 박람회에는 전 세계에서 47개국이 참가하였습니다.

시카고 박람회의 조선 전시관 모습. 전통적인 한국의 집 모양을 갖는 전시관에는 가마, 공예품, 농산물 등이 전시되었고 미국인들에게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지붕위에 펄럭이는 태극기를 볼 수 있습니다.

조선 대표단은 한국 고유의 건축 양식을 갖는 전시관을 만들고 전통 가구, 궁중에서 입는 의복, 비단 자수품, 삼베옷과 같은 의류, 병풍, 가마, 종이제품, 호랑이 가죽, 인삼, 도자기, 대포, 곡식 등 다양한 물품을 전시하였는데 많은 미국인들이 생전 처음보는 조선의 물품에 큰 관심을 가졌고 정교하고 아름답게 만들어진 공예품에 감탄하였습니다. 특히 미국 Cleveland 대통령도 참관하였는데 그때 궁중 악사들이 아름다운 우리 음악을 연주하여 그 선율의 아름다움에 미국인들이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조선 대표단의 단장인 정경원은 박람회가 끝난후 워싱턴을 방문하여 Cleveland 대통령을 만나 회담을 가졌고 미국은 조선 대표단을 정중하게 대우하였습니다. 이 박람회를 통하여 조선은 독립적인 문화를 가진 나라라는 이미지를 미국과 전세계에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비단 자수품 silk embroidery
삼베옷 linen clothes
병풍 folding screen
곡식 grains
공예 crafts

또한 흥미로운 것은 조선의 전시관을 방문했던 미국 Northern Pacific Railway의 수석 엔지니어인 Edwin McHenry가 우리 한민족을 상징하는 태극기의 태극 문양에 깊은 인상을 받고 이 태극 마크가 행운과 신속 정확한 운송(transportation)의 의미로 회사의 logo를 만들었고 오늘날에도 태극 마크가 들어간 logo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Northern Pacific Railway회사의 로고로 사용되고 있는 태극 마크

그 후 1900년에 프랑스의 파리에서 열린 만국 박람회에도 대한제국이 참여하여 우리나라의 아름다운 문화를 유럽 나라들에게 소개하였고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이처럼 대한제국은 늦었지만 세계의 다른 나라들과의 교류를 위해 많은 노력을 하였던 것입니다.

워싱턴 DC 시내에 있는 옛 대한제국 주미 공사관 건물의 옛날 사진. 한국 정부에 의해 2012년 매입되어 2017년 다시 공개될 예정입니다.

워싱턴 DC의 대한제국 공사관: 고종 황제는 다른 나라들과 외교 관계를 맺어가면서 미국과의 외교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1891년 11월 박정양 초대 주미 공사가 미국 워싱턴 시내에 있던 건물을 그 당시로서는 아주 큰 금액인 2만 5천불을 주고 사서 '대조선 미국 워싱턴 공사관' 건물로 사용하도록 하였습니다. 1905년 12월 16일 일본이 강제로 을사늑약을 체결하여 대한제국의 외교권을 빼앗아 갈 때까지 14년간 이곳은 대미 외교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대한제국의 외교권을 빼앗아간 일본은 1910년 이 건물을 단돈 5불에 팔아 버렸습니다. 이 건물에 관해서 많은 사람이 잊고 있던 중 2001년 10월 미주 한인 이민 100주년 기념 사업회는 이 역사적인 건물을 다시 사들여 후손들에게 우리 민족의 근대 역사를 가르치고 그러한 역사적 의미를 지니는 이 건물을 물려주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그들은 워싱턴 DC지역의 한인들을 대상으로 '한 사람이 10불, 벽돌 1개 쌓기' 모금 운동을 시작하였으며 8만불이 넘는 돈을 모금하였습니다. 그들이 중심이 되어 미국에 사는 한인 이민자들의 나라 사랑하는 이러한 활동이 알려지면서 한국 정부에서 2012년 이 건물을 350만불에 매입하게 되었고 건물 내부의 복원 작업을 시작하게 되었으며 2017년 일반에게 공개될 예정입니다. 이 건물의 매입 운동은 1903년 한국인 최초의 이민자들이 하와이에 도착하여 미국에 정착하여 살면서도 항상 나라를 사랑하여 독립운동을 위해 힘을 모은 전통이 오늘날에도 전해 내려오고 있음을 보여주는 일입니다.

라. 근대 국가 일본의 등장과 위협

Emergence of Modern Japan and its Threat

조선이 500년 동안 유지해온 유교적 이념을 19세기말까지 지켜오고 서구의 발달된 과학 기술과 세계의 변화를 알지 못하고 뒤떨어져 있었던 반면, 일본은 1850년 이후 일찌기 서구 문물을 받아들여 1866년 메이지 유신(Meiji Restoration)을 단행하고 서양식의 개혁을 하였습니다. 일본은 영국, 프랑스, 독일 등 유럽 나라들의 군사 체제와 무기를 도입하여 군대를 현대화 하였고 또한 발달된 과학 기술을 도입하여 산업의 근대화를 이루었습니다. 일본은 유럽의 나라들이 막강한 군사력을 이용하여 아프리카, 남미, 동남아의 힘이 약한 나라들을 점령하여 식민지로 만드는 것을 보고 이웃 나라인 조선과 중국을 침략하여 일본 땅으로 만드려는 계획을 세우게 되었으며 이를 실천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 첫 단계로 일본은 가장 가까운 나라인 조선에 여러 곳의 항구를 개방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1876년 일본은 강력한 군대를 앞세워 인천 앞에 있는 섬인 강화도에서 조일수교조약(Chosun-Japan Trade Treaty)을 강압적으로 체결하였는데 이 조약은 조선에게 매우 불리한 조건들이 많이 들어있던 불평등 조약이었습니다. 이 조약으로 인하여 부산, 제물포(인천), 원산의 3개 항구에 일본의 배들이 들어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로서 일본은 조선에서 쌀과 곡식, 지하 자원 등을 싼 값에 사다가 일본에서 이득이 많이 나는 상업 제품을 만들어 조선에 비싼 값으로 다시 되팔게 되니 일본은 이를 통해 조선에서 엄청난 이득을 얻게 된 것입니다.

이후 미국, 프랑스, 독일, 영국, 이탈리아, 러시아 등 여러 국가와도 불평등 조약이 체결되었습니다. 나라의 힘이 없었기에 조선은 다른 나라들과 조약을 맺을 때 당당하게 권리를 주장하지 못하고 우리나라에 불리한 조약 조건을 받

서구문물 western civilization
지하자원 underground mineral resources
이득 profit
음모 conspiracy
불평등 조약 one-side treaty
권리 right

아들일 수 밖에 없었던 경우가 많았습니다. 게다가 북쪽에서는 러시아가 들어오고 남쪽에는 러시아를 막으려는 영국군이 1885년 남해에 있는 거문도라는 섬을 침공하여 점령하고 포대를 만들었습니다. 우리나라 땅은 중국, 일본, 러시아, 미국, 프랑스, 영국 등 수많은 나라들이 제멋대로 와서 무력을 사용하는 곳이 되어버렸습니다.

마. 혼란에 빠진 조선
Chosun in the State of Confusion

통상체결 trade treaty
착취 exploitation
개혁 정책 reform policy

서양의 강대국들과 일본과의 통상 체결은 국내의 정치에도 많은 영향을 주었습니다. 외국의 문물을 받아들이게 되면서 조선의 국내 정치는 혼란을 거듭하게 되고 군대와 농민들은 가난과 부패한 정부 관리들의 착취에 질려 정부에 대한 원망이 점점 커지게 되었습니다. 결국 농민들이 중심이 되어 나라의 정책에 반대하는 무력 저항 운동을 하게 되었고 여기에 일본과 중국이 끼어들어 나라는 혼란에 휩싸였습니다.

일본과 중국, 러시아는 서로 그들의 힘을 조선에서 확보하기 위하여 대립하였으며 결국 일본은 중국과의 전쟁(청일전쟁, 1894-1895)에서 이기고 러시아와의 전쟁(러일 전쟁, 1904-1905)에서도 승리함으로써 군사적으로나 경제적으로 힘이 없던 조선을 빼앗는 것을 이제는 아무 나라도 막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조선은 뒤늦게 개혁 정책을 도입하고 1897년 나라 이름을 대한제국(Korean Empire)으로 바꾸어 나라를 살리기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그러나 빠르게 변하는 국제 정세에 대응하지 못하고 내부적으로 나라의 힘을 키우지 못한 조선은 결국 1905년 을사늑약으로 외교권을 일본에게 빼앗기게 되었습니다. 을사늑약의 주요 내용은 앞으로 조선이 다른 외국과의 관계에서 일본이 모든 권한을 갖는다는 것으로 실질적으로 조선의 주권(sovereignty)을 거의 다

빼앗은 것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어 1910년 8월 29일 대한제국은 강제로 일본에게 나라를 송두리째 빼앗기게 되었고 5000년 오랜 역사를 가진 우리나라는 하루 아침에 나라가 없는 백성이 되어버리고 다른 민족의 지배를 받게 되었습니다.

범죄 crime

1945년 8월 15일 일본의 항복으로 해방될 때 까지 36년간은 일본 제국주의의 식민지로서 고통을 받게 되는 역사적 암흑기였습니다. 그러나 일본은 강력한 군사력을 바탕으로 총칼을 앞세워 대한제국과 맺은 1910년의 조약에 의한 병합(annexation)이 강압적인 것이 아니라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조약이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일본은 군인들을 경복궁에 침투시켜 고종 황제의 부인인 명성 황후를 시해(assassination)하는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때 명성 황후를 시해할 때 사용한 일본 군인들의 칼을 일본 후쿠오카에 있는 '쿠시다'라는 신사(shrine)에서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 칼의 칼집에는 말로 표현하기 힘든 야만적인 글이 씌여져 있습니다.[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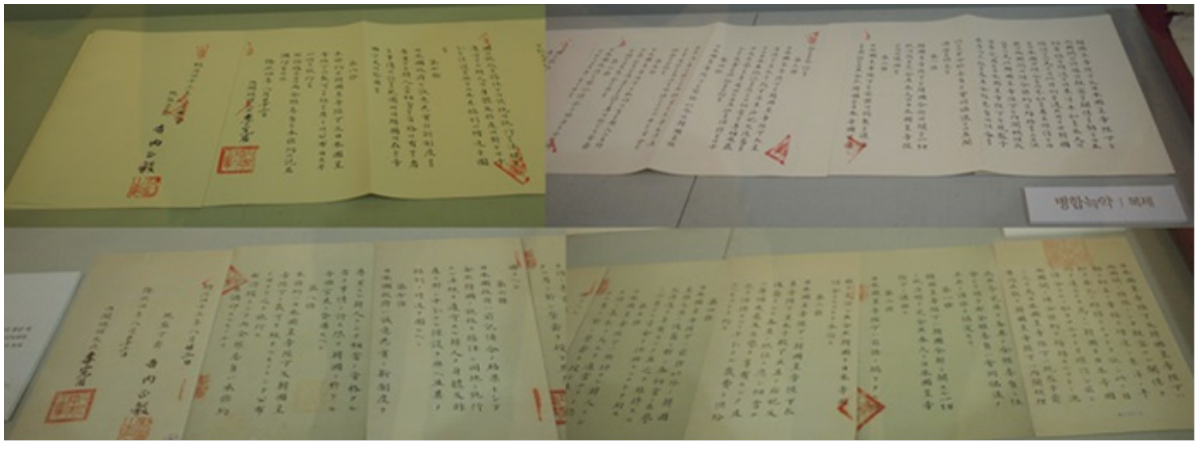
☞ 생각해 봅시다

1. 왜 다른 나라들이 조선을 침략하려고 몰려들었습니까?
2. 조선이 왜 다른 나라들의 침략에 대항하지 못하고 나라를 빼앗기게 되었을까요?
3. 그 당시 내가 조선에 살고 있었더라면 나라를 위하여 무엇을 할 수 있었는지 생각해 봅시다.
4. 내 나라를 다른 나라에 빼앗긴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생각해 봅시다.
5. 19세기 후반으로 돌아가서 고종 황제에게 조선이 처한 위급한 상황을 알리는 편지를 써봅시다.

1 http://www.hani.co.kr/arti/culture/culture_general/147566.html

조선의 모든 외교권을 일본이 행사한다는 내용의 을사늑약(출처: 독립기념관). 이 조약으로 인하여 조선은 실제적으로 주권(sovereignty)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한일 합병 후 경복궁에 걸린 일장기(일본 국기). 경복궁은 조선의 왕이 신하들과 국가의 정치를 논의하는 곳이었는데 나라를 빼앗기며 일본 국기가 걸려 펄럭이게 되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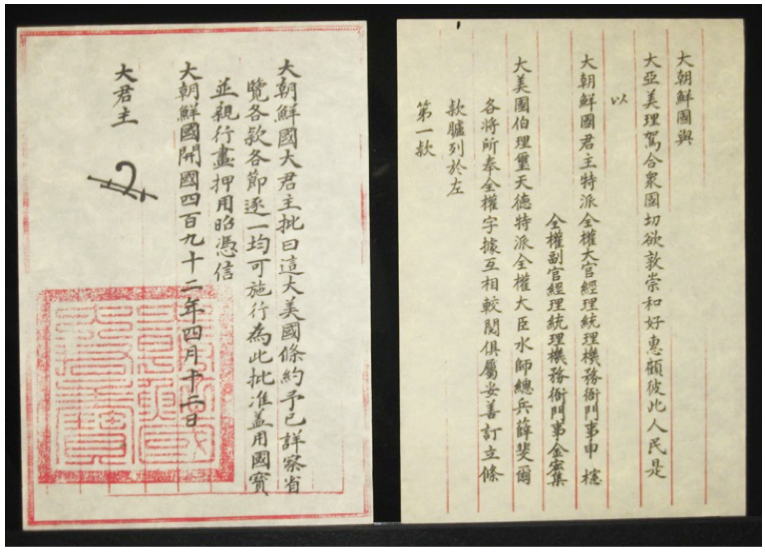


한일 병합 조약서-1910년 8월 29일. 친일 매국노 이완용이 주동이 되어 나라를 일본에 빼앗기는 조약을 맺게 되었으며 이 조약은 한민족 역사이래 가장 수치스러운 조약이었습니다.

한일 합병 후 일본이 만든 지도: 한국이 일본의 영토로 표기되어 있음

(2) 한국인의 첫 미국 이민
The First Korean Immigration to U.S.

가. 하와이 사탕수수 농장 Sugar Cane Plantation in Hawaii


大朝鮮國與
大亞美理駕合衆國切欲敦崇和好惠顧彼此人民是
以
大朝鮮國君主特派全權大官經理統理機務衙門事申櫶
全權副官經理統理機務衙門事金宖集
大美國伯理璽天德特派全權大臣水師總兵薛斐爾
各將所奉全權字據互相較閱俱屬妥善訂立條
款臚列於左
第一款

大朝鮮國大君主批曰道大美國條約予已詳察省
覽各款各節逐一均可施行為此批准蓋用國寶
並親行畫押用昭憑信
大朝鮮國開國四百九十二年四月十五日
大君主

한미수호통상조약(1882년, 조선과 미국 사이에 국교 수립과 통상을 목적으로 체결된 조약)

일본과 서양 여러 나라들이 조선에 몰려와 나라를 개방하라고 괴롭히고 국내적으로 사회가 불안정하고 어수선한 가운데 1882년 조선과 미국 간의 한미수호통상조약(Treaty of Peace, Amity, Commerce and Navigation, United States-Korea Treaty)이 체결되었고 20년 후 고종 황제가 한인들의 미국 이민을 허락하였습니다. 미국 공사이자 선교사인 알렌(H. N. Allen) 에 의해 추천된 데쉴러(Deshler)라는 사람이 고종 황제로부터 하와이 이민 사업의 책임자로 임명되어 한국인 노동자들을 전국에서 모집하고 하와이의 사탕수수 농장으로 이민 보내는 일을 맡게 되었습니다. 가난에 고생하던 한국 사람들은 새로운 기회를 찾아 미국으로 가는 것에 관심을 갖게 되어 가는 곳의 사정도 알지 못한 채 이민 신청을 하였습니다.

노동자들 laborers
신체검사 health exam
예방접종 vaccination

미국은 왜 한국에서 노동자들을 하와이의 사탕수수 농장으로 데려가려 했을까요? 하와이의 사탕수수 농장주들은 처음에는 유럽에서 값싼 임금의 노동자들을 데려오려 했으나 힘든 사탕수수 농장에서 일하려는 유럽 사람들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러자 사탕수수 농장 주인들은 백인(주로 포르투갈, 독일인)의 감독 아래 싼 임금으로 구할 수 있는 아시아로 눈을 돌렸고 중국인, 일본인 노동자들을 하와이로 데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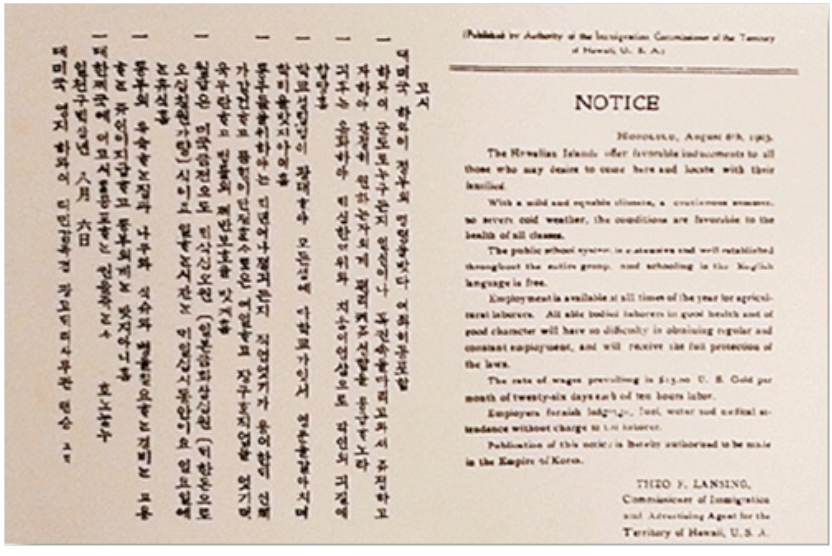
오게 되었습니다. 이들 나라에서 노동자들을 데려오기 힘들어지자 한국(조선)에서 노동자들을 데려오기로 한 것입니다. 이것이 한국인의 이민이 시작된 계기였습니다.

1902년 12월 22일 하와이 첫 한인 이민단 121명이 인천 제물포항을 떠나 일본 나가사키 항에 도착하였고 그곳에서 신체검사와 예방 접종을 받은 후 하와이로 가는 미국의 여객선인 갤릭호(USS Gaelic)에 102명(남자 56명, 여자 21명, 어린이 25명)이 탑승하여 1903년 1월 13일 하와이의 호놀룰루에 도착하였습니다. 이렇게 하여 한국인의 첫 미국 이민이 시작된 것입니다.

최초의 한인 이민자들을 싣고 하와이의 호놀룰루로 향하는 이민선 갤릭호(USS Gaelic which transported first group of Korean immigrants to Hawaii in 1903)

하와이에 도착한 한인 이민자들은 주로 오하우섬의 북서쪽인 Waialua 지역에 정착하였고 그 후 차츰 호놀룰루와 같은 도시로 많이 이주하였습니다.

한인 이민자 가족의 모습



NOTICE

Honolulu, August 6th, 1903.

The Hawaiian Islands offer favorable inducements to all those who may desire to come here and locate with their families.

With a mild and equable climate, a continuous summer, no severe cold weather, the conditions are favorable to the health of all classes.

The public school system is extensive and well established throughout the entire group, and schooling in the English language is free.

Employment is available at all times of the year for agricultural laborers. All able bodied laborers in good health and of good character will have no difficulty in obtaining regular and constant employment, and will receive the full protection of the laws.

The rate of wages prevailing is $13.00 U. S. Gold per month of twenty-six days each of ten hours labor.

Employers furnish lodging, fuel, water and medical attendance without charge to the laborer.

Publication of this notice is hereby authorized to be made in the Empire of Korea.

THEO. F. LANSING,
Commissioner of Immigration and Advertising Agent for the Territory of Hawaii, U. S. A.

1903년 8월 6일자로 항구 각처에 내붙인 하와이 이민 모집 포스터(Poster recruiting Hawaii plantation workers)

나. 초기 하와이 이민자들의 생활 모습

The Early Days of Korean Immigrants in Hawaii

수확 harvest
월급 monthly salary

하와이에 이민 온 대부분의 한국인들은 사탕수수 농장에서 일했습니다. 그들이 맡은 일은 잡초 뽑기, 사탕수수를 잘라 수확하는 일, 잎파리들을 잘라 내고 차곡차곡 쌓아놓는 일, 쌓아놓은 사탕수수를 등에 지고 기차나 마차에 싣는 일 등으로 매우 힘든 일들이었습니다. 일부 한인들은 쌀 농사와 파인애플 농장에서도 일했습니다.

하와이 사탕수수 농장

한인 이민 노동자들은 하루 10시간, 매달 25일간 농장에서 일했으며 $16의 월급을 받았습니다. 여자들은 하루에 50-65 ¢정도 받았으므로 한달에 약 $12-15 정도 받은 것입니다. 1900-1910년에 미국 사람들의 평균 수입은 $438/year였고 계란은 $0.23/dozen, 쌀은 7¢/pound, 자전거는 $16 정도였습니다.[2] 그러므로 한인 이민자들은 1년에 $200 정도의 돈을 받았으므로 경제적인 여유를 누리기에는 힘들었던 것입니다. 또한 한인 부인들은 농장에서 일하거나 음식, 빨래 등의 노동을 하여 경제적으로 자립하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하였습니다. 그 후 한인 이민자들의 숫자는 크게 늘어나서 1905년에는 32개 농장에 4,900명의 한인이 일하였고 하와이의 여러 섬에 흩어져 살았습니다. 1910년에는 약 2,000명이 미국 본토로 이주하였고 1,000명은 다시 한국으로 돌아갔으며 당시 하와이에는 4,500명이 남아 있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 한인

수확한 사탕수수를 가득 실은 트럭

사탕수수 농장에서 일하는 한인 이민자들의 모습

방고(신분증): 하와이 사탕수수 농장 노동자들이목걸이처럼 걸고 다녔던 번호표

2 Value of a Dollar 1860-1999, Grey House Publishing, 1999; http://usa.usembassy.de/etexts/his/e_prices1.htm

공인 accredited

이민자들 중에는 한국에서 신식 교육을 받지는 못했으나 하와이에 와서 교회를 다니고 주일 학교에서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한국에 돌아가지 않고 하와이에 남거나 샌프란시스코 등 미국 본토로 떠난 한인 이민자들은 이미 일본에 나라를 빼앗겨 조국에 돌아가는 것은 무의미하다고 생각하였고 미국에 남아 조국의 독립운동을 도와야겠다고 생각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또한 하와이의 한인 이민자들은 $2,000이라는 큰 돈을 모으고 하와이 감리교 선교부가 모은 $18,000을 합쳐 1906년에 한인 소년 기숙 학교(Korean Boarding School)를 세웠습니다. 이 학교는 하와이 정부의 공인을 받은 초등학교 6년제 학교였으며 어린 학생들 뿐만 아니라 어른들도 기초 교육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 학교는 1918년까지 운영되었는데 1945년 해방후 대한민국의 초대 대통령이 된 이승만 박사가 한인 여자 기숙학교(1915-1918)와 한인 기독학교(1918-1928)를 세우는데 기반이 되었습니다. [3]

다. 한인 이민자들의 자녀교육
Education for their Children

공립학교 public schools
사립학교 private schools

하와이에 이민온 중국인이나 일본인들과 달리 한인들은 조국이 일본에 나라에 빼앗기는 고통을 겪었는데 그들은 국민들이 잘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나라를 빼앗겼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므로 한인 이민자들은 무엇보다도 자녀들을 잘 공부시키는 일이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하였으며 자녀들을 가르치는데 온 정성과 노력과 희생을 다하였습니다. 1906년 하와이 교육국 통계에 의하면 161명의 한인 학생이 공립학교에 다니고 있었으며 1910년에는 270명의 한인 학생들이 공립학교와 사립학교에 다니고

3 하와이 한인이민 100년, 이덕희, 미주 한인 이민 100년사, 한미 동포 재단 미주 한인 이민 100주년 남가주 기념 사업회, 2003.

있었습니다. 그 당시 한인 기숙학교의 한 학년 기숙사 식비가 $50이었는데 농장에서 고된 노동을 하는 한인들이 너도 나도 월급에서 50센트, 1달러씩 나누어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들의 학비를 도왔습니다. 이들이 어려운 경제적 형편에서도 조금씩 돈을 모아 한인 2세들이 공부할 수 있도록 도운 것은 오로지 힘을 길러 일본에 빼앗긴 나라를 되찾기 위해서였습니다.

기숙학교 boarding school
식비 meal cost
방과후 after school
교과서 textbook

그뿐만 아니라 하와이의 한인 이민 선조들은 조국의 말과 글을 잊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하여 1907년 한글 학교를 세웠고 그 후 하와이의 여러 섬에 24개나 되는 한글 학교를 세워 자녀들이 정규 학교 방과후에는 한글 학교에 가서 한글을 배우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일제 총독부에서 만든 한글 교과서를 쓸 수 없다며 1911년과 1920년에 호놀룰루의 한인들이 스스로 교과서를 만들어 한글 학교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한글 학교에서는 밤에는 어른들이 모여 공부하였고 특히 부인들이 열심히 공부하고 사회활동을 활발히 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하와이 사탕수수 농장에서 일하던 초기 한인들이 고종 황제의 생일 축하 행사를 갖는 모습(1907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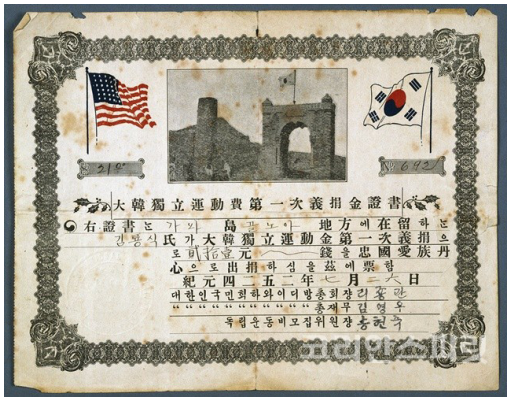
라. 하와이 한인 이민자들의 활동

Activities of Korean Immigrants in Hawaii

한인 신문 Korean newspaper
문맹 illiteracy
절약 saving
전문직 professions
갈등 conflicts

한인 이민자들은 농장에서의 힘든 노동 생활을 하면서도 1904년에 최초로 한인 신문을 발간하였습니다. 이들이 신문을 만든 것은 신문을 통하여 한인들이 지식을 얻어 여러 가지 생활에 필요한 정보를 나누며 서로 소식을 전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 후 많은 신문과 잡지 등이 발행되어 소식을 전하고 문맹 퇴치와 대중 교육의 중요한 역할을 하였고 또한 이민자들에게 나라 사랑을 전하는 역할을 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한인 교회들도 많이 세워졌는데 1903년에 호놀룰루에 세워진 감리교회는 해외에서 제일 오래된 한인 교회가 되었습니다.

1910년 이후에는 많은 한인 이민자들이 사탕수수 농장을 떠나 호놀룰루 시내에서 사업을 하게 되었으며 1919년 3.1 독립 만세 운동 소식이 전해지자 이들은 나라를 되찾아야 한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성들은 한인부인구제회(적십자사와 같은 단체)를 만들어 한국에서 독립운동을 하다가 부상당한 이들의 가족들을 위하여 돈을 모아 보내고 만주(Manchuria)의 독립군에도 지원금을 보내는 등 활발한 활동을 하였습니다. 이들은 남편들이 벌어오는 돈에서 절약한 돈이 아니라 스스로 나서서 함께 일하여 번 돈으로 독립운동을 위한 지원금을 마련하였던 것입니다.


大韓獨立運動費第一次義捐金證書
有證書는 가와 島 괄노이 地方에在留하는
간뽕식 氏가 大韓獨立運動金第一次義捐으로
로피 拾金元 錢을 忠國愛族丹
心으로 出捐하심을 茲에 標함
紀元四二五二年七月二八日
대한인국민회하와이더발총회장리 홍관
" " " " " " " " " " 총재무 김영우
독립운동비모집위원장 홍현국

하와이의 한인 이민자가 보낸 독립의연금 증서. 독립기념관 소장

또한 하와이는 이승만, 박용만 등 독립지사(leaders of independence movement)들이 활동한 근거지가 되었으며 한인 이민자들의 자녀들이 미군에 입대하여 제1차 세계 대전에 참전하였고 미국에서 교육받은 한인 2세들이 대학을 졸업하고 교사, 간호사, 의사 등의 전문직에 진출하게 되었습니다. 그때에도 한인 부모들과 미국에서 교육받은 2세들 간에 갈등이 많았는데 영어가 한국어보다 편한 2세들

과 문화적 차이로 인한 갈등, 한국인이 아닌 배우자들과의 결혼 문제 등이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초기 한인 이민자들은 낯선 미국 땅에서 열심히 일하여 살아갔고 자녀들을 교육시켜 미국에서 훌륭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많은 노력과 희생을 하였습니다.

한인들은 지금과 마찬가지로 그때도 자녀교육에 최선을 다했으며 그들은 또 모국어인 한국어 교육도 빠뜨리지 않았습니다.

한국어학교의 기념사진

사진신부: 하와이 이민자들의 배우자감을 찾기 위하여 한국에서 보내온 신부감들의 사진을 보고 초청하여 결혼을 하는 일이 많았습니다. 사진을 보고 신부감을 데려왔다고 해서 이들을 사진 신부(Picture Brides)라고 불렀습니다.

하와이 한인 소년단 1919(Hawaii Korean Boy Scout 1919)

☞ 생각해 봅시다

1. 사탕수수 농장에서 일하기 위해 처음으로 미국에 온 한인 이민자들은 어떤 마음과 목표를 가지고 있었을까요?
2. 그들은 왜 사탕수수 농장을 떠나 도시로 가서 다른 일을 하려고 하였을까요?
3. 한인 이민자들에게 가장 힘들었던 일은 무엇이었을까 생각해 봅시다.
4. 한인 이민자들이 한글학교를 세운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5. 그들은 왜 힘들게 번 돈을 모아서 조국의 독립운동을 위한 지원금으로 보냈을까요?
6. 그들은 왜 자녀교육을 위해 희생을 아끼지 않았을까요?
7. 지금 나의 부모님들도 이민자로서 나를 위하여 어떤 희생을 하시는지 생각해 보고 부모님과 이야기 해 봅시다.
8. 다음 그림을 보고 무슨 내용인지 이야기를 써 봅시다.

(3) 한인들의 미 대륙 진출과 독립운동
Korean Immigrants in the U.S. and the Korean Independence Movement

하와이의 사탕수수 농장에서 일하던 한인 이민자들은 좁은 하와이에서는 더 큰 발전을 하기 어렵다고 생각하였고 캘리포니아로 이주하기 시작하였으며 특히 샌프란시스코(San Francisco) 지역으로 진출하였습니다. 또 그 일부는 멀리 멕시코와 쿠바로 이주하였습니다.

초대 대통령 the First President

미국 대륙에 진출한 한인들은 한국에서 온 유학생들과 함께 미국내 한국인 활동의 중심적 역할을 하게 되었고 미국의 수도인 워싱턴 DC에도 진출하여 미국의 정치가들을 통해 한국의 독립운동에 대한 지원을 받으려는 노력을 하였습니다. 이들 중 이승만(Seung Man Rhee)은 이러한 독립운동의 대표적인 지도자로서 활동하였으며 그 후 1948년 그는 해방된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초대 대통령으로 선출되었습니다.

이 단원에서는 일찌기 미국에 와서 새로운 교육을 받은 한인들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가. 유학생 유길준 (1856-1914)

유길준은 고종 황제가 미국에 파견한 보빙사(delegation to the U.S.)의 한사람으로서 일본과 미국을 방문하여 이들 나라의 발전한 모습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는 조선이 전통적인 가치관에 사로잡혀 과학과 기술을 발전시키지 못하고 있는 동안 서구의 나라들이 그 당시 그가 상상할 수도 없었던 과학 문명을 발전시킨 모습을 보고 어떻게 하면 조선을 이와 같이 발전한 나라로 만들 수 있을까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여러 사람의 도움

가치관 values

으로 미국에 남아 미국의 대학에 진학하기 위해 Governor Dummer Academy라는 학교에서 공부하였으나 중간에 그만두었고 그 후 1885년 보스턴 대학교에 입학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공부를 마치지 못하고 1885년 9월 조선으로 귀국하였습니다. 비록 미국 대학에서 공부를 마치지는 못했지만 그는 최초의 유학생으로서 일본과 미국에서 공부하고 서구의 민주주의(democracy)와 합리주의(pragmatism)주장을 받아들였으며 과학 기술의 힘을 직접 보고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는1885년에 귀국한 뒤 '서유견문'이라는 책을 써서 자신이 본 서구 문물을 소개하였습니다.

나. 한인 최초의 미국 대학 졸업생 변수 (Pyon Su, 1861-1892)

변수는 조선에 있을 때 개혁 운동에 참여하였다가 실패하고 미국에 와서 최초의 한인 유학생이 되었으며 메릴랜드 대학(University of Maryland, College Park, MD)에서 농학(agriculture)으로 학사 학위를 받고 Beltsville에 있는 미 농무성 연구소(United States Department of Agriculture Research Center)에서 일하였습니다.

한국인 최초의 미국 대학 졸업생 변수가 교복을 입은 모습(왼쪽)과 보빙사 사절로 미국을 방문했을 때의 변수(오른쪽 사진 동그라미 속에 있는 사람)

변수는 중국어 역관 집안 출신으로 비교적 부유한 집안에서 성장하였으며 뛰어난 어학 실력을 가지고 있었고 어린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당시 개화당의 지도자 김옥균에게 발탁되어 일본에서 양잠학(silkworm farming) 및 화학을 공부하였습니다. 그리고 조선 최초 대미 사절단 보빙사(delegation to the U.S.)의 일원으로 미국을 방문하기도 하였습니다(동그라미 속 사진).

교복 school uniform
역관 interpreter
세계일주 going around the world
근대화 modernization
혁명 revolution
역적 betrayal
유학 study abroad

보빙사는 미 대통령 전용함인 트렌튼호를 타고 세계 일주를 할 기회가 주어졌고 변수는 미국뿐만 아니라 조선 최초로 세계일주를 마치고 귀국하여 조국 근대화의 꿈에 부풀어 있었습니다. 1884년 12월 4일, 조선의 완전한 자주 독립과 근대화를 꿈꾸던 변수를 포함한 조선 최고의 젊은 지식인들은 혁명을 시도하였으나, 3일만에 실패로 끝났습니다. 혁명의 실패로 그들은 역적이 되었으며 그들의 집안은 몰락하였습니다. 변수는 일본으로 망명을 하였다가 미국으로 유학길에 올랐습니다.

당시 변수는 조선이 근대화 혹은 산업혁명을 일으키기 위해서는 농업 기술이 혁신(innovation in agricultural technology)되어야 한다는 것을 깨닫고 메릴랜드 농과 대

한인 최초의 미국 대학 유학생 변수의 졸업장(1891년)과 변수가 교통사고를 당한 메릴랜드 칼리지 역의 모습(1900년경)

불행하게도 unfortunately

학으로 진학하였습니다. 메릴랜드 농과 대학에서 그는 우수한 성적으로 공부하고 1891년 메릴랜드 대학을 졸업하였으며 메릴랜드 대학 근처에 있는 미국 농무성 연구소에서 일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새로운 농업 기술을 배워서 언젠가 조국으로 돌아가 조국의 근대화(modernization of Korea)를 위해 힘쓸 것을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그는 당시 연구 보고서에 필요한 자료를 찾기 위해 메릴랜드 대학에 가는 도중, 급행열차에 치어 운명을 달리하고 말았습니다. 메릴랜드 대학에서는 현재 변수기념관을 운영하고 있으며, 최근 발견된 그의 졸업장은 메릴랜드 대학에서 가장 오래된 졸업장으로 남아 있습니다.

다. 서재필 (1864-1947)

젊을 때의 서재필 박사(왼쪽)과 워싱턴 DC 대한민국 영사관 앞에 세워진 서재필 박사의 동상

독립운동가이자 의사였던 서재필은 한국 최초의 신문인 <독립신문>을 1896년 발간하였습니다. 그는 미국에서 Harry Hillman Academy (PA)를 졸업하고 George Washington University Medical School에서 Medical Doctor 학위를 취득하였으며(1893년) 한국인으로서는 최초로 미국 시민권자가 되었습니다(1890년). 그는 The First Korean Congress(1919)를 주관하였고 한민족의 민족 의식 고취와 독립운동에 일생을 바쳤습니다. 그는 1882년 과거에 급제하여 관직(government officer position)에 올랐으나 1883년 일본에 유학하였고 귀국하여 개혁 운동에 참여하였지만 실패하여 미국으로 망명하였습니다. 그 후 다시 귀국하여 독립협회를 조직하고 토론회, 강연회 등을 통하여 민주주의 제도에 대한 계몽

시민권자 American Citizen
망명 exile
강연회 lecture

(teaching)을 하였습니다. 그 후 나라를 일본에 빼앗기게 되자 미국에서 한국의 독립운동을 지원하였고 미국내의 독립운동가들과 함께 일하였습니다. 그 후 1945년 해방 후 귀국하였다가 1947년 다시 미국으로 돌아갔다가 병으로 사망하였습니다.

라. 안창호 (1878-1938)

안창호는 젊었을 때부터 나라의 혼란과 일본의 침략을 걱정하여 독립운동에 많은 노력을 하였습니다. 19세 때 독립협회에 가입하였고 웅변을 잘하여 이름이 널리 알려졌습니다. 그는 1902년 미국으로 공부하기 위하여 한국을 떠나 샌프란시스코에 도착하였고 그 후 California 오렌지 농장에서 일하면서 재미 한인 동포들의 단결과 계몽을 위해 힘썼습니다. 그는 동포들에게 영어를 가르치고 신문을 발행하였으며 1905년 을사늑약 반대 운동을 주도하였습니다. 특히 그는 국민들의 의식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였으며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였습니다. 그는 1912년 샌프란시스코에서 대한인 국민회(Korean National Association)를 만들고 이승만, 서재필, 박용만 등 애국지사들과 함께 독립운동을 시작하였습니다. 특히 '흥사단'이라는 단체를 통하여 민족 운동의 간부들을 양성하는데 많은 노력을 하였습니다. 그 후 안창호는 중국에서 상해 임시 정부의 지도자로서 독립운동을 하다가 체포되었고 많은 고문을 받았습니다.

웅변 public speech
단결 unification
간부 leader
체포 arrest
고문 torture

서울 강남 논현동에는 안창호의 호를 딴 도산공원이 만들어졌고 많은 사람들이 안창호의 독립운동과 민족 사랑의 정신을 기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마. 이승만 (1875-1965)

이승만은 대한제국 시절 독립운동가, 교육 계몽운동가의 한 사람이었으며 미국에 유학하여 워싱턴의 George Washington 대학에서 철학을 공부하였고 Harvard 대학에서 석사를 받았으며 1910년 Princeton 대학에서 국제정치학 박사를 받고 하와이 한인 사회에서 지도자로서 활동하였습니다. 그는 일제의 강점기에 독립운동을 위해 활발하게 활동하였고 상해 대한민국 임시 정부의 대통령직을 지냈습니다. 탁월한 영어 실력과 정치적 능력이 있어서 미국 정부의 지도자들과 교류하였고 1948년 대한민국 초대 대통령으로 취임하였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그 후 1960년 부정 선거로 인하여 학생들이 이를 반대한 4.19 혁명에 의해 대통령직을 물러나고 미국으로 망명하였습니다. 그는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United, we live, Scattered, we perish)"는 유명한 연설을 하여 국민들의 단결을 호소하였습니다.

철학 philosophy
석사 master's degree
부정 선거 electoral fraud
망명 exile
연설 speech

☞ 생각해 봅시다

1. 내가 유길준이나 변수처럼 최초의 유학생이었다면 무엇을 배워서 우리나라가 발전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었을까요?
2. 메릴랜드와 워싱턴에 있는 우리나라 독립운동과 관련된 곳(독립운동 유적지)이 있는지 알아봅시다.
   - 구미위원부(1333 H. St. Peoples Life Insurance Bldg #907-7, NW, Washington DC)
   - 변수의 묘소(De La Salle Cemetery, Ammendale, Maryland)
   - 주미공사관 건물(15 Logan Circle, Washington DC)
   - 한인자유대회 개최지 – 라파예트(The La Fayette) 호텔 터(815 16th St. NW, Washington DC)
   - 한국 벚나무(4400 Massachusetts Ave. NW, Washington DC, American University)

숨은 단어 찾기

하와이, 이승만, 사탕수수, 미국, 변수, 서재필, 을사늑약, 태평양, 청일전쟁, 갤릭호, 러일전쟁, 독립운동, 한국, 삼일운동, 천주교, 경성, 고종 황제, 안창호, 대원군, 세종대왕, 한글

하	와	세	종	대	왕	독	립	운	동
와	이	키	사	랑	해	요	대	동	대
이	승	만	탕	수	육	안	원	장	문
미	국	변	수	서	창	과	군	교	학
갑	을	병	수	호	재	산	대	주	권
한	글	사	명	대	사	필	승	천	경
태	평	양	늑	고	종	황	제	술	성
청	일	전	쟁	약	로	외	국	어	경
백	갤	릭	호	치	약	치	과	병	원
러	일	전	쟁	한	국	삼	일	운	동

2

일본 제국주의의 우리 민족 탄압과 독립운동

Oppression by Japanese Imperialism and the Independence Movement

(1) 일본제국의 우리 민족 탄압
Oppression by Japan

(2) 항일 독립운동
Anti-Japanese Independence Movement

(3) 한국의 해방과 6.25 전쟁
Liberation of Korea and the Korean War

2. 일본 제국주의의 우리 민족 탄압과 독립운동
Oppression by Japanese Imperialism and the Independence Movement

이 장에서는 1910년 8월 29일 경술 국치(일본의 대한제국 강제 병합) 이후 1945년 8월 15일 해방될 때 까지 일본이 우리 민족을 탄압한 역사적 사실과 우리 민족의 일본에 대한 저항과 독립 운동에 대하여 알아봅니다.

일본은 우리 민족 고유의 전통과 문화를 없애기 위하여 수많은 탄압 정책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러나 한편 일제의 강점으로 인하여 민족의식(awareness of national identity and spirit)이 살아나게 되었고 나라 안과 밖에서 나라를 되찾기 위한 독립 투쟁 운동이 일어났으며 미국의 한인 동포들도 이러한 독립운동에 큰 기여를 하였습니다.

이 장에서는 일제의 탄압, 나라를 빼앗긴 민족이 겪어야 했던 고통의 이해와 저항의 역사에 관해 배워 보도록 하겠습니다.

(1) 일본 제국의 우리 민족 탄압
Oppression by Japan

1910년 8월 29일 강제로 대한제국을 일본에 병합시킨 일본은 우리나라를 철저하게 자기 나라로 만들기 위하여 많은 일본인들을 한국(조선)으로 이주시키고 우리 민족의 민족정신뿐만 아니라 한국 고유의 역사, 문화, 전통을 없애기 위하여 수많은 정책과 제도를 만들었는데 그 대표적인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병합 annexation
민족 정신 national spirit
역사 history
문화 culture
전통 tradi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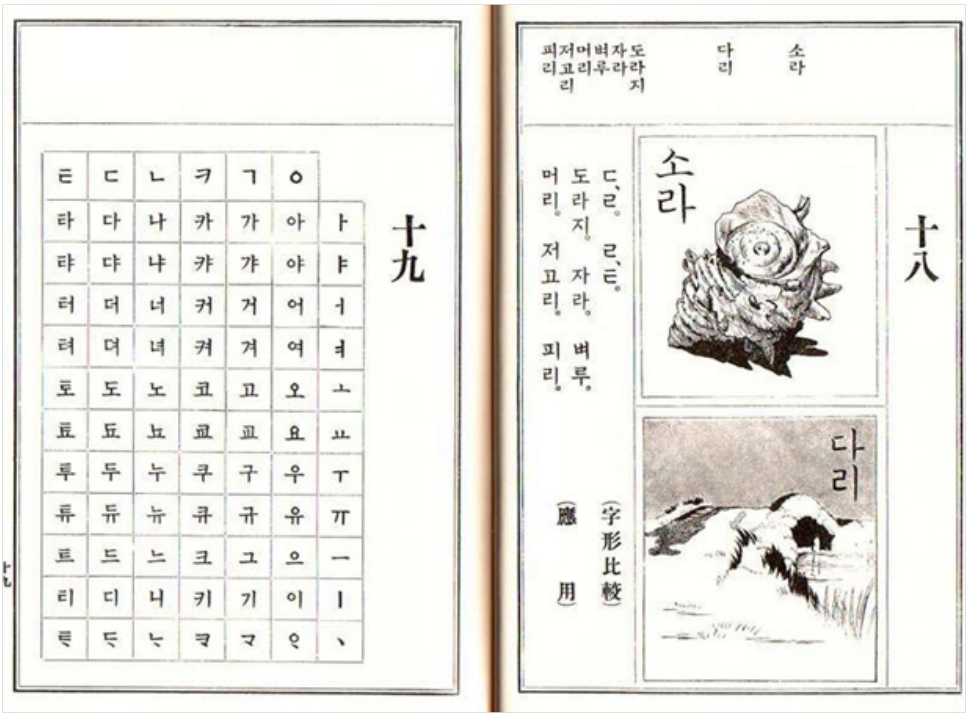
가. 우리 말과 문화의 억압
Oppression of Hangul and Korean Cultural Activities

말(language)에는 민족의 얼(spirit)이 담겨 있으며 어떤 민족의 문화와 전통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문화활동 cultural activities
금지 ban
발행 publish

나라는 일본이나 중국과 달리 우리 고유의 말과 문자인 한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나라를 강제로 빼앗은 일본은 모든 학교에서 한국어를 가르치지 못하게 하고 어린 학생들이 일본어로 말하고 읽고 쓰게 하였습니다. 이는 자라나는 어린이들이 한국말을 배우지 못하게 하여 어렸을 때부터 우리 민족의 정신이 자라지 못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또한 일본은 우리 민족이 오래 전부터 해온 문화활동을 하지 못하도록 법으로 금지시켰습니다. 이를 위해 한글로 된 신문이나 잡지를 발행하지 못하게 방해하였습니다.

어린이들에게 일본 국기를 가르치게 한 교과서. <우리 국기는 일본기>라고 가르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일제시대 한글을 가르치던 책

한국 사람에 의해 발행된 제국신문은 1898년 창간되었고 이 신문은 순 한글을 사용하여 많은 사람들이 쉽게 읽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한국인들이 용감하게 일본의 문화 말살 정책에 저항한 한가지 예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936년 독일 베를린(Berlin)에서 올림픽(Olympics)이 열렸습니다. 그런데 이 올림픽에 우리 나라 사람인 손기정 선수가 마라톤에 출전하여 금메달을 따서 나라를 빼앗겨 슬픔에 빠진 잠긴 우리 민족에게 큰 희망을 주었습니다. 동아일보와 조선 중앙일보는 손기정 선수의 유니폼(uniform) 왼쪽에 붙어있던 일장기(Japanese flag)를 사진에서 지우고 이 소식을 신문에 보도하였습니다. 이것을 <일장기 말소 사건>이라고 부릅니다. 일본 정부는 이에 대한 보복으로 동아일보 신문 발행을 중단시키고 조선 중앙일보를 강제로 발행하지 못하게 막았습니다.

천연 자원 natural resources

또 다른 예로 우리나라를 식민지로 만든 일본은 싼 값에 천연 자원을 일본으로 가져가서 이를 비싼 제품으로 만들고 이를 다시 비싼 값에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팔았습니다. 그러나 우리 민족은 일본 사람들이 만든 물건 보다는 우

'한국 사람이 만든 광목을 한국 사람이 사서 쓰자'는 신문 광고

리나라 사람들이 만든 상품을 사야한다고 생각하고 서로 우리나라 사람들이 만든 상품을 사서 쓰려고 애썼습니다. 앞 페이지의 그림은 '우리가 만든 것 우리가 쓰자'라는 제목으로 한국인이 만든 광목(cotton fabric)을 알리는 한글 신문 광고입니다. 또한 많은 학자들이 일본의 방해와 탄압을 무릅쓰고 한글 사전, 한글 역사책들을 써서 많은 국민들이 읽고 우리 민족의 정신과 문화 유산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노력하였습니다.

한글 사전 Korean dictionary

나. 창씨개명

Koreans were Forced to Change their Names to Japanese Nam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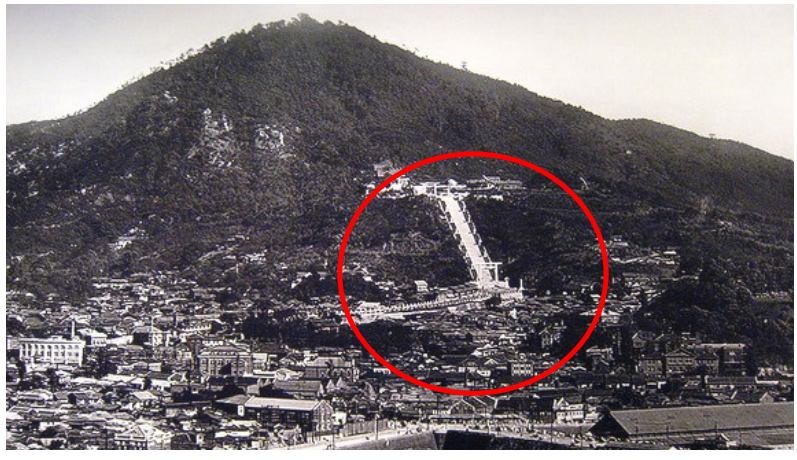
창씨개명이란 일본이 우리 민족의 정신을 없애기 위하여 우리나라 사람들의 이름을 강제로 일본식으로 바꾸게 한 일을 말합니다. 일본 정부는 창씨개명에 반대한 사람들에게 수많은 불이익을 주어 일상 생활에서 고통을 받게 하였는데 예를 들면 자녀의 학교 입학을 못하게 하고, 직장을 구하지 못하게 하거나, 전쟁터에서 일할 노동자로 우선적으로 끌고 가며 식량이나 물자 배급에서 제외하는 일 등이었는데 이외에도 수많은 다른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강제로 involuntarily
식량 food
배급 distribution

다. 신사참배

Shrine Worship

일본은 우리의 민족 정신을 없애고 일본의 천황에 충성하는 일본 사람으로 만들기 위하여 신사참배를 한국 사람들에게 강요하였습니다. 신사는 일본 천황을 신격화하고 일본 국민을 정신적으로 지배하며



서울의 남산에 신사를 세워 조선 신궁이라 부르고 (사진에서 동그라미로 표시한 곳) 모든 한국 사람들이 강제로 신사참배를 하게 하였습니다.

숭배 worship
신사 shrine
거부 refuse

군국주의(militarism)적 침략 정책과 식민지 지배에 이용된 일본의 종교인 신도의 사원입니다. 일본의 전쟁 군인들을 숭배하고 제사 지내는 신사를 한국 곳곳에 세우고 한국인들에게 강제로 참배하게 하였습니다. 또한 학교와 가정에도 소형 신사를 설치하게 하였고 신사참배를 거부한 한국인들은 잡아 가거나 온갖 방법으로 괴롭혔습니다.

라. 강제 징병과 징용 Impressments

대항 fight back
탄광 coal mines
차별대우 discrimination
후손들 descendants

1941년 12월 7일 일본은 하와이(Hawaii) 진주만(Pearl Harbor)에 있던 미국 해군 기지(US Naval Base)를 기습 폭격하여 미국에 대하여 선전 포고(Declaration of War)를 하였으며 미국은 이로써 일본군과 싸우게 되었습니다(태평양 전쟁의 시작). 그러나 막강한 미군의 군사력에 일본은 밀리게 되었고 전쟁을 일으킨 일본은 일본과 동남아시아에서 미군과 연합군(Allied Forces)에 대항할 일본군이 모자라게 되자 한국의 젊은 학생들과 청년들을 강제로 잡아다 군대로 보내 싸우게 하였습니다. 또한 일본의 탄광에서 석탄을 캐는 중노동을 시킬 사람으로 한국인들을 강제로 데려갔습니다. 이로 인하여 젊은 한국인들은 사랑하는 가족들과 생이별하여 일본과 동남아로 끌려갔으며 그곳에서 비참하게 생활하다가 영영 고향의 가족들에게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일본은 한국의 노동자들을 강제로 끌고 간 일이 없었으며 그들이 돈을 벌기 위해 스스로 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강제로 일본의 탄광에 끌려가 지하 깊은 곳에서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노예처럼 일만 한 그들을 일본인들은 전쟁이 끝난 후에도 보상은 커녕 차별 대우를 하였습니다. 억울하게 죽어간 그들의 후손들이 아직도 힘들게 일본 땅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일본 정부는 그들이 끌고 간 한인 노동자들이 이렇게 타국에서 세상을 떠났어도 그들에 대한 잘못을 인정하거나 사과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전쟁 물자가 부족해진 일본은 한국의 집집마다 놋쇠나 쇠, 구리 등으로 만들어진 그릇과 살림살이를 강제로 빼앗아 갔습니다. 또 한국인들로 하여금 산에 가서 송진(소나무의 끈적끈적한 액체)을 채취하여 기름을 짜서 전쟁 물자로 쓸 수 있도록 동원하였습니다. 일본이 강제로 우리나라를 빼앗은 이후 우리 민족은 하루도 몸과 마음이 편하게 살 수 없었습니다.

놋쇠 brass
쇠 iron
구리 copper
소나무 pine tree

마. 위안부 강제 동원

War Comfort Women by Japanese Military

일본은 태평양 전쟁에 참가한 일본군의 전쟁 노리개(War slaves; sexual slaves)로 한국의 소녀들과 여성들을 강제로 잡아서 위안부라는 이름으로 전쟁터로 데려갔습니다. 그들은 일본군에게 이루 말할 수 없는 치욕적인 성적 학대(sexual assault, molestation)를 받았으며 수많은 한국의 여성들이 전쟁터에서 억울하게 죽어갔습니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오늘날까지도 이러한 반인류적이고 반도덕적인 전쟁 범죄를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아직도 살아계신 위안부 할머니들에게 보상은 커녕 사과조차 제대로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인류 역사에서 이와 같이 다른 나라 여성들을 강제로 자신의 전쟁터로 보내 군인들의 성

전쟁 범죄 war crime

일본군에 강제로 위안부로 끌려가 비참한 생활을 하고 있는 한국의 여성들

반인류적 anti-humanitarian

노리개로 만든 범죄를 저지른 나라는 찾아보기 힘듭니다. 그 당시 위안부로 고생한 여성들은 이제 모두 나이가 많은 할머니가 되었고 대부분 돌아가시고 몇 분만이 남아서 그 당시 일본의 반인류적 전쟁 범죄에 대한 증인이 되고 있습니다.

바. 문화재 약탈과 파손

Looting and Destroying Korean Cultural Assets and Properties

파괴 destroy
문화재 cultural treasure

옛날부터 우리 조상들은 뛰어난 문화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삼국 시대(고구려, 백제, 신라의 세 왕국이 있던 시절) 백제는 문자와 도자기, 책 등 많은 문화를 일본에 전해주었습니다. 그러나 일본은 수백 년 동안 한국을 침략하여 괴롭혔고 1910년 한국을 강제로 빼앗으면서 한국인의 문화를 파괴하고 빼앗아 갔습니다. 특히 전국에 있는 수많은 문화재를 훔쳐 갔는데 일본으로 가져간 문화재가 약 10만 점(100,000) 이상이 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그 이후 극히 일부분만을 한국에 되돌려 주었습니다. 아직도 일본의 박물관과 개인들은 우리나라의 문화재를 많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일본은 또한 조선 왕조 500년간의 중심이었던 서울의 경복궁(Kyungbok Palace)을 교묘하게 파괴하였습니다. 나라의 왕이 살던 경복궁 안에 동물원을 만들고 창경궁을 창경원이라는 놀이터의 이름으로 바꾸었습니다. 궁전 건물들을 파괴하고 건물 사이로 차가 다니는 길을 내기도 하였습니다. 경복궁의 정문인 광화문을 헐고 그 자리에 조선 총독부(한국을 다스리는 일본 정부 기관) 건물을 지었습니다. 이후 조선 총독부 건물은 1945년 해방이 되고 한국 정부가 세워지면서 중앙청이라 불리게 되었고 정부 건물로 사용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1995년 한국 정부는 이 건물을 헐어버리고 그 자리에 원래 있었던 경복궁을 다시

세웠습니다. 이로써 일본 제국주의의 한국 침략의 상징이었던 조선 총독부 건물은 한국 땅에서 완전히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조선 총독부 건물

중앙청으로 사용되던 조선 총독부 건물

1995년 중앙청이 헐리고 그 자리에 경복궁이 원래의 모습으로 다시 세워졌습니다.

사. 경제적 착취

Economic Exploitation by Imperial Japan

농업 agriculture
종사 work
재산 asset
이자 interest
동상 statue
의사 righteous person

일본은 한국을 강제로 빼앗은 후 우리 민족을 경제적으로 착취하였습니다. 특히 당시 한국 산업의 중심이었던 농업에 종사하던 농민들의 재산을 빼앗아 갔는데 조선식산은행, 조선은행, 동양척식회사(사진) 등을 세워 농민들에게 높은 이자로 돈을 빌려주고 이를 갚지 못하면 논이나 밭, 산, 집 등을 빼앗아 가는 방식을 썼습니다. 농민들은 대대로 농사를 짓던 땅을 하루 아침에 빼앗기는 처지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렇게 하여 일본은 전 국토의 40%에 해당하는 한국의 산과 논, 밭을 차지하고 농민들에게 높은 소작료[1]를 거두어 농민을 가난에 빠뜨렸습니다.

이에 분개하여 1926년 12월 28일, 한국인들의 재산을 빼앗는데 앞장 섰던 조선식산은행과 동양척식회사에 나석주라는 청년이 들어가 폭탄을 던지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폭탄이 터지지 않아 일본 경찰과 총격전을 벌이다가 그는 권총으로 자결했습니다. 서울 을지로 외환은행 본점 앞에는 나석주 의사의 동상이 있습니다.

1 소작료(farm rent): 소유한 땅이 없는 농민들에게 논이나 밭을 빌려주어 작물을 기르게 하고 추수하면 일부는 농민이 갖고 일부는 땅을 빌려준 사람이나 은행에게 돈이나 추수한 작물로 갚는 돈. 일제는 아주 높은 소작료를 내는 조건으로 농민들에게 땅을 빌려주어 농민들이 노동력을 착취하였습니다.

서울 중구 명동 전 외환은행 본점 앞에 설치된 나석주 의사의 동상 (1892.2.4 ~ 1926.12.28). 일제의 경제적 착취에 저항하여 용감하게 투쟁하였고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쳤습니다.

☞ 생각해 봅시다

1. 우리의 조상들은 일본 통치 아래에서 한글을 쓰지 못하고, 일본 말만 강제로 써야 했습니다. 지금 미국에 사는 우리가 한국말을 못 쓰게 되고 한글을 못 배우고 한국 이름도 갖지 못하고, 한국 텔레비젼도 못 보게 된다면 나의 마음이 어떨까요? 어떤 점이 불편하고 힘들것인지 생각해 봅시다. 그리고 내가 생각한 내용을 다른 친구들에게 이야기 하고 또 친구들은 어떻게 생각했는지 함께 알아봅시다.

2. 일본이 우리 나라를 식민지로 만들고 어떻게 우리나라 사람들을 탄압하고 우리 고유의 역사와 민족 정신을 없애고 자원을 빼앗아 갔는지 알아봅시다.

3. 일본이 우리 나라에서 나온 천연 자원을 싼 값에 가져다가 비싼 물건으로 만들어 팔 때 우리 조상들은 어떠한 방법으로 이에 맞서 우리나라 상품을 보호하려고 했는지 알아봅시다.

(2) 항일 독립운동
Anti-Japanese Independence Movement

가. 삼일 독립 만세운동
March First Day Independence Movement in 1919

선언 declare

1910년 나라를 빼앗긴 우리 조상들은 일제 식민지 백성으로 비참한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민족 지도자들은 꾸준히 독립을 위하여 힘을 모으기 시작하였고 1919년 3월 1일 민족대표 33인은 서울 탑골 공원에서 독립을 선언하였습니다. 그들은 독립 선언문(Declaration of Independence)이라고 불리는 글을 발표하여 조선이 독립국임을 만방에 선언하였습니다. 이 선언문은 다음과 같이 시작됩니다: '우리는 여기에 우리 조선이 독립된 나라인 것과 조선 사람이 자주 국민인 것을 선언하노라. 이것으로써, 세계 모든 나라에 알려 인류가 평등하다는 큰 뜻을 밝히며, 이것으로써 자손만대에 일러 겨레가 스스로 존재하는 마땅한 권리를 영원히 누리도록 하노라.' 이 선언문의 내용은 미국의 독립 선언서 내용과도 매우 비슷합니다.

독립을 선언한 후 국민들은 태극기를 들고 거리로 뛰어나가 '대한 독립 만세'를 외치며 일본이 물러갈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독립 선언서를 발표한 서울의 탑골공원(파고다 공원)과 민족대표 33명의 사진

그리고 이 날을 시작으로 하여 전국에서 독립 만세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이것을 '삼일(3.1) 독립 만세운동'이라고 합니다. 천안에서는 유관순 열사가 중심이 되어 만세운동을 하였고 다른 모든 지역에서도 사람들은 태극기를 만들어 흔들며 일본의 부당한 한국 강탈을 규탄하고 물러날 것을 외쳤습니다. 그러나 무력으로 나라를 빼앗은 일본은 평화롭게 독립을 외치는 한국인들을 또다시 총칼로 죽이고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일본은 한국인들의 이러한 독립운동에 아랑곳 하지 않고 더욱 억압적인 정책(oppressive policy)을 폈습니다.

열사 martyr
규탄 condemn
재판장 judge

삼일 독립 만세운동(March First Day Independence Movement)의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애국자 중 한 사람은 유관순 열사입니다. 1902년에 태어난 유관순 열사는 1919년 삼일 독립 만세운동이 일어났을 때 서울의 이화여고에 다니고 있던 17세의 여학생(high school student)이었습니다. 유관순 열사는 고향인 천안에서 독립 만세운동을 주도하였고 일본군 경찰에 체포되어 감옥에 끌려가 그곳에서 가혹한 고문과 학대로 인하여 1920년 감옥에서 숨을 거두었습니다.

유관순(柳寬順, 류관순, 1902년 12월 16일 ~ 1920년 9월 28일)은 일제 강점기의 독립운동가입니다. 일제 강점기에 3.1운동으로부터 시작된 만세운동을 천안에서 주도하다가 체포되어 서대문형무소에서 순국하였습니다.

유관순 열사는 일본군의 재판장에게 "자기 나라를 찾으려고 정당한 일을 하였는데 왜 무기를 사용하여 내 나라 민족을 죽이느냐? 왜 자기 나라의 독립을 위해 만세를 부르는 것이 죄가 되느냐?"고 말하였습니다. 그는 일본군 판사에게 "나는 대한의 백성으로 마땅히 할 일을 했을 뿐이다. 나는 우리나라를 빼앗은 도둑을 몰아내려고 했을 뿐이다. 당신들이 남의 나라를 빼앗았는데 도둑이 아니고 무엇이란 말인가!"라고 항의하였고 그 결과 모진 고문과 형벌을 받았습니다. 빼앗긴 나라를 찾기 위해서 이처럼 남녀 노소를 가리지 않고 모든 한국인들이 일본에 대항하여 독립투쟁을 벌였습니다. 그러나 일본은 강력한 경찰과 군사력을 동원하여 독립운동을 탄압하였으며 수많은 애국자들

이 일본군과 경찰에 의하여 목숨을 잃었습니다. 매년 3월 1일은 1919년의 삼일 독립운동을 기념하는 날로서 삼일절이라고 합니다.

삼일절을 맞아 미국 메릴랜드의 성김안드레아 한국학교 학생들이 대한 독립 만세를 힘차게 부르는 모습입니다. (2014년 3월, 성 김안드레아 한국학교 교정 앞)

나. 상해 임시 정부 수립과 독립투쟁

Provisional Government of Korea in Shanghai and a Fight for Independence

애국자 patriots

일본은 나라를 다시 찾으려는 한국인들의 독립운동을 총칼로 억눌렀으며, 이에 많은 애국자들이 중국과 만주로 떠나가 독립운동을 하였습니다. 일제의 감시와 탄압을 피해 중국으로 건너간 애국 지사들은 한국의 독립을 위해 세계의 다른 나라들이 한국의 독립을 위해 협조해 주도록 노력하였고 1919년 9월 11일 중국 상하이(Shanghai)에 대한민국 임시 정부[2]를 세우고 일본에 저항하는 힘을 모으기 시작하였습니다. 이들의 독립운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의 국민들과 미국에 있는 한인 동포들이 힘들게 모은 돈을 대한민국 임시 정부에 보냈습니다.

상해 임시 정부가 있던 건물
(1919년)

뒷줄 왼쪽부터 김철, 운현진, 최창식, 이춘숙, 신익희, 안창호(내무총장), 현순
(대한민국 임시정부 국무원들)
(1919년 10월 11일)

당시 공식 문서에 사용하던 국쇄(Seal of the Provisional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당시 사용하던 태극기

2 Provisional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in Shanghai, China

또한 대한민국 임시 정부에서는 한국과 해외에서 일어나는 독립운동(Resistance Movement)을 격려하고 지원하였습니다. 현재 중국 상하이에는 당시의 대한민국 임시 정부 건물이 보존되어 있으며 많은 한국 사람들이 방문하여 나라를 빼앗긴 시대에 독립을 위하여 애쓴 조상들에게 감사를 표시하고 있습니다. 앞 페이지의 사진은 상하이에 있는 대한민국 임시 정부가 있던 건물과 당시 이곳에서 일하던 애국 지사들의 모습, 태극기, 국쇄 등입니다.

다. 독립운동가 Korean Patriots

숭고한 투쟁 heroic fight

우리의 조상들은 일본에 빼앗긴 나라를 되찾기 위하여 소중한 목숨을 바치기를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많은 독립운동가들이 일본 제국주의의 침략 정책을 지휘하는 일본의 지도자들을 처단하기 위하여 숭고한 투쟁을 하였습니다. 수많은 독립운동가들이 나라를 위하여 싸웠는데 그 중 다음 네 명의 독립지사들에 대하여 알아봅시다.

<u>안중근 의사(義士) (1879-1910)</u>

처단 assassinate
지휘 lead
체포 arrest
감옥 prison
집필 write
자서전 autobiography
혼 soul

안중근 의사는 1910년 만주의 하얼빈 역에서 일본의 한국 통감 이토 히로부미를 처단하였습니다. 이토 히로부미는 일본 제국주의의 침략 정책을 대표하는 인물이었으며 한국을 강제로 빼앗은 후 억압 통치를 지휘한 사람이었습니다. 안중근 의사의 저격은 나라의 독립을 위하여 목숨도 아끼지 않고 투쟁하는 한민족의 정의감과 위대한 투쟁 정신을 보여준 것으로 국내외의 한국인들에게 독립운동의 의지를 일깨웠으며 일본의 침략주의에 대한 무력 항거였습니다. 안중근 의사는 저격 후 체포되어 중국의 여순 감옥에 가두어졌고 1910년 3월 26일 사형이 집행되었습니다. 안중근 의사는 감옥에서 <동양평화론>이라는 책을 집필하였고 자서전을 쓰기도 하였읍니다. 안중근 의사는 감옥 속에서도 민족의 혼을 일깨우는 시와 붓글씨를 써서 남겼습니다. 그가 쓴 글 중 “나는 하루만 책을 읽지 않아도

입안에 가시가 돋는다."라고 하여 한국 사람들이 열심히 공부하여 다른 나라 사람들을 따라갈 수 있어야 한다고 용기를 북돋아 주었습니다.

하얼빈 역에서 이토오 히로부미를 저격하고 체포되는 안중근 의사

강우규 의사(義士) (1855-1920)

평범한 65세의 노인이었던 강우규 의사는 1919년 9월 2일 신임 조선 총독 사이토 마코토에게 서울역(당시 남대문역)에서 폭탄을 던졌으나 빗나가서 실패하고 체포되어 1920년 교수형을 당했습니다. 강우규 의사는 일본에 빼앗긴 나라를 되찾기 위해서는 나이에 관계없이 투쟁할 수 있다는 정신을 젊은 사람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지금의 서울역 앞에는 강우규 의사가 수류탄을 들고 서 있는 동상이 있습니다.

역 station
수류탄 grenade

한국의 수도 서울의 서울역 앞에 있는 강우규 의사 동상

양자 adopted son
일왕 Japanese King
체포 arrest
투쟁 fight

이봉창 의사(義士) (1900-1932)

이봉창 의사는 1925년 일본으로 가서 일본인의 양자가 되어 일본에서 살았으나 1931년 상하이로 가서 김구 선생을 만나고 한국의 독립을 위해 자신의 몸을 바치기로 약속하였습니다. 1932년 1월 8일 일본 도쿄 교외에서 관병식을 마치고 돌아가던 일왕 히로히토를 향해 수류탄을 던졌으나 실패하였고 체포되어 교수형으로 사망하였습니다. 이봉창 의사의 의거는 비록 성공하지 못하였으나 자신의 목숨을 바쳐 잃어버린 나라를 찾기 위한 투쟁의 정신을 보여줌으로써 민족의 독립운동 의지를 더욱 일깨워 주었습니다.

생일잔치 birthday party
물통 water bottle

윤봉길 의사(義士) (1908-1932)

24살의 젊은 청년이었던 윤봉길 의사는 1932년 4월 29일 중국 상하이의 홍커우 공원에서 열린 일본 왕의 생일잔치에서 물통에 폭탄을 넣고 일본군 총사령관 시라카와 요시노리를 향해서 던졌습니다. 중국 정부는 상해 임시 정부의 주도로 일으킨 윤봉길 의사의 의거 이후 한민족의 투쟁 정신에 경의를 표하였습니다.

독립투쟁을 위하여 결의를 다지고 있는 윤봉길 의사와 체포되어 처형당하기 직전의 윤봉길 의사의 모습

라. 독일과 일본 Germany vs. Japan

히틀러(Hitler)가 이끄는 독일의 나치 정부(German Nazi government)는 제 2차 세계 대전을 일으켰고 수백만 명의 유대인(Jews)들을 학살하였으며 일본은 태평양 전쟁을 일으켜 이웃 나라들을 침략하고 괴롭혔습니다. 그러나 전쟁이 끝나고 독일과 일본은 매우 다른 길을 걸었습니다.

전쟁이 끝나자 독일은 과거 나치 정부의 잘못을 인정하고 다시는 그러한 잘못을 저지르지 않기 위하여 국가적으로 반성하고 이웃 나라들에게 사죄하였습니다. 독일은 '과거에 눈을 감는 자는 현재에도 장님이 된다.'고 하여 전쟁이 끝나고 태어난 세대에게 철저하게 역사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독일의 베를린에는 2차 세계 대전 당시 유대인들을 학살한 역사적 사실을 증거하는 기념관(Holocaust Museum)을 여러 곳에 세우고 독일 국민들이 언제나 과거의 국가적 잘못을 기억하며 이웃 나라들과 평화롭게 지낼 것을 다짐하고 있습니다. 또한 독일의 지도자들은 항상 과거의 잘못을 꾸준하게 반성하고 사죄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독일은 이제 유럽을 이끌어가는 국가의 하나로서 이웃 나라들과 전 세계 다른 나라들로 부터 훌륭한 나라로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한국과 중국, 동남아 아시아 국가들에게 수십 년간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을 안겨준 일본은 독일과는 다른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일본이 한국을 강제로 빼앗고 한국과 중국, 동남아 국가들을 침략하여 죽인 사람들은 수백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사죄 apologize
궤변 sophistry

독일의 베를린에 있는 유대인 학살 추모 기념관(Memorial to the Murdered Jews of Europe)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일본의 정치 지도자들은 과거의 제국주의적 침략 행위를 기회가 있을 때마다 정당화하려고 하며 심지어 한국을 강제로 빼앗은 것을 한국의 발전을 위해서 한 것이며 한국의 여성을 일본군의 성적 노예로, 한국의 젊은이들을 강제로 일본 군대나 탄광 등으로 끌고 가서 죽을 때까지 고생하게 한 범죄에 대하여 그들이 자발적으로 간 것이라고 억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1945년 8월 태평양 전쟁이 끝난 후 일본은 과거의 국가적 잘못에 대하여 마지못해 몇 번 무성의하게 사죄는 하였으나 진실성이 부족하였습니다. 일본은 36년간 한국을 강제로 점령하여 수천만 국민에게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과 탄압을 가했습니다. 또한 한국을 강제로 빼앗았기 때문에 1945년 부터 지금까지 남한과 북한으로 갈라져서 고통받게 한 근본적인 원인을 제공하였습니다. 게다가 태평양 전쟁을 일으킨 전쟁 범죄자들을 일본의 국가 지도자들이 공공연하게 참배하여 한국과 중국 등 이웃 나라들을 모욕하고 분개시키고 있습니다.

전쟁 범죄자 war criminal
참배 worship
모욕 insult

☞ 생각해 봅시다

1. 1919년 3월 1일에 일본의 탄압에도 불구하고 온 나라가 참여해서 대한 독립 만세를 외쳤습니다. 우리의 조상들이 그렇게 위험하고 잡혀서 감옥에도 갈 수 있는 상황에서도 대한 독립 만세를 크게 외쳤던 이유를 생각해 봅시다. 생각한 내용을 옆의 친구와 나눠 보세요.
2. 일본에 저항하여 투쟁한 애국자들에 대하여 자료를 더 찾아 보고 공부하여 다른 친구들 앞에서 발표하고 무엇을 느꼈는지 서로 이야기 해 봅시다.
3. 일본 정부는 아직도 한국에 대하여 진심으로 과거의 잘못에 대하여 사죄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본에 대하여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 있을까요?
4. 독일과 일본은 둘 다 전쟁을 일으킨 역사적으로 큰 잘못을 저지른 나라들 입니다. 제 2차 세계 대전과 태평양 전쟁이 끝난후 전쟁 후에 두 나라가 전쟁의 피해를 입은 이웃 나라들에 대해 어떻게 잘못을 인정하고 보상을 했는지 비교해 보고 독일과 일본 두 나라의 후손들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생각해 봅시다.

(3) 한국의 해방과 6.25 전쟁
Liberation of Korea and the Korean War

1945년 8월 미국은 태평양 전쟁을 하루 빨리 끝내기 위하여 일본의 히로시마(Hiroshima)와 나카사키(Nagasaki)에 원자 폭탄을 투하하였고 1945년 8월 15일 일본 천왕은 무조건 항복(unconditional surrender)을 선언하였습니다. 1910년부터 일본의 강점으로 고통받던 한국은 드디어 일본으로부터 해방되었고 나라를 되찾게 되었습니다. 우리 나라는 8월 15일을 어둠이 가고 다시 빛을 되찾은 날이라 하여 광복절이라고 부르며 기념하고 있습니다.

원자폭탄 nuclear bomb

그러나 희망에 찬 새로운 우리 나라를 기다려온 우리 민족의 뜻과는 다르게 해방 후 우리 나라의 운명은 다른 나라들에 의하여 바뀌게 되었습니다. 한국에 있던 일본군의 무장을 해제한다는 이유로 북위 38 도선을 경계로 남쪽에는 미군이, 북쪽에는 소련군이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소련(Soviet Union, 지금의 러시아)은 오래 전부터 한반도를 지배하여 태평양으로 진출하기 위한 기지로 사용하려는 야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태평양으로 진출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나라 동해와 남해를 지나가야 하기 때문이었습니다. 소련은 태평양 전쟁이 끝날 무렵에 미국이 이끄는 연합군에 끼어들었고 1945년 2차 세계 대전이 끝나자 그러한 욕심을 실천에 옮겼습니다.

또한 나라 안에서는 정치적으로 많은 혼란이 있었습니다. 서구의 민주주의를 따라 정부를 세우려는 사람들과 소련의 공산주의를 따라 정부를 세우려는 사람들이 대립하였습니다. 남쪽과 북쪽으로 갈라진 나라를 하나로 만드려는 노력은 실패하였고 결국 1948년 8월 15일 한반도의 남쪽에는 자유 민주주의를 따르는 대한민국 정부가 세워졌고 9월 9일 북한에는 공산주의 정부(communist government)인 조선 인민 민주주의 공화국이 세워져 한국은 남과 북으로 갈라지게 되었습니다. 그 후 2015년 현재도 남

대립 confrontation
분단 separation
비극 tragedy

한과 북한으로 나뉘어 대립하고 있는 분단의 비극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가. 남한과 북한의 대립
Confrontation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1948년 남한(South Korea)은 서울을 수도로 하여 민주주의 이념을 따르는 민주 정부(democratic government)가 세워졌고 북한(North Korea)에는 평양을 수도로 하여 소련 스탈린의 공산주의 이념을 따르는 공산정부(communist government)가 세워졌습니다. 그러나 북한의 독재자(dictator) 김일성은 소련의 도움을 받아 무력으로 남한을 공격하여 공산주의가 지배하는 통일을 이루려는 계획을 세웠고 1950년 6월 25일, 아무런 준비가 없던 남한을 침략하였습니다. 북한의 공산주의자들은 그들의 이념인 공산주의를 따라 우리나라를 지배하기 위하여 같은 민족들을 총과 대포, 칼로 죽이는 전쟁을 서슴없이 일으킨 것입니다. 지금도 북한은 남한을 어떻게 해서든지 그들의 공산주의 이념으로 지배하겠다는 생각을 버리지 않고 있어 우리 민족의 갈등은 끝없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1953년 7월 휴전이 될 때까지 3년간 우리나라는 전쟁으로 이루 말할 수 없는 피해와 고통을 받았습니다. 이 전쟁으로 죽거나 다친 사람이 수백만 명이나 됩니다. 이 전쟁을 6.25 전쟁 또는 6.25 사변이라고 부릅니다.

북한에 의한 침략 전쟁이 일어나자 UN(The United Nation)은 북한에게 물러나라고 요구했으나 침략자 김일성은 들은 척도 하지 않고 막강한 군사력으로 남한을 거의 다 빼앗기 직전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에 미국과 다른 나라의 연합군 등 16개국이 남한을 돕기 위하여 참전하였고 그 결과 북한군을 몰아내고 북쪽 중국과의 경계선인 압록강까지 진격하여 남북으로 갈린 나라가 통일이 되는 듯 하였습니다. 그러나 1951년 1월 수십만의 중공군

경계선 border line

(중국 군대)이 압록강을 넘어 침공해옴으로써 미군과 연합군은 남쪽으로 후퇴하게 되었고 결국 1953년 7월, 남한과 북한은 휴전하기로 합의하게 되었습니다. 이 전쟁으로 인하여 죽은 미국 군인들이 수만 명에 달하며 이를 기리기 위하여 워싱턴 DC에 한국전 참전 기념관(Korean War Memorial)이 설치되었습니다.

이념 ideology
협박 threat
족벌 체제 clan system
폭격 air strike

같은 한국 사람들끼리 이념이 달라 3년간 싸운 이 전쟁은 참혹하고 비참한 전쟁이었습니다. 이 전쟁으로 인하여 한국은 수백만명의 사람들이 죽고 다쳤으며 국가의 모든 시설들은 파괴되었습니다. 휴전이 된 이후 지금도 남한과 북한은 비무장지대(Demilitarized Zone, DMZ)를 사이에 두고 군사적으로 대치하고 있으며 공산국가인 북한은 아직도 무력으로 남한을 통일하여 공산주의 국가로 만드려는 야욕을 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6.25 전쟁이 끝난 후 남한은 정치적으로 많은 혼란을 겪었습니다. 한국인들은 독립국가가 된 후 처음으로 겪는 민주주의 제도를 실천하는데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정치적, 사회적으로 혼란이 계속되었으나 차츰 안정을 되찾게 된 우리나라는 경제 발전이 가장 중요한 일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많은 정책을 세워 실천하였습니다.

1960년대의 우리 나라는 세계에서 못 사는 나라 중의 하나였지만 잘 사는 나라를 만들기 위하여 국민들이 열심히 일한 결과 지금의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경제적으로 잘 사는 자유주의 민주국가들 중 하나가 되었으며, 이제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다른 나라를 도와주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북한은 공산주의 이념에 사로잡혀 세계의 국가들과는 동떨어진 외톨이 국가가 되었고 오직 남한을 무력에 의해 공산주의화 하기 위한 목표만을 달성하기 위해 군사력을 기르는데 온갖 힘을 다 쓰고 있고 지금도 남한을 협박하며 평화적인 남북통일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백성들은 아직도 경제적으로 너무나 어려운 생활을 하

6.25 전쟁으로 폐허가 된 서울; 서울의 한강 다리가 폭격으로 파괴되어 사람들이 부서진 다리를 건너 남쪽으로 피난하고 있습니다; 어린 동생을 업고 전쟁터를 헤매는 어린이; 38 선은 남한과 북한을 갈라놓은 군사 분계선이었습니다.

고 있으며 인간적인 대우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일성이 죽자 그 아들 김정일이 북한을 통치하였고 그가 죽자 그의 아들 김정은이 또 나라를 물려받아 통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치 체제를 족벌 체제라고 부릅니다. 지금 세계에서 공산주의를 떠받들고 국민들의 자유를 억압하며 대대로 한 집안 사람들이 대를 이어 독재정치를 하고 있는 나라는 북한 밖에 없습니다.

남한과 북한 사이를 갈라 놓은 비무장 지대(DMZ)의 철조망. 언젠가 이 철조망이 없어지고 자유롭게 다닐 수 있는 날이 올 수 있도록 모두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 생각해 봅시다

1. 워싱턴에 있는 한국전 참전 기념관을 방문해보고 기념관에 대하여 더 자세히 알아봅시다.
2. 미국은 왜 1950년 6월 25일 북한이 남한을 침략했을때 군대를 보내어 한국을 도왔는지 생각해 봅시다.
3. 남한과 북한으로 나뉘어 아직도 대립하고 있는 한국이 평화적으로 통일이 되어 민주주의 국가로 더욱 발전하기 위해서 내가 앞으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을지 생각해보고 다른 친구들과 이야기 해 봅시다.

숨은 단어 찾기

신사참배, 창씨개명, 손기정, 강제징용, 위안부, 유관순, 상해 임시 정부, 안중근, 윤봉길, 이봉창, 강우규, 태평양 전쟁, 나석주, 식민지, 제국신문, 문화재, 경복궁, 광화문, 태극기, 독일, 원자탄, 조선

신	윤	복	순	이	윤	준	이	봉	창
참	사	랑	천	조	봉	선	달	씨	상
유	랑	참	손	문	길	조	개	해	탑
관	방	기	배	화	가	명	임	문	골
순	정	위	꼽	재	족	시	독	화	공
나	부	안	중	근	정	지	일	광	원
운	석	부	익	부	민	용	징	제	강
규	불	주	먹	식	사	해	라	우	리
기	극	태	평	양	전	쟁	규	산	유
경	복	궁	원	자	탄	문	신	국	제

3

미국 내 한인 이민자들의 미국 사회 진출과 독립운동

Koreans in the U.S.: 1910 ~ 1945

(1) 조선 외교 사절단의 미국 본토 최초 방문
The First Visit of Korean Delegates to the U.S.

(2) 미국 본토 초기 이민
The Early Days of Korean Immigrants in the Continental U.S.

(3) 일제 강점기 미주 한인의 활약
Activities of Korean-Americans During the Japanese Occupation Period

필라델피아에서 서재필, 이승만 등이 중심이 돼 개최한 '제 1차 한인회의(1919. 4.14~16)' 사진이 하와이 한국 독립문화원에 진열돼 있습니다.

3. 미국 내 한인 이민자들의 미국 사회 진출과 독립운동
Koreans in the U.S.: 1910 ~ 1945

이 장에서는 1910년 8월 29일 일본에 우리나라를 빼앗긴 후 1945년 8월 15일 해방될 때 까지 나라를 잃은 조국을 위하여 미국에 있는 한국인들이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조국의 독립을 위하여 어떻게 도우려고 노력했는가를 알아봅니다. 한국인이라는 긍지를 잃지 않고 미국 주류 사회에 진출하여 얻어낸 정치적 영향과 재정적 도움을 준 한인들에 대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조선 외교 사절단의 미국 본토 최초 방문
The First Visit of Korean Delegates to the U.S.

1882년 조선과 미국이 서로 무역을 하기로 두 나라가 조약을 맺은 후 고종황제는 미국 정부의 초청에 의하여 외교 사절단을 미국에 보내게 되었습니다. 1883년 9월, 고종황제에 의하여 홍영식과 민영익이 이끄는 11명으로 구성된 보빙사[1](초청에 응하여 방문하는 사절단 이라는 뜻)가 처음으로 미국을 방문하게 되었는데 그들이 도착한 곳은 샌프란시스코(San Francisco)였습니다. 이들은 미국 정부에 조선의 공식 외교 문서를 전달하고 미국의 생활상을 둘러보았는데 미국의 세관, 우체국 시스템, 공공 교육제도, 군부대 등 발전된 서구 문물을 처음으로 볼 수 있었습니다.

미국 정부는 보빙사 일행을 환영하였고 미국의 신문들은 '조용한 아침의 나라(The Land of the Morning Calm)' 조선에서 최초로 외교사절이 미국을 방문한 사실을 크게 보도했습니다.

무역 trade
조약 treaty
공식 외교 문서 the official diplomatic documents
세관 customs
우체국 시스템 mail system
공공 교육제도 public education system
군 부대 military base
외교 diplomacy
방문 visit

1 Source: http://article.joins.com/news/article/article.asp?total_id=3609789

보빙사 일행은 워싱턴을 방문하여 미국 정부와 공식적으로 처음 만나게 되었습니다. 보빙사 사절단의 워싱턴 방문은 조선도 서양 국가를 상대로 독자적인 외교를 펼칠 수 있는 독립국임을 전 세계에 알린 뜻 깊은 행사였습니다. 그러나 중국은 조선이 혼자 힘으로 미국과 같은 큰 나라와 외교관계를 갖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고 조선 정부에 간섭하여 조선이 미국에 거주하는 외교관을 파견하기까지는 그로부터 4년의 시간이 더 필요했습니다. 중국은 오랫동안 그들과 밀접한 관계를 가져온 조선이 자신들의 영향력에서 벗어나려는 것을 원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보빙사의 미국 방문으로 한국과 미국은 외교관계를 수립하였으니 한국과 미국의 관계는 130년 이상이 된 것입니다.

보빙사 일행. (앞줄 왼쪽부터) 로웰(통역관), 홍영식, 민영익, 서광범. 뒷줄 맨 오른쪽이 나중에 한국인 최초로 미국대학을 졸업한 변수입니다.

보빙사 일행이 1883년 9월 2일부터 7일까지 머무른 워싱턴의 팰리스호텔. 1906년 대지진과 화재로 불타서 없어졌지만, 1909년 그 자리에 본 모습을 살려 재건되었습니다.

대지진 strong earthquake
예의 courtesy

보빙사 일행이 미국을 방문하여 미국 정부 관리들에게 한국식으로 인사하는 모습이 그림으로 신문에 소개 되었습니다(1883년). 미국인들은 이러한 한국 고유의 인사법을 본 적이 없어서 당황하기도 했지만 정중한 예의를 갖추는 모습에서 좋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 **생각해 봅시다**

1. 내가 보빙사의 일행으로 미국을 처음 방문했다면 가고 싶은 곳이 어디였으며 무엇을 배워서 조선에 돌아가 가르쳐 주고 싶었을까 생각해 봅시다.
2. 내가 보빙사의 일행으로 미국을 방문한 사람이었다면 미국을 보고 어떠한 느낌을 받았을까요.
3. 내가 보빙사의 한 사람이었다고 생각하고 보빙사에서 보고 배운 것을 조선에 돌아가서 고종황제에게 보고하는 보고서(Report)를 만들어 봅시다.

(2) 미국 본토 초기 이민
The Early Days of Korean Immigrants in the Continental U.S.

건설 construction
부두 harbor
정원사 gardener
잡화상 retailer
양복점 tailor

1883년 조선의 보빙사 사절이 미국을 방문하고 조선과 미국은 비교적 활발하게 교류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1904년 하와이 이민이 시작된 이후 한국인들의 미국 이민이 활발해져 1907년까지, 약 1,000명의 한국인이 미국으로 이주하게 되었습니다. 하와이로 이민 갔다가 본토로 이주한 한인들과 새로 미국으로 온 한인들이 대부분 건설경기가 활발하여 일자리가 많은 샌프란시스코에 도착하여 정착 하였습니다.

도시로 진출한 한인들은 부두, 노동, 정원사 등 단순 노동에서 시작하여 점차 잡화상, 양복점, 자동차업, 가구점, 구둣방, 여관, 약방 등 기술과 자본이 필요한 영역으로 점점 다양하게 넓혀 나갔고 이들은 점차로 샌프란시스코나 로스앤젤레스(Los Angeles)를 통해 캘리포니아(California)주, 오리건(Oregon)주, 워싱턴(Washington)주, 몬태나(Montana)주, 애리조나(Arizona)주, 유타(Utah)

주 등으로 이주해 나갔습니다. 그들은 시골에서는 농장을 경영하거나 철도 등에서 일을 했고 도시에서는 수위, 집 관리, 식당 등에서 일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들은 모두 열심히 성실하게 일하여 빠른 시간 내에 경제적으로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이민자들의 자녀들이 대학에 진학하고 미국 사회에 진출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수위 janitor
집 관리 housekeeping

샌프란시스코는 초기 한인들에게 '마음의 고향' 역할을 하여 이곳에 도착한 후 각 지방에 일자리를 찾아가는 정거장(station) 역할을 했습니다.

☞ 생각해 봅시다

1. 미국 본토에 초기에 이민한 우리의 조상들의 모습과 한국에서 이민해 온 우리 부모님 또는 친척에게서 같은 점을 찾아 보고 어떻게 이들이 미국에서 빨리 정착할 수 있게 되었는지 알아봅시다.
2. 한국에서 이민해 온 부모님은 한국에서 어떤 일을 하셨고 지금 미국에서 하시는 일과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 여쭈어 봅시다.

(3) 일제 강점기 미주 한인의 활약
Activities of Korean-Americans During the Japanese Occupation Period

미주지역 독립운동의 시작은 장인환, 전명운 의사가 샌프란시스코에서 일본의 외교고문인 친일파 미국인 더럼 스티븐즈(Durham W. Stevens)를 저격하면서 본격화되었습니다. 그 후 3.1 독립 만세운동을 전후해서 더욱 높아진 독립운동의 의지는 조국이 광복의 기쁨을 맛볼 때까지 외교활동, 독립자금 지원, 군사활동 계획준비 등으로 각 지역에서 불타올랐습니다.

가. 카이로 회담에서 한국의 독립을 논의함
Discussion on Independence of Korea in the Cairo Conference

회담 meeting/talk

제 2차 세계 대전(World War II)이 한창이던 1943년 11월 27일 미국, 영국, 중국의 3개국 지도자인 루스벨트(Roosevelt) 대통령(미국), 처칠(Churchill) 수상(영국), 장제스 총통(중국)이 이집트의 수도 카이로(Cairo)에 모여 5일간 회담하였다. 이 회담에서는 일본이 제 1차 세계대전(World War I) 후 다른 나라로부터 빼앗은 영토를 되

카이로 회담에 참석한 3개국의 지도자들: 장제스 총통(중국), 루스벨트 대통령(미국), 처칠 수상(영국)

돌려 줄 것을 요구하는 내용이 결의되었습니다. 특히 전쟁이 끝나고 한국이 일본으로부터 해방되면 한국을 자유독립국가로 승인하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미국에 거주하는 한인 지식인들의 선전과 외교활동 등의 노력으로 카이로 선언을 통해 세계 각국의 식민지 나라 중 처음으로 독립을 약속받는 결과를 만들어 냈습니다.

승인 approval
식민지 colony

그 당시 수많은 식민지 국가들 중에서 유독 한국의 독립만을 국제적으로 약속한 카이로 선언은 우리 민족에게 커다란 희망을 주었습니다. 1940년대에는 일본이 한국을 강제로 빼앗은 후 30년이라는 긴 세월이 지난 후여서 한국 국내에서의 독립운동은 매우 약해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미국과 중국 등 해외에서는 한인들에 의한 독립운동과 독립후의 독립국가 건설에 대한 계획 등이 오히려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나. 미국내 한인들의 독립운동 참여
Korean-Americans' Participation in the Independence Movement for Kore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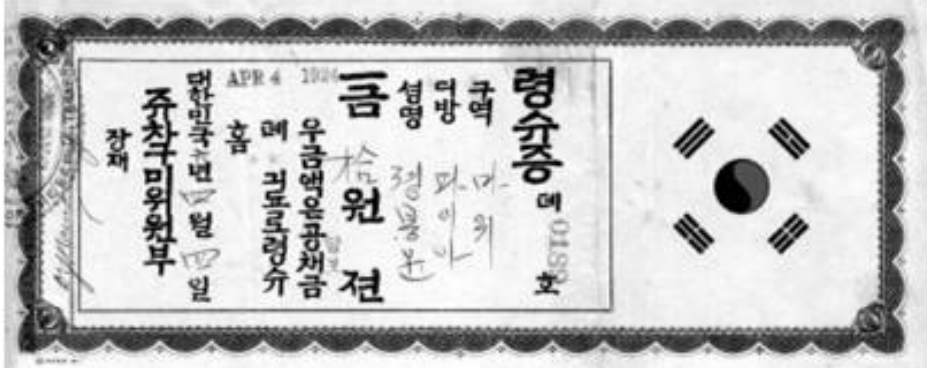
미국의 초기 한인 이민자들의 애국 독립운동은 나라를 빼앗긴 후 4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하와이 노동이민자들에 의하여 미주 한인사회가 처음으로 만들어 진 뒤 미주 본토의 동포사회와 하나가 되어 안창호, 이승만, 박용만, 서재필 등 민족 지도자들을 재정적으로 지원 하였습니다. 미국 이민자들은 세계 정세의 흐름을 파악할 수 있었고 일본이 망하여 반드시 한국이 해방될 것이라고 믿었으며 그들이 모국의 독립을 위하여 희생하고 지원해야 한다는 생각을 하였고 이를 행동으로 실천에 옮긴 것이었습니다.

미국의 한인 이민자들은 외교활동을 통해서 조선의 독립을 위하여 활동하였고 또한 미국에 살고 있는 이민자들이 돈을 모아 40여년간 미국과 해외(주로 중국)에서의 독립

재정적인 지원 financial support
경비 expenses
후원금 donations
모금 fundraising

운동을 지원하였습니다. 상해 임시정부의 수립초기부터 시작하여 임시정부를 지키고 그 활동을 위해 지원된 막대한 독립운동자금과 미국 내 각종 선전 외교활동을 위하여 미주한인들은 열심히 재정모금활동(fundraising)을 했습니다. 미국에 사는 한인 이민자들이 피땀흘려 일한 돈으로 마련한 재정적인 지원은 상해 임시정부를 중심으로 한 독립운동에 정말 큰 도움을 줄 수가 있었습니다. 특히 3·1 독립선언 후 미국에 사는 한인 동포들은 힘들게 살아가면서도 각자가 벌어들인 수입의 5%를 독립운동 자금으로 내었고 이밖에 여러가지 명목으로 서로 앞다투어 돈을 내었습니다. 이 기금은 미국 국내는 물론 중국 등 외국에서의 외교 활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 유지와 군사운동의 경비를 지원하는데 보내졌는데, 3.1 운동 때부터 해방 때까지 약 3백만 달러가 모금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또한 미국의 한인 여성들도 1919년 3.1 운동이 전해진 후 하와이와 본토에서의 독립운동 지원에 나섰습니다. 이 때 하와이에서는 '부인구제회'가, LA에서는 '대한 여자애국단'이 만들어졌고, 한인 부인들은 매주 화요일과 금요일을 고기먹지 않는 날, 일본인들이 만들어 파는 간장을 먹지 않는 날로 정하고 근검 절약하여 독립운동 후원금을 냈습니다. 하와이 대한부인구제회가 애국사업에 바친 후원금이 20만 달러를 넘었습니다.



구미위원회에서 발행한 공채금 영수증 – 하와이 마우이(Maui)에 사는 정봉윤이라는 동포가 당시 10원어치 공채(bond)를 구입하고 받은 영수증으로 이 돈은 독립운동 자금으로 사용되었습니다.

다. 군사적인 지원 Military Support

장교훈련 officer training
비행사 pilot
공군 air force
첩보 훈련 spy training

미국의 한인 동포들은 독립운동 자금을 모으기만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미국에서 다양한 군사활동도 하였는데 그 목적은 독립군으로 하여금 직접 일본군과 싸울 수 있도록 준비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초기 이민 사회에서는 한국에서 군인으로 있다가 온 이들이 5백명 정도가 되어서 곳곳에서 군사훈련을 했습니다. 또한 멕시코에서 장교훈련을 받은 한인들이 118명이나 되었습니다. 그리고 중국 상해의 대한민국 임시정부 군무총장(Secretary of Defense) 노백린이 미국에 체류하는 동안 LA 북쪽 윌로라는 곳에서 6개월간 한인 비행사 양성학교를 설립, 젊은 이들을 훈련시켰는데 이는 독립군 공군을 키워서 일본을 공격하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제 2차 세계 대전 때에 한인들은 첩보 훈련을 위해 미전략사무국에 가입했고, 직접 군인으로 나가서 싸우기도 했습니다. 이는 당시 일제 치하에 있던 한국이나 중국에서 독립운동을 하던 애국지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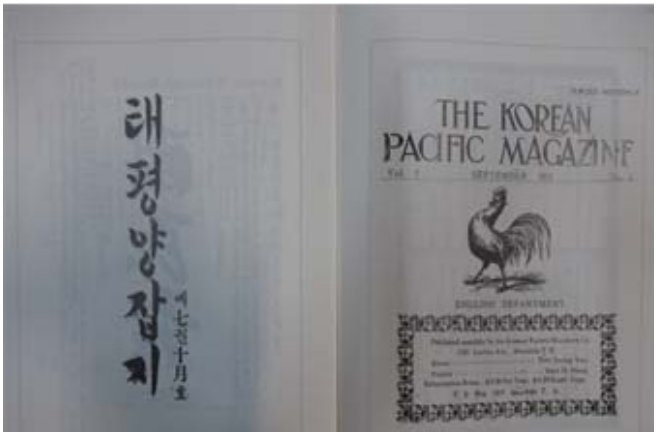
독립운동을 위하여 훈련 중인 한인비행학교의 훈련생들(출처=국가보훈처)

들도 생각하지도 못한 용감한 계획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준비가 실제로 활동하기 이전에 일본이 항복하여 한국은 일본으로부터 해방되었습니다. 비록 활동은 하지 못하였지만 미국의 한인 이민자들이 군사적인 활동을 계획했다는 것은 그 자체로 의미가 매우 큰 것이었습니다.

또한 교회도 한인 독립운동의 한 역할을 맡았습니다. 교회는 새로 이민오는 사람들이 미국에 정착하는데 도움을 주었고 한인들이 모일 수 있는 장소가 되었습니다. 그 결과 한인 지도자 중에 기독교인이 많았는데 그들은 교회를 독립운동의 근거지로 삼았습니다. 미주의 초기 교회는 직접적으로 독립운동을 했다기 보다는 독립지사를 돕는 일, 단체를 지원하는 일, 모금하는 일 등을 맡았습니다.

라. 활발한 언론 활동 Media Activities of Koreans

한인 이민자들은 각종 언론 활동에도 참여하여 <합성협회보>, <신한국보>, <국민보, 대동공보>, <태평양잡지(The Korean Pacific Magazine)> 등 잡지들을 만들어 이민자들이 서로 정보를 나누고 또한 항일 독립 운동을 지원하는데 큰 도움을 주었습니다.



미주 한인들이 발간한 잡지와 한국어 신문

마. 장인환 의사와 전명운 의사 Two Korean Patriots

미국 내에서 반한(Anti-Korea), 친일(Pro-Japanese) 인사들에 대하여 용감하게 투쟁한 두사람의 독립운동가(장인환, 전명운 의사)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스티븐스는 대한제국에 외교 고문으로 오게된 뒤 일본의 대한제국 지배에 적극 협력한 인물이었습니다. 1908년 미국 정부의 협력을 얻기 위해 샌프란시스코에 도착한 그는 미국 언론에 일제의 한국지배를 옳다고 하고 정당화하는 망언을 하여 미주한인들을 분개시켰습니다.

고문 adviser
망언 absurd statement
분개 resentment
규탄 condemn
거절 refuse

그 당시 샌프란시스코에는 한인공립협회 등 단체가 있었고 한인이 많이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한인들은 합동으로 대책모임을 갖고 스티븐즈의 망언을 규탄했는데, 다음날 대표인 최정익, 문양목, 정재관, 이학현 등 4인을 페어몬트(Fairmont) 호텔로 보내 이를 고치라고 요구했으나 스티븐즈는 이를 거절하였습니다. 이에 1908년 3월 23일 아침 스티븐즈가 동부로 가기 위해 샌프란시스코 페리(ferry) 정거장에 도착했을 때 애국 청년 장인환과 전명운

장인환 의사

전명운 의사

체포 arrest
재판 trial
변호비 legal expenses

은 스티븐즈를 저격하였습니다. 그들은 현장에서 체포되었고 두 애국지사에 대한 재판이 시작되자 샌프란시스코의 한인 사회는 후원회를 조직하여 두 애국지사를 구해내자는 운동에 나섰습니다. 그러나 총을 직접 쏜 장인환 의사는 25년 금고형(imprisonment)을 받았고, 전명운 의사는 90일간의 감옥 생활 끝에 풀려났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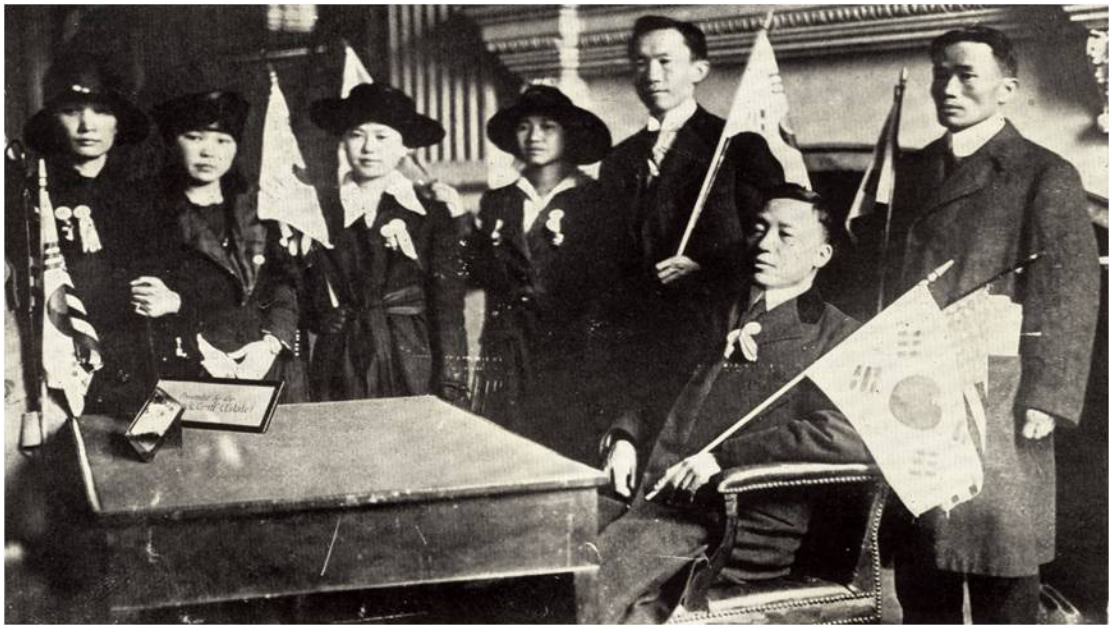
장인환, 전명운 의사의 투쟁은 미주 내에서 일어난 첫 항일운동(anti-Japan patriotic movement)이었다는 점, 안중근 의사가 1909년 10월 26일 하얼빈 정거장에서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하는데 간접적인 영향을 주었다는 점, 멕시코 이민사회는 물론 전미주에서 7,390달러의 변호비를 모아서 재판을 승리로 이끌었다는 점, 일본의 한국 합병의 옳지 않음을 전세계에 알렸다는 점, 미주독립운동 모금이 활발하게 되었다는 점, 해외에 있던 모든 한인이 힘을 합쳤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되고 있었습니다.

바. 조직적인 독립운동
Organized Independence Movement in the U.S.

청원서 petition
의회 congress
소극장 theater

1919년 3월 1일 이후 한국에서 시작된 독립 만세 운동 소식을 미국에 있는 한인들이 알게 되었으며 그해 4월 16일 미주 지역 동포들은 이승만, 정한경, 노디 김, 윤병구 등 애국지사들이 중심이 되어 미국 펜실베이니아의 필라델피아(Philadelphia)에 모여 독립 선언식을 하고, 독립을 위한 시가행진(parade)을 벌였습니다.

또한 1942년 워싱턴에서 열린 한인 자유 대회에서는 중국 상해에 있는 대한민국 임시 정부의 승인을 요구하는 청원서를 미국 대통령과 의회에 낼 것을 결의하였습니다.



필라델피아 한인 대회(1919년 4월 14일-4월 16일). 3.1 운동을 소식을 들은 서재필과 재미동포들은 필라델피아 소극장에서 제 1회 한인 대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오른쪽부터 윤병구, 이승만, 정한경, 노디 김

워싱턴에서 열린 한인 자유 대회 참석자들(1942년 2월 27일-3월 1일). 이 모임에서는 대한민국 임시 정부의 승인을 요구하는 청원서를 미국 대통령과 의회에 낼 것을 결의하였습니다.

근거지 base
상징적 symbolic
교류 keep in touch

미국 내 한인 사회에서는 이승만, 안창호, 박용만 등 지도적 인물을 중심으로 독립 운동이 활발하게 전개되었습니다. 사탕수수 농장의 일꾼으로 미국에 이민온 한인들과 유학생 등으로 미국에 이민온 한인들은 한인교회와 학교 및 일반단체를 통해서 서로 협력하였습니다. 안창호는 주로 미주 본토에서 활동 하였고 이승만과 박용만은 하와이에 그들의 활동 근거지를 두고 있었습니다.

미국의 한인 동포들은 1919년 3·1 운동 후 상해의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사실상의 정부로 인정하고 이에 대한 정신적, 물질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았기 때문에 임시정부는 27년간 많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한국독립운동의 상징적 존재로서 그 이름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일제 강점기 동안 미국의 한인 이민자들은 끊임없이 조국의 독립을 위해 싸워왔고 특히 미국 정부와도 활발하게 교류하여 한국이 자유국가로 독립할 수 있도록 미국이 돕는데 큰 역할을 하였습니다.

☞ 생각해 봅시다

1. 예전 미국에 사는 한인들은 비록 나라를 잃은 국민이지만 한국을 돕기 위하여 애썼습니다. 현재의 우리가 한국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들을 생각해 봅시다.
2. 한국인이라는 heritage와 한국어가 나의 한 부분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어떻게 현재의 나와 미래에 유익하고 도움이 될까요?
3. 일제시대에 한국의 독립운동 지도자들은 워싱턴에 와서 자신들의 의견과 희망을 분명하게 미국의 정치가들에게 전달했습니다. 오늘날에 미국의 한국에 대한 어떤 쟁책 결정에 나의 의견을 어떻게 반영되게 할 수 있는지 생각해 봅시다.

숨은 단어 찾기

경술국치, 보빙사, 샌프란시스코, 카이로, 장인환, 전명운, 대한여자애국단, 독립군, 태평양잡지, 안창호, 박용만, 스티븐스, 대한제국, 이민자, 루스벨트, 서재필, 삼일운동, 부인구제회, 항일운동

드	보	보	서	울	삼	일	운	동	샌
카	이	로	빙	대	박	본	명	프	장
국	민	로	고	사	용	산	란	대	인
전	자	독	립	군	만	시	한	통	환
명	업	안	대	한	스	여	족	령	승
운	자	창	한	코	자	스	티	븐	스
템	득	호	제	애	구	항	일	운	동
필	재	서	국	국	태	평	양	잡	지
애	국	단	성	사	회	제	구	인	부
루	스	벨	트	랑	사	치	국	술	경

4 현대 미국의 한국인 이민자들

Korean Immigrants in Modern Days

(1) 1960년대 이전 미국에서의 인종 차별주의
Racial Discrimination in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before 1960's

(2) 마틴 루터 킹 목사의 민권운동
Civil Rights Movement by Martin Luther King, Jr.

(3) 미국의 이민 정책
Immigration Policies in U.S.

(4) 1960년대 이후 한국인의 미국 이민역사
History of Korean Immigration to U.S. after 1960's

(5) 4.29 Los Angeles의 인종 폭동(1991-1992)
Racial Riot in Los Angeles(1991-1992)

(6) 2000년대 이후의 한인 이민사회
Korean-American Community after 2000

(7) 우리 지역의 한인 사회
Our Local Korean-American Community

4. 현대 미국의 한국인 이민자들
Korean Immigrants in Modern Days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에서는 인종차별(racial discrimination)이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이 옛날부터 인종차별을 금지해온 나라는 아니었습니다. 1960년 이후에 들어서야 미국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피부색과 인종에 관계없이 평등한 인권을 갖게 된 것입니다. 불과 50여년 전인 1960년대까지도 미국 사회에서는 특히 흑인과 유대인, 동양인들에 대한 차별이 심했습니다. 아직도 미국 사회에는 인종 차별의 관습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고 지금도 인종 차별에 의한 사회적 갈등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한국 이민자 또는 그들의 후손인 Korean-American은 자신의 정체성을 좀 더 잘 이해하고 미국에서 주인 의식을 갖고 살아가기 위해서 미국의 인종 차별에 관련된 역사를 잘 이해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장에서는 한국인의 미국 이민이 활발해진 1960년대 이후 한국인 이민자들이 어떻게 미국에서 정착해왔고, 그들의 생활이 어떻게 발전해 왔는지를 살펴보기로 합시다.

금지 prohibit
관계없이 regardless
평등한 equal
인권 human right
정체성 identity
주인 의식 ownership
관련된 related
관습 custom
정착 settle

(1) 1960년대 이전 미국에서의 인종 차별주의
Racial Discrimination in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before 1960's

한국은 단일 민족 국가로서 인종적으로 균일한 국가이므로 인종 차별이라는 개념이 없었습니다. 조선시대에 양반, 평민, 상민 등의 사회적 계급이 있기는 하였으나 인종은 모두가 하나의 민족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미국의 경우는 그렇지 않습니다. 1776년 영국으로 부터 독립한 미국은 아프리카에서 많은 흑인들을 노예로 들여와 남부 지방

인종적으로 균일한 racially homogeneous
개념 concept
사회적 계급 social classes

목화 cotton
담배 tobacco
농장 plantation
노예 slave
해방 liberation
폐지 abolition
멸시 contempt
소수민족 ethnic minorities
주류사회 mainstream American society
제약 restriction

의 목화와 담배 농장을 중심으로 일하게 하였으며 북부지방에서는 공장에서 일을 시키며 미국은 철저한 차별주의 정책으로 이들이 자유롭게 살 수 있는 길을 막았습니다. 링컨 대통령의 노예 해방과 남북 전쟁(Civil War)을 거쳐 노예 제도가 법적으로 폐지 되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많은 지역에서는 흑인들에 대한 멸시와 차별이 여전히 심했습니다. 또한 유대인들과 아시아인 등 소수민족에 대해서도 미국은 인종차별적인 법과 제도를 가지고 있었으며 소수민족들이 주류사회에서 미국인으로 살아가는 데는 많은 제약이 있었습니다. 특히 식당, 공공 시설 등 많은 장소에서 백인이 아닌 흑인과 소수 민족들은 차별대우를 받았습니다. 한국인 초기 이민자들은 이와 같이 미국 사회에 인종 차별이 있던 시설에 이곳에 와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던 것입니다.

미국의 1960년대 이전 식당, 화장실등 사람들이 많이 사용하는 곳에 붙어 있던 흑인과 유대인 등 유색인종을 차별하는 간판 사인들

☞ 생각해 봅시다

1. 한국인 초기 이민자들이 미국에 처음 왔을 때 영어도 잘 못하고 인종 차별이 있던 미국 사회에서 어떠한 어려움을 겪었을지 생각해 봅시다.
2. 인종차별이란 무엇인지 이야기 해보고 왜 인종차별이 옳지 않은 일이며 고쳐져야 하는 것인지 생각해 봅시다.

(2) 마틴 루터 킹 목사의 민권운동
Civil Rights Movement by Martin Luther King, Jr.

존중 respect
주장 advocate
존엄성 dignity
민권 civil right
기여 contribution
공로 achievement
암살 assassinat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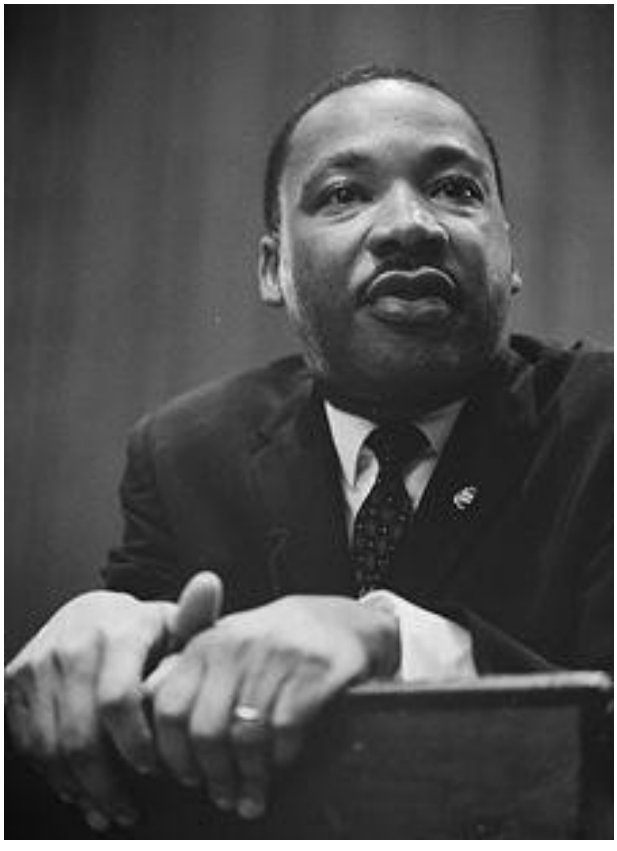
침례교(Baptist church) 목사이며 흑인 인권 운동가인 마틴 루터 킹 목사는 1929년에 조지아주의 아틀란타(Atlanta)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는 미국의 인종차별 제도는 옳지 못한 제도라고 생각하고 1955년 부터 인종 차별을 반대하는 운동을 미국 남부 지방에서 이끌었습니다. 그는 모든 인간은 피부색에 관계 없이 존중 받아야 하며 흑인과 백인이 똑같은 사람으로서 평화롭게 살아갈 수 있는 나라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고 그의 주장과 비폭력주의적 민권운동은 미국 국민들에게 커다란 감동을 주게 되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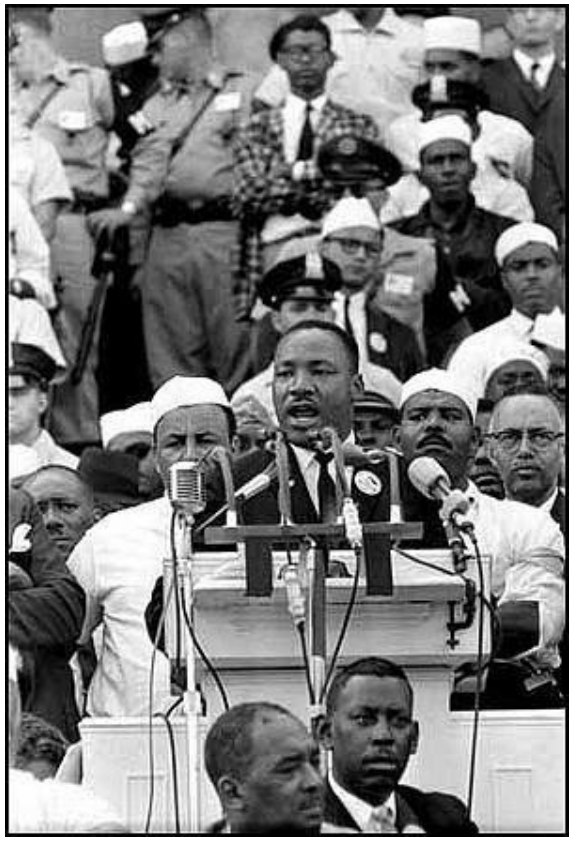
마틴 루터 킹 목사의 민권 운동을 계기로 미국 전체에 인간의 존엄성을 다시 일깨우고 인종 차별적인 각종 법률과 사회제도를 바로 잡는 기회가 마련 되었으며, 이에 그는 1964년 민권운동에 기여한 공로로 노벨 평화상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1968년 그를 반대하는 극우파에 의하여 테네시주의 멤피스에서 암살 당하였고, 그의 죽음 이후에도 미국은 인종차별을 완전히 없애기 위하여 더욱 노력하는 국가로서 오늘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마틴 루터 킹에 의하여 일어난 민권 운동의 결과로 모든 미국인들이 인종

수도 capital
업적 achievement
기념관 memorial
연설 speech

에 관계 없이 평등한 대우를 받게 되었다는 것은 지금 미국에 사는 우리 Korean-American에게도 매우 의미있고 중요한 일입니다.

2011년 8월 28일, 그가 죽은지 43년이 된 해에 미국의 수도 워싱턴 DC에는 마틴 루터 킹의 업적을 기리는 기념관이 설립되었습니다. 수많은 미국인들이 이 곳을 방문하여 그가 미국을 보다 살기 좋은 나라, 평등한 나라로 만들기 위해 애쓴 업적을 직접 보고 배울수 있습니다. 또한 매년 1월 세번째 월요일은 마틴 루터 킹 기념일(Martin Luther King Jr. Day)로서 온 미국인이 그의 위대한 업적을 되돌아보고 기억하는 날입니다.





마틴 루터 킹 목사가 1963년 워싱턴 DC에 있는 링컨 기념관(Lincoln Memorial) 앞에서 연설(speech)하는 모습. 그는 이곳에서 유명한 "I Have A Dream" 이라는 연설을 했습니다.

☞ 생각해 봅시다

1. 다음은 마틴 루터 킹 목사의 유명한 연설 "나는 꿈이 있습니다.(I Have A Dream)" 연설문입니다. 이것을 읽고 한국어로 번역(translate)해 봅시다. 또한 이 연설문이 한국인 2세인 나에게 어떠한 의미를 갖는지 생각해보고, 다른 친구들과 나의 생각을 나누어보며, 부모님과도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가져봅시다.

   Let us not wallow in the valley of despair, I say to you today, my friends.
   And so even though we face the difficulties of today and tomorrow, I still have a dream.
   It is a dream deeply rooted in the American dream.
   I have a dream that one day this nation will rise up and live out the true meaning of its creed:
   "We hold these truths to be self-evident, that all men are created equal."
   I have a dream that one day on the red hills of Georgia, the sons of former slaves and the sons of former slave owners will be able to sit down together at the table of brotherhood. I have a dream that my four little children will one day live in a nation where they will not be judged by the color of their skin but by the content of their character.
   I have a dream today!
   I have a dream that one day, down in Alabama, with its vicious racists, with its governor having his lips dripping with the words of "interposition" and "nullification" – one day right there in Alabama little black boys and black girls will be able to join hands with little white boys and white girls as sisters and brothers.
   I have a dream today!
   I have a dream that one day every valley shall be exalted, and every hill and mountain s hall be made low, the rough places will be made plain, and the crooked places will be made straight; "and the glory of the Lord shall be revealed and all flesh shall see it together."

2. 마틴 루터 킹이 나와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 생각해 봅시다.

3. 시간을 내어 기념관을 방문하고 어떠한 느낌을 받았는지 서로 이야기를 나누어 봅시다.

(3) 미국의 이민 정책 Immigration Policies in U.S.

민권 civil right
인권운동 human right activity
창조 create
그리스도교의 이념 Christian ideology
보편적으로 universally
실천 practice
화합 harmonize
번영 prosperity
토지소유 land ownership
부여 grant
허용 permit
개정 amendment

1960년 마틴 루터 킹 목사를 중심으로 한 민권 및 인권 운동으로 인하여 미국의 인종차별에 대한 정책과 국민들의 생각이 바뀌기 시작하였습니다. 모든 사람은 하느님께서 평등하게 창조하셨다는 그리스도교의 이념이 비로소 미국에서 보편적으로 실천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또한 흑인들 뿐만 아니라 사회에서 차별 대우를 받고 있던 유대인, 동양인, 히스패닉 등 소수민족들의 인권에 관한 관심도 높아지게 되었으며 미국의 이민 정책도 변화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또한 미국은 전 세계로 부터 이민을 받아들이기 시작하였고 그 결과 미국은 세계의 다른 나라들과는 달리 문화와 전통이 다른 여러 민족들이 화합하여 평화롭게 살면서 번영하는 더욱 강한 나라로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미국의 이민정책이 시간이 지나며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보기 쉽게 나타낸 것입니다.

- 1850년 아시아인 이민 받아들이기 시작
- 1913년 외국인 토지소유 금지법(캘리포니아) – 아시아계 이민자들 대상
- 1924년 아시아인 이민 금지
- 1924년 아시아계 이민 1세에게 미국 시민권 부여 금지
- 1943년 중국인 이민 허용
- 1946년 인도인 이민 허용
- 1952년 한국인과 일본인 이민 허용
- 1952년 까지 인종차별을 유색인종, 유대인에 대해 법적으로 허용
- 1960년대 마틴 루터 킹 목사를 중심으로 한 인권 운동
- 1964년 존슨 대통령에 의해 공공장소, 고용, 선거에서 인종 차별을 금지하는 법안(bill) 발표
- 1965년 이민법(Immigration Law) 개정

☞ 생각해 봅시다

1. 내가 1950-1960년대 미국에서 살고 있었다면 어떤 어려움을 겪었을까요?
2. 마틴 루터 킹의 인권운동이 어떻게 한국인 이민자에게 영향을 미쳤는지 생각해 봅시다.
3. 왜 미국이 마틴 루터 킹의 인권운동에 의하여 이민 정책을 바꾸게 되었는지 알아봅시다.
4. 인종차별을 느낀 적이 있었는지 부모님들께 여쭈어 봅시다.
5. 부모님들이 인종차별을 느낀적이 있었다면 어떻게 대응(respond)하셨는지 물어봅시다.
6. 왜 어떤 사람들이 인종차별을 하는지 그 이유에 대하여 생각해 봅시다.
7. 나도 소수민족이면서 African American이나 Hispanic 등 다른 소수민족들에 대하여 차별하는 마음은 없었는지 생각해 봅시다.
8. 내가 만일 Korean-American이기 때문에, 또는 Asian이기 때문에 인종차별을 받는다면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좋은지 생각해 보고 이야기를 서로 나누어 봅시다.
9. 모든 인종들이 서로를 존중하며 사는 더 좋은 나라를 만들기 위하여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어떤 것이 있나 생각해 보고 서로 이야기 해 봅시다.

(4) 1960년대 이후 한국인의 미국 이민역사
History of Korean Immigration to U.S. after 1960's

부족 shortage
정착 settle
언어의 장벽 language barrier
미국의 주류 사회 main stream American society
장애물 barrier

1970년대 이전의 한국은 아주 가난한 나라였습니다. 국토는 좁고 인구는 많으며 산업개발에 필요한 지하자원과 기술이 부족하여 한국의 경제는 세계의 다른 나라들에 비하여 많이 뒤떨어져 있었습니다. 또한 정치적으로 혼란이 계속되었습니다. 지금 한국은 세계 10대 경제대국이 되어 어느 나라에 못지 않게 잘살게 되었지만 불과 40여 년 전의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 하나였습니다.

1960년 이후 미국은 노동력이 부족하게 되어 외국인 이민자들을 받아들이기 시작하였고 1960년 중반 부터 한국인의 미국 이민이 시작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미국 대학에 유학온 많은 유학생들이 공부를 마치고 미국에 남아 직장을 구하여 정착하게 되었으나 차츰 가족 이민 등을 통하여 해마다 한인 이민자들이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초기 한인 이민자들 중에는 한국에서 전문적인 일을 하는, 특히 의사, 간호사, 엔지니어, 기술자 등이 많았습니다. 이들의 가족들도 미국으로 이민을 오게 되었고 그들은 Los Angeles, New York, Chicago와 같은 대도시에 주로 정착하면서 다양한 분야에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많은 한국인 이민자들이 한국을 떠나 미국으로 이민 오는 선택을 하였을까요? 그들은 경제적으로 살기 힘든 한국보다는 미국에서 그들의 자녀를 더 잘 가르칠 수 있고 경제적으로도 한국에서보다 더 잘 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하지만 전혀 다른 언어, 문화와 역사를 가진 미국에 와서 정착한다는 것은 매우 힘든 일이었습니다. 특히 언어의 장벽은 한인 이민자들이 미국의 주류 사회에 진출하는데 가장 큰 장애물의 하나였습니다.

그러나 한인 이민자들은 성실하고 부지런히 일하여 다른 인종 이민자들에 비하여 빠르게 미국에 정착하여 경제적

으로 안정을 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특히 유대인들이 과거에 운영했던 작은 규모의 사업체들을 한인 이민자들이 구입하여 열심히 키워나갔는데 그 대표적인 사업이 세탁소였습니다. 초기 한국 이민자들은 세탁업에 진출하여 짧은 시간 내에 경제적인 안정을 이룩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도 샌프란시스코, 시카고, LA 등 대도시에서는 대부분의 세탁소들이 한인들에 의하여 운영되고 있습니다. 세탁소는 높은 수준의 영어가 필요하지 않고 상대적으로 적은 자본으로 시작할 수 있으며 안정된 수입을 가져다 준다는 점, 밤늦게까지 일하지 않아도 되고 일요일에는 쉴 수 있다는 점 등이 이민자들에게는 장점으로 생각되었던 것입니다.

구입 purchase
세탁업 laundry business
상대적으로 적은 자본 relatively small investment
수입 stable income

한인 이민자들은 경제적으로 조금씩 여유를 갖게 되면서 그들의 자녀들에 대한 교육에 큰 관심을 갖고 자녀들을 좋은 대학에 보내기 위해 희생과 투자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1970년대 이후 꾸준히 이민자들이 증가하여 Los Angeles, New York 등 대도시를 중심으로 소위 Korean Town으로 불리는 지역이 만들어지기 시작하였으며 수많은 한인 상점, 사업체가 생겨나게 되었고 한글학교도 세워지기 시작하였습니다. LA에는 공식적으로 한인타운(Korean Town)이라고 불리우는 거리도 생기게 되었습니다.

운영비 operating expenses

통계적으로 보면, 1962년에는 1년에 약 200명 정도가 미국에 이민 왔지만 1977년에는 한 해에 3만명이 넘게 되었으며, 현재는 미국에 100만명이 넘는 한인들이 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게다가 이민자들의 자녀는 미국 시민으로서 한인 이민자로 구분되지 않으므로 실제로 미국에 사는 Korean-American들은 훨씬 많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습니다.

한국 이민자들처럼 미국으로 이민 온 여러 나라 민족들 중 어떤 특정한 분야에 진출하여 빠르게 성공한 예를 몇가지 들어보겠습니다.

많은 중국인 이민자들은 중국 음식점을 열어 운영하였습니다. 미국인들은 많은 다른 나라 음식들에 비해 중국 음식에 비교적 친숙하게 되었고 이제는 미국의 도시나 시골 어디를 가든지 중국 음식점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현재 미국에는 4만개 이상의 중국 음식점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맥도널드나 버거킹, KFC 등의 fast food 식당을 다 합친 숫자보다도 많은 중국 음식점이 미국에 있다고 합니다. 또한 중국인 이민자들은 대를 이어 중국 음식점을 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인도인 이민자들은 1970년대 이후 미국에 많이 왔는데, 그들은 모텔(motel)을 운영하는 일에 많이 종사하였습니다. 인도인들은 한인이나 중국인들과 달리 영어를 잘하기 때문에(인도에서는 영어가 공식 언어로 사용됩니다.) 많은 손님들을 대하는 모텔 또는 호텔 비지니스에 언어의 문제가 없었던 것입니다. 처음에는 시골에 있는 값싼 모텔을 운영하면서 가족들이 빨래, 청소 등의 모든 일을 함께 하면서 운영비를 줄이며 재산을 모았다고 합니다. 이렇게 하여 키운 모텔을 새로 이민온 친척이나 아는 사람들에게 팔고 자신들은 좀 더 규모가 큰 모텔이나 호텔을 사면서 점차로 많은 모텔과 호텔들이 인도인 이민자들이 운영하는 곳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베트남에서 온 이민자들은 미국에서 손톱을 가꾸는 네일 샵(nail shop) 분야에 진출하여 성공하였습니다. 현재 미국의 네일 살롱의 43% 이상이 베트남 이민자들에 의해 운영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일 샵은 영어를 잘못해도 되고 아주 어려운 기술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며 많은 자본이 필요하지도 않으므로 근면하고 성실한 많은 베트남 이민자들이 이 분야에서 열심히 일하여 성공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점령 govern
난민 refuge
탈출 escape
여건 conditions

캄보디아에서 온 이민자들은 도넛을 만들어 파는 분야에 진출하였습니다. 현재 캘리포니아에 있는 도넛 가게의 80%는 캄보디아에서 온 이민자들이 소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도넛은 캄보디아의 음식이 아니지만 1975년 캄보디아가 공산정권(the communist regime)에 의하여 점령되고 수많은 사람들이 보트를 타고 난민으로 탈출하여 미국에 왔을 때 온 테드 노이라는 사람이 처음으로 도넛 가게를 열어 성공적으로 운영하면서 캘리포니아의 여러곳에 도넛 가게를 열고 캄보디아 이민자들이 일할 수 있게 하면서 도넛 사업이 캄보디아 사람들에겐 자신 있는 분야가 된 것입니다.

이처럼 미국으로 이민 온 여러 민족들이 제각기 다른 재능과 여건을 이용하여 나름대로 독특한 이민자 사업을 일으켜 그 분야에서 성공할 수 있었다는 것은 매우 흥미로운 일입니다.

한인 이민자들 중 많은 사람들이 대도시의 작은 상점(store, market)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들은 무장 강도를 당할 수 있는 위험한 환경에 처해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동안 많은 한인들이 무장 강도에 의해 생명과 재산을 잃는 안타까운 사건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좀 더 행복하게 살기 위하여 미국에 이민와서 아침부터 밤늦게 까지 열심히 일해온 이들의 비극에 대해 우리는 관심을 가지고 서로 도울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바로 우리의 부모님 또는 할아버지, 할머니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 생각해 봅시다

1. 나의 부모님들은 언제 그리고 왜 미국에 이민 오시게 되었는지 여쭈어 봅시다.
2. 부모님들은 한국에 계실 때 어떤 일을 하셨는지 알아보고 한국에 계실 때의 부모님 사진도 찾아 봅시다.
3. 부모님들이 미국에서 가장 힘들었던 일은 무엇이었으며 어떻게 극복하였는지 여쭈어 봅시다.
4. 부모님들은 내가 어떠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지 알아봅시다.

✎ 직접해 봅시다

1. 부모님들이 처음 미국에 오셨을 때의 사진을 찾아 봅시다.
2. 내가 처음 태어났을 때 사진을 찾아봅시다.
3. 미국에서 내가 처음으로 학교에 갔을 때의 사진을 찾아보고 그때 부모님들이 어떤 마음이 드셨는지 여쭈어 봅시다.
4. 어렸을 때 부모님과 함께 찍은 사진들을 찾아서 같이 보고 이야기 해 봅시다.
5. 부모님께 가장 고마웠던 일을 생각해보고 편지로 써서 부모님께 드려 봅시다.

(5) 4.29 Los Angeles의 인종 폭동(1991-1992)
Racial Riot in Los Angeles(1991-1992)

미국은 역사적으로 인종 차별 문제가 가장 큰 사회적 문제들 중 하나였습니다. 미국의 경제, 정치, 외교 정책 등 모든 분야에서 백인들이 주도권을 잡고 있었기 때문에 오랫동안 인종차별의 역사가 계속되었고 그들에게는 흑인이나 라티노(Hispanics), 아시안들은 직접적, 간접적으로 차별과 견제의 대상이 되어왔으며 이로 인해 일어났던 여러 인종 폭동이 미국 역사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히 흑인들은 벗어나기 힘든 가난과 높은 실업률로 사회적 불만이 오랜 세월 쌓여 왔기 때문에 크고 작은 인종 폭동의 화약고와 같은 불안정한 사회 분위기가 계속되어 온 것이 사실입니다. 오늘날에도 이러한 인종적 갈등은 끊임없이 일어나며 종종 불행한 사건으로 이어지고 있음은 신문과 TV 등을 통하여 보도되고 있습니다.

외교 정책 diplomatic policy
주도권 leadership
직접적 directly
간접적으로 indirectly
대상 subject
실업률 unemployment rate
근본적 fundamental
불필요한 unnecessary
불이익 disadvantage
확고한 firm
정체성 identity
체포 arrest

미국 사회가 가지고 있는 이러한 근본적인 문제는 한인 이민자들에게도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문제입니다. 미국에서 태어나 자란 한인 2세라 할지라도 불필요한 차별이나 불이익을 당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Korean-American으로서 확고한 정체성을 깨닫고 살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앞서 설명했듯이, 미국에 이민온 Korean-American들이 아무런 어려움 없이 잘살게 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때로는 사회적으로 존경받지 못하는 힘든 일을 하면서도 결국엔 경제적인 힘을 길러 성공하였지만, 한국인 이민자들에게 닥친 가장 큰 시련은 1992년 4월 29일 Los Angeles (LA)에서 일어난 폭동 사건이었습니다.

LA 폭동이 일어나기 일년 전인 1991년 3월, LA에서 몇 명의 백인 경찰관들이 과속으로 질주하는 Rodney King 이라는 African American을 체포하는 과정에서 그를 마

배심원 jury
시위 demonstration
무력 armed force
진압 suppress
긴장감 tension
약탈 loot
가세 join
피해 damage
파괴 destroy
효과적으로 effectively

구 때리는 장면이 TV 뉴스에 나오면서 많은 사람들이 분노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들 경찰관들은 법정에서 편파적인 백인 배심원들에 의해 가벼운 형벌만 받았고 이를 지켜본 빈민층의 흑인 및 Latino 사회는 이러한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강력하게 항의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그러한 불만이 폭발하여 폭력적인 시위가 일어나면서 정부에서는 이를 무력으로 진압하는 사태에 이르렀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하여 LA 지역에는 전체적으로 인종적 긴장감이 더욱 높아지게 된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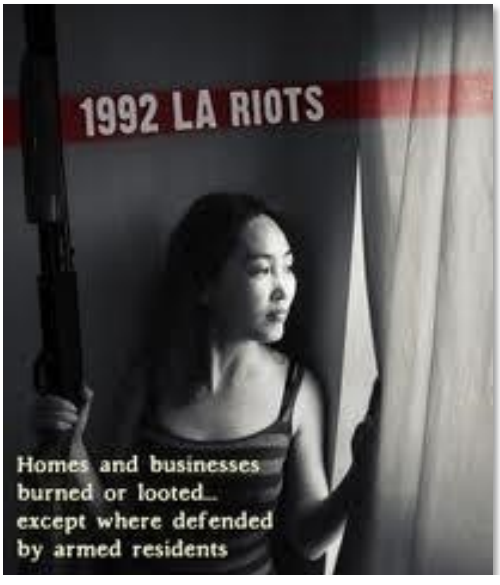
그러던중 1992년 3월 16일, 한 흑인 소녀가 한국인 이민자가 운영하는 LA의 한 상점에서 물건을 훔치다가 한인 주인에 의하여 총에 맞아 사망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일부 흑인 사회에서는 한인들이 자신들을 무시하고 차별한다고 하여 분개하였고 한인 타운 내에 있는 한인 업체들을 약탈하고 불을 지르기 시작하여 순식간에 그 지역은 무법 천지가 되었습니다. 1992년 4월 29일 부터 5월 4일 까지 흑인들은 한국인으로 보이는 동양인들을 아무런 이유없이 때리고 돌을 던지거나 총을 쏘았고 LA 한인타운의 수많은 상점들을 부수고 들어가 물건을 마구 훔쳐가고 불을 질렀습니다. 여기에 덩달아 일부 Latino 사람들도 가세하여 한인들에게 큰 피해를 주었습니다. 보고에 따르면, 이 기간 동안에 2,280여 개의 한인 업소들이 모두 불에 타거나 부분적인 화재의 피해를 당했으며 한국인들이 입은 피해는 약 $400 million였고 이로 인하여 LA Korean Town의 약 90%가 파괴되었습니다. 새벽부터 밤늦게 까지 American Dream을 실현하기 위해 열심히 일하던 한인 이민자들은 미국과 같은 문명 국가에서 법의 보호없이 폭동이 일주일 간이나 계속된 것에 대하여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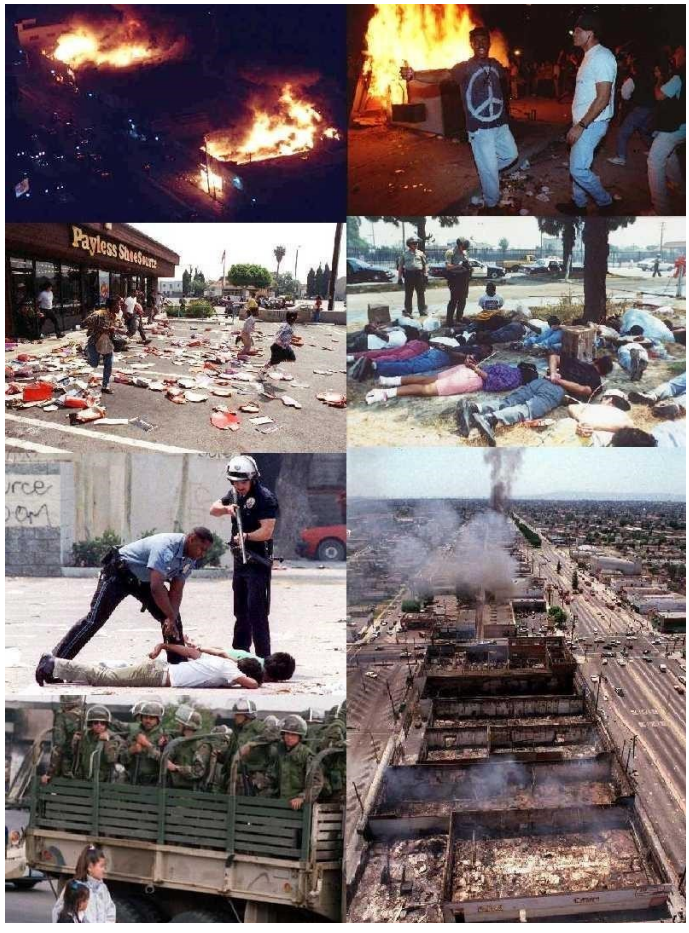
경찰에 의하여 폭동이 효과적으로 일찌기 진압되지 못하고 피해가 점점 커지게 되자, 결국 한인들은 자신들을 지

킬 수 있는 것은 자신들 밖에 없다고 생각하게 되었고 스스로 무기를 들고 폭도들에게 대항하여 자신의 생명과 재산을 지켰습니다. 그러나 미국의 일부 신문이나 방송들은 오히려 한인들을 무법자로 왜곡하고 보도하여 한인들의 이미지를 나쁘게 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폭도 mob
대항 fight against
왜곡 misrepresent
보도 report

이 사건으로 인하여 한인사회는 물론 흑인 사회도 큰 피해와 상처를 입었으며 Los Angeles와 전 미국이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인종 차별적인 문제가 법 앞에서 불공평하게 다루어진 일을 시작으로, 오랜 시간 흑인 사회에 잠재해 있던 미국 사회에 대한 저항과 불만이, 엉뚱하게 한인 사회를 향해 폭발하며 한순간에 많은 한인 이민자들이 되돌





폭동중에 한인 상점의 물건을 약탈해 가는 폭도들, 경찰에 체포된 폭도들과 폐허가 된 LA의 한인 타운. 스스로를 지키기 위하여 무장을 하고 나선 한인

지도자 leaders
불행한 unfortunate
공감 empathy
정치력 political power

이킬수 없는 피해와 상처를 입게 된 것입니다. 폭동이 진압되면서 한인들과 흑인, Latino 등 여러 인종들의 지도자들은 앞으로 이러한 불행한 사건이 또다시 일어나서는 안된다는 점에 대하여 공감하게 되었고 서로의 문화와 어려움을 이해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특히 한국의 문화와 정서가 미국의 것과 다른 경우에 서로 오해할 수 있는 일이 많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한인 이민자들은 미국의 문화에 대해서도 좀더 공부하고 이해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것도 깨닫게 되었습니다. 또한 한인 이민자들이 이제는 스스로 정치력을 키워 미국 주류사회에 진출하여 미국 시민으로서의 권리를 지켜야 한다는 의식도 생기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 생각해 봅시다

1. 나와 피부색이 다른 사람들을 볼 때 나는 어떤 느낌을 갖는지 생각해 봅시다. 나는 그 사람들을 모두 공평하게 존중하며 대하고 있나요?
2. 학교에서 나와 다른 인종의 친구들의 문화에 대하여 관심이 있습니까? 내가 사귀는 친구들은 어떤 인종의 친구들입니까?
3. 앞으로 내가 어른이 되면 미국이 더 평화롭고 친절한 나라가 되도록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는지 생각해보고 한글학교에서 서로 발표해 봅시다.
4. 부모님들이 미국에서 살면서 인종차별을 당해본 경험이 있었는지 여쭈어 보고 어떻게 대응하셨는지 알아봅시다.
5. 책이나 부모님이 가르쳐 주신 한국의 문화와 학교나 친구들에게서 배운 미국의 문화에서 어떠한 점이 같고, 어떠한 점이 다른지 친구들과 이야기해 봅시다.

(6) 2000 년대 이후의 한인 이민사회
Korean-American Community after 2000

1960-1970년대 미국에 이민온 세대의 자녀들(한인 2세들)이 청년, 장년층에 이르면서 2000년대 이후로는 미국 주류사회에 한인 2세들이 적극적으로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장년층 elderly citizens
교육열 enthusiasm for education
교류 interaction
부강한 rich and powerful

한인 부모들의 높은 교육열에 힘입어 미국에서 열심히 교육받은 한인 2세들은 좋은 대학에 진학하여 공부하고 졸업한 후 미국의 정치, 경제, 문화, 학문, 예술 등의 모든 분야에 진출 할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근면함과 성실함으로 각자의 분야에서 성공하면서 주류사회에서 그 영향력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많은 한인 1.5세와 한인 2세들이 지방 자치 단체(local autonomous entity)와 주정부(state government), 연방정부(federal government)의 의원, 행정 관리직(administrative authority positions)으로 진출하면서 한인 사회가 미국 정치인들의 관심도 끌게 되었으며 미국에 사는 한인들에 의하여 한국 정부와 미국간의 교류도 모든 분야에서 활발히 일어나는 발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지난 반세기동안 한국에서는 온국민이 열심히 노력해온 결과, 가난을 극복하고 경제를 건설하여 세계 10대 경제 대국에 들어갈 만큼 잘사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한국에서 만든 자동차, 전화기, 전기 제품 등이 전 세계적으로 사용되고 있고 한국의 pop-music(K-Pop)과 영화, 드라마도 미국과 다른 나라에서 큰 인기를 모으고 있습니다. 한국인의 다양한 문화가 이처럼 세계적으로 알려지게 되었고 한국에 대한 다른 나라 사람들의 관심도 커지게 되었습니다. 내 부모님의 나라인 한국이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부강한 나라가 되면서 미국에 사는 한국 이민자들과 그들의 자녀들도 미국인들로 부터 더 인정받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할 수 있겠습니다.

국가적 national
과오 mistake
침략주의 policy of aggression
통과 pass
강점 occupation
잔인한 만행 brutal atrocity
규탄 protest
촉구 urging
강제로 forcibly
참회 repentance
축소 reduction
정당화 justify
고발 report
전쟁 범죄 war crime

또한 미국에 사는 한인들은 이제 모국 한국의 국가적 문제에 대해서도 기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특히 한국의 이웃나라인 일본이 한국에 대한 역사적 과오를 아직도 뉘우치지 못하고 침략주의적 사상을 버리지 못하는것에 대하여 미국에 사는 우리 Korean-American들이 앞장서서 그들의 잘못을 시정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미국에 사는 한인들은 미국 주류 사회의 정책과 방향에도 영향을 줄 수 있을 정도의 힘을 얻게된 것입니다.

최근 일본해(Sea of Japan)라고 외국의 지도에 잘못 표기된 이름을 동해(East Sea)로 바로잡기 위하여 워싱턴 DC 지역의 한인 사회에서 '동해병기운동'을 일으켜 버지니아주 의회에서 결의안이 통과 되게 함으로써 한국이 할 수 없는 일을 미국의 한인들이 하였습니다. 또한 일본이 한국 강점 당시에 한국인들에 대해 행한 잔인한 만행을 규탄하고 일본의 진정한 사과를 촉구하기 위하여 미국의 한인사회가 나서 LA 인근 글렌데일(Glendale)시 도서관 뜰에 한국인 위안부상을 세웠습니다(사진). 위안부는 2차 세계 대전을 일으킨 일본이 한국의 젊은 여자들을 강제로 끌고 가서 전쟁터의 일본군의 성적 노리개로 삼은 끔직한 만행이었습니다. 그러나 일본의 정치인들은 아직도 일본의 역사적 과오를 진심으로 참회하지 않고 오히려 축소하거나 정당화하려함으로써 한국인은 물론 전세계 사람들의 분노를 자아내고 있습니다. 이 한국인 위안부상은 미국 국민들이 일본의 반 인류적 전쟁범죄를 알게 하고 그 분들의 희생을 위로하고자 하는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LA 인근 글렌데일(Glendale)시
도서관 뜰에 있는 한국인 위안부상

(7) 우리 지역의 한인 사회 Our Local Korean-American Community

우리가 각자 살고 있는 지역사회의 한인들에 대하여 아는 것도 우리 자신의 존재와 정체성을 갖기 위해 의미가 있고 중요합니다. 미국의 여러 지역에서도 마찬가지겠지만 버지니아-메릴랜드-워싱턴 지역에는 약 20만명의 한인들이 다양한 분야에서 한인들이 활동하며 살고 있습니다. 또한 신문사, 방송국 등 많은 단체들이 조직되어 한인들의 미국 생활을 돕고 권익을 위하여 일하고 있으며 가톨릭 교회, 개신교 교회, 불교 사찰 등 종교 기관도 널리 있어 한인들의 신앙 생활을 돕고 있습니다.

워싱턴 지역에는 약 80개의 한글학교가 설립되어 한국어, 한국 문화, 역사 등을 가르치고 있는데, 워싱턴 지역 한국학교 협의회는 이 지역의 한글학교들이 한인 2세 학생들을 더 잘 가르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버지니아, 메릴랜드, 볼티모어 지역에는 지역 한인회(Regional Korean-American Associations)들이 구성되어 있고 워싱턴 지구 한인 연합회(Korean-American Federation)는 이들 지역 한인회들와 함께 미주 한인 사회를 위하여 봉사하고 있습니다. 지역 한인회들은 자발적인 봉사자들로서 구성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각 지역 한인들의 복지, 교육, 정치적 권익, 한국의 문화 소개 등 다양한 일을 통하여 한인 이민자들이 미국 사회에서 차별을 받지 않고 미국 시민으로서 당당히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또한 워싱턴 지역에는 한국의 주미 대사관(Embassy of the Republic of Korea in U.S.), 총영사관(Consulate General), 한국문화원(Korean Cultural Center), 한국교육원(Korean Education Center) 등 여러 한국 정부 기관들이 위치하고 있어 이 지역 한인들에게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미국의 한인 사회 규모가 커지고 한인 2세들의 주류사회 진출이 활발해지면서 미국의 정치인들도 한인 사회를 중요시하게 되었습니다. 한인들이 많이 사는 지역에서는 한인들이 투표를 통하여 그들의 입장을 대신하여 일할 수 있는 정치인들을 선출하기 때문에 미국 정치인들은 한인 사회의 관심사에 대하여 귀를 기울이지 않을 수 없습니다. 버지니아주 의회에서 한국의 동해와 일본해를 지도에 함께 표기하도록 결의안을 통과시킨 것도 이 지역의 정치인들이 한인 사회가 원하는 바를 이해하고 한인들이 지속적으로 정치인들에게 그들의 정당한 의사를 표시할 수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권익 rights and interests
신앙 religion
협의회 association
구성 organized
입장 position
대신 fill in
선출 elect
표기 notation
결의안 resolution
지속적으로 continuously
의사 intention
상원 의원 senator
하원 의원 congressman

알아 봅시다

1. 내가 열심히 공부하고 선생님께서 잘 가르쳐 주시는 한글학교가 나에게 앞으로 어떠한 도움을 주고 왜 나에게 중요한지 생각해 봅시다.

2. 다음은 워싱턴 지역의 주요 한인단체의 심볼(symbol, logo)입니다. 어떤 단체의 심볼인지 알아보고 각 단체에서 하는 일이 무엇인지 알아봅시다.

3.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에서 발행(publish)되는 한인 신문, 잡지는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보고 또 읽어봅시다.

4. 우리 지역의 한인회에서는 어떤 일을 하는지 알아봅시다.

5. 우리 지역의 한인 사회(Korean-American Community)에서 내가 참여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 있는지 생각해 봅시다.

6. 우리 지역에서 한인들이 어떠한 business 를 하고 있는지 알아봅시다.

7. 부모님들이 미국의 선거에 빠지지 않고 참여하는지 여쭈어 봅시다.

8. 우리 지역사회에서 선출된 주 의원과 연방정부의 상원, 하원 의원은 누구인지 알아봅시다.

숨은 단어 찾기

인종차별, 마틴루터킹, 인권운동, 이민정책, 소수민족, 교육, 코리아타운, 세탁소, 폭동, 한인사회, 경제대국, 위안부, 한인회, 한글학교, 대사관, 동해표기, 주류사회, 정치인, 한국교육원, 지역사회, 글렌데일

족	민	수	소	마	령	산	맥	한	성
발	주	도	틴	세	경	제	대	국	인
교	육	루	폭	탁	아	사	학	교	권
장	터	한	동	소	관	재	교	육	운
킹	이	코	인	종	차	별	학	원	동
거	민	인	리	사	국	왜	글	짓	기
버	정	치	인	아	회	인	한	회	일
공	책	위	안	부	타	국	족	사	데
지	역	사	회	사	원	운	전	류	렌
도	동	해	표	기	차	동	맥	주	글

5

코리안 어메리칸 드림

Korean-American Dream

(1) 한국 경제의 성장
The Economic Growth of Korea

(2) 한국의 주요 산업
Major Industries of Korea

(3) 새로이 조명되는 한국 문화
Korean Culture in the Spotlight

(4) 세계 속의 빛나는 한국인
Globally Recognized Koreans

(5) 미국 사회에서 빛나는 한국인
Korean-Americans in America

5. 코리안 어메리칸 드림
Korean-American Dream

2000년 이후 대한민국의 경제는 크게 발전하였습니다. 특히 조선 산업, 제철 산업, 자동차 산업, 컴퓨터와 정보 통신 산업등은 세계에서 가장 발전된 나라의 하나가 되었으며 특히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TV, 스마트폰 등은 삼성, LG와 같은 한국회사의 제품이 전세계적으로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한국은 이제 문화적으로도 세계적인 주목을 받고 있고 특히 대중 예술은 동남아와 중국, 일본 등 이웃 나라들과 미국에도 널리 알려졌으며 한국 음식 또한 세계 여러나라의 사람들이 좋아하는 음식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또한 한인 이민자 1세들과 1.5세(어려서 부모를 따라 미국에 이민와서 미국에서 공부하고 성장한 사람), 2세(미국에서 태어나 공부하고 성장한 사람)들이 이제는 미국 주류 사회와 정치에 적극적으로 참여 하면서 미국의 발전에 기여하고 있고 한인들의 목소리에 미국 정치인들이 귀를 기울이게 되었습니다. 과거 경제적으로 어려웠던 1980년대 이전과는 너무나 다르게 한국이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한국 사람들이 세계적으로 크게 활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도 많은 미국인들은 한국에 대하여 잘 알지 못하고 있으며 한국을 중국이나 일본과 혼동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특히 1950-1953년에 일어난 6.25 전쟁에 미국이 참전 하여 많은 희생을 하였는데 그 당시의 한국에 대한 역사 정도를 알고 있을 뿐입니다. 또한 공립학교의 역사 교과서에도 중국과 일본의 역사에 비하여 한국의 역사는 조금밖에 실리지 않아 미국인들의 한국에 대한 지식과 이해가 매우 부족합니다.

이 장에서는 한국의 발전과 미국 한인 동포사회의 발전에 대하여 알아보고 우리도 나중에 어떻게 훌륭한 Korean-American으로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 생각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경제 economy
조선 산업 ship building industry
제철 산업 steel industry
자동차 산업 auto industry
컴퓨터와 정보 통신 산업 computer, information and telecommunication technology
제품 products
세계적인 주목 world-wide attention
대중 예술 public art
미국 주류 사회 main stream American society
적극적으로 actively
참여 participate
기여 contribute
인정받고 recognized
혼동 confuse
참전 take part in a war
희생 sacrifice
공립학교 public schools
부족한 lacki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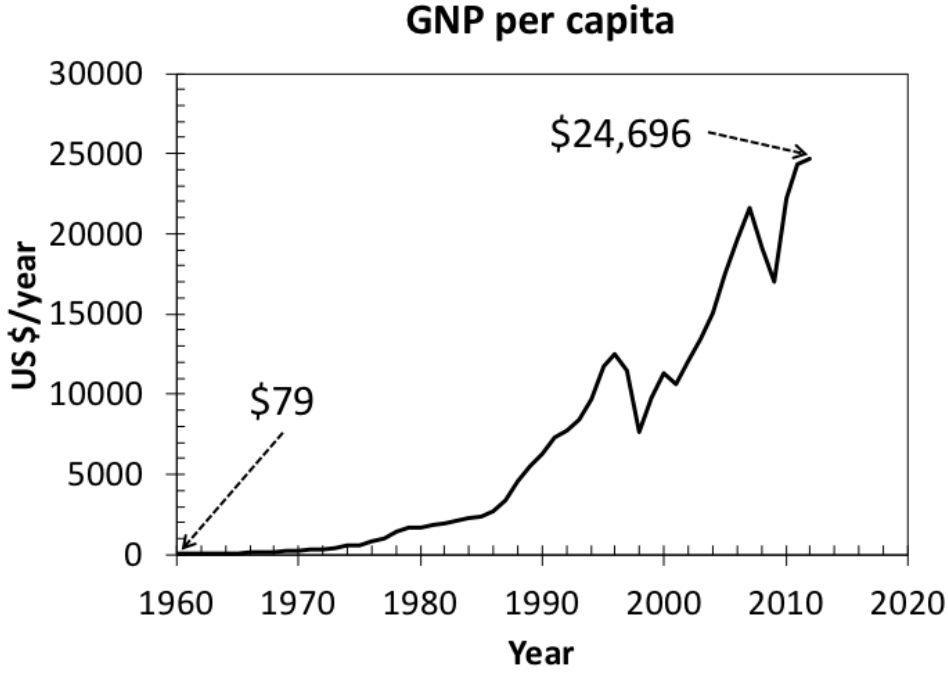
(1) 한국 경제의 성장 The Economic Growth of Korea

지하자원 natural resource
가발 wig
섬유제품 textile goods
농업 agriculture
수산업 fishing industry
산업 industry
과감하게 투자하여 invest aggressively
현대적인 산업 modern industry

1970년대까지 한국은 세계에서 경제적으로 가난한 나라 중의 하나였습니다. 한국에서 외국에 수출할 수 있었던 것은 지하자원, 가발, 섬유제품, 신발 등 높은 수준의 기술을 필요로 하지 않는 제품들(이러한 것들을 경공업제품이라고 합니다) 또는 농업, 수산업 제품 등이었습니다. 그러나 한국 정부는 1970년대부터 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하였고 제철 산업, 조선 산업, 화학 산업, 전자 산업 등에 과감하게 투자하여 현대적인 산업을 일으키고 발전시켜 세계의 많은 나라들을 깜짝 놀라게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나라들은 한국이 그러한 높은 수준의 산업을 일으킬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의 그림은 한국의 국민 한사람당 1년 소득을 1960년부터 2012년까지 나타낸 것입니다(자료: 한국은행). 1960년에는 한국 국민 한 사람당 소득이 $79 밖에 안되

1960년부터 2012년까지 한국의 국민 한사람당 1년 소득



GNP: Gross National Product per capita (자료: 한국은행)

었지만 2012년에는 $24,696로 증가하여 52년 동안에 소득이 313배 증가하였습니다. 이렇게 한국의 경제는 세계적으로 찾아보기 힘들게 빠른 속도로 발전하였습니다. 외국 사람들은 한국의 발전을 '한강의 기적'라고 종종 부르는데, 한강은 한국의 수도인 서울을 가로지르는 큰 강으로, 2차 세계 대전 후 독일이 경제 발전을 이룩한 것을 '라인강의 기적' 이라고 부르는 것과 비교한 것입니다.

경제 economy
비교 compare
원인 contributing factor
발전 develop
교육열 enthusiasm for education
과학 science
기술 technology
투자 investment
연구소 research institute

그렇다면 한국의 경제가 이렇게 빠른 시간내에 크게 발전할 수 있었던 원인은 무엇일까요?

한국이 발전할 수 있었던 중요한 이유 중 하나는 무엇보다도 한국 국민들이 높은 교육열을 가지고 있었고, 훌륭한 교육만이 밝은 미래를 가져올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한국인들은 열심히 일하면 성공할 수 있다고 굳게 믿었던 것입니다. 또한 우리나라는 한글이라는 우수한 문자가 있고 글을 모르는 사람이 거의 없을 정도로 모든 국민이 잘 교육 받았습니다. 그 결과 배우기 쉬운 한글을 통하여 많은 지식을 빠른 시일내에 사람들이 나누며 응용할 수 있었습니다. 세종대왕이 약 500년 전에 국민들을 위하여 만드신 한글이 한국의 교육 수준을 높이고 나아가 경제발전을 위하여 큰 역할을 한 것 입니다.

그리고 1970~1980년대 한국은 과학과 기술의 발전이 없이는 나라의 경제를 일으킬 수 없다고 생각하여 어려운 나라 살림에도 불구하고 과학과 기술 연구에 많은 투자를 하였습니다. 1965년 미국의 Lyndon B. Johnson 대통령이 한국을 방문했을 때 박정희 대통령에게 "미국이 한국에 무엇을 선물하면 좋겠습니까?"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박정희 대통령은 "우리나라는 과학 기술을 연구할 수 있는 연구소가 없으니 좋은 연구소를 하나 지어주시지요."라고 대답하였다고 합니다. 그 결과 미국 정부는 한국 최초의 현대식 연구소인 한국 과학 기술 연구소(KIST: Korean Institute of Science and Technology)를 서울에 세우고

번영 prosperity
공학자 engineer
초청 invite
원동력 driving force
설립 계획 establishment plan
발표 announce
개발 develop
산업화 commercialization

새로운 과학 기술 연구를 시작할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주었습니다. 당시 박정희 대통령은 미국의 경제적 지원보다는 앞으로 나라를 더 발전시킬 수 있는 과학 기술 연구의 기초를 마련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한 것이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기술이 앞선 민족일수록 남보다 일찌기 발전과 번영을 이룩했으며 앞으로도 그러한 민족이나 국가가 남보다 앞서 세계를 이끌어 나가게 될 것이다."라고 생각하였고 우수한 연구는 훌륭한 과학자, 공학자가 있어야 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한국 정부는 미국과 유럽, 일본 등 세계 여러나라에서 활동하고 있는 한국인 과학자, 공학자들을 적극적으로 초청하여 한국 과학 기술 연구소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대통령이 과학 기술을 중요시하게 되니 당연히 국민들의 과학과 기술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게 되었습니다. 1960년대에는 국민들이 과학 기술 연구를 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대부분 모르고 있던 시절이었습니다. 한국 과학 기술 연구소가 중심이 되어 한국은 열심히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고 산업 발전에 적극 이용하였습니다. 이러한 노력이 바로 한국이 1980년대 이후 놀라운 경제 발전을 이루는데 원동력이 되었던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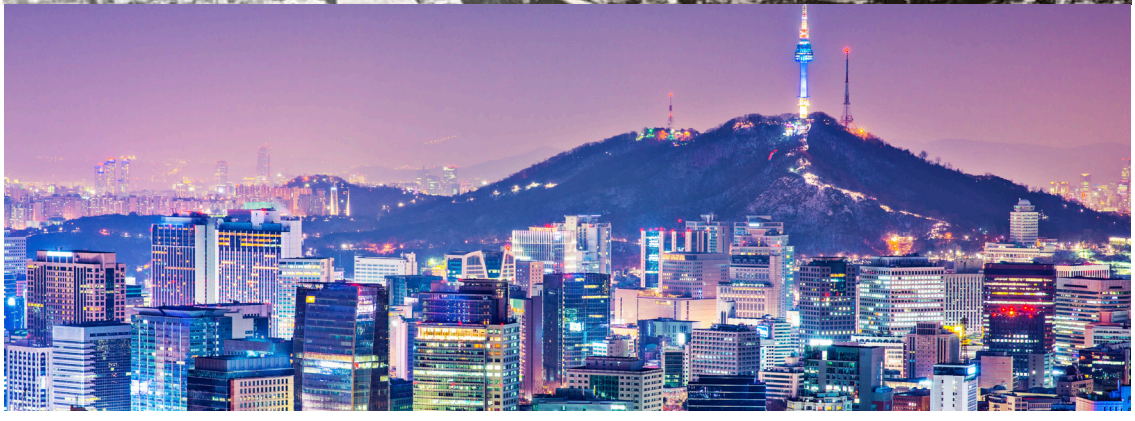
그 후 한국의 과학 기술은 해가 갈수록 발전하였고 경제가 크게 발전하게 되었으며 그 결과, 이제 한국은 발달된 과학 기술을 개발하여 산업화하고 새로운 세계적인 제품을 만들어 수출하는

1965년 5월 18일 미국을 방문한 박정희 대통령이 백악관에서 미국의 Johnson 대통령과 함께 한국 과학 기술 연구소의 설립 계획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과학 기술의 강국이 된 것입니다. 과학 기술의 발전은 새로운 제품의 개발과 함께 다른 산업도 함께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미래를 내다보고 과감한 투자와 노력을 꾸준히 한 결과가 몇십년이 지나 훌륭한 열매를 맺은 것입니다. 그당시 세계의 많은 나라들은 한국의 이러한 노력을 별것 아닌것으로 생각하였지만 결국 한국은 세계를 놀라게 한 성공을 이루었습니다.

계기 opportunity

한국 과학 기술 연구원 모습. 이곳에서 우수한 과학 기술자들이 산업 기술을 개발하여 한국의 경제 발전에 크게 공헌(contribute)하였습니다.



위-일본이 우리나라를 빼앗았을 때의 서울 모습
아래- 현재의 서울 시가지(streets) 모습. 이제 서울은 세계적인 도시가 되었습니다.

왼쪽: 1960년대 서울 시내를 달리는 전차(street car), 오른쪽: 세계에서 가장 발달된 서울의 지하철(subway train)

☞ 생각해 봅시다

1. 우리 나라가 일본에서 해방된 이후 경제적으로 가난한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우리 나라의 경제가 빠른 시간내에 크게 발전하여 오늘날과 같이 잘 살게 된 바탕이 무엇이었는지 본문에서 찾아보고 이야기 해 봅시다.
2. 서울은 이제 세계적인 도시가 되었습니다. 서울에 가게 되면 꼭 가보고 싶은 곳을 생각해 보고 왜 가보고 싶은지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누어 봅시다.

(2) 한국의 주요 산업 Major Industries of Korea

수출품 export items
봉제품 sewing goods
광물 minerals
수산물 fishery produce
농산물 agricultural produce
원유 crude oil
제철 공장 steel mill
반도체 semiconductor

1980대 이전에는 한국의 주요 수출품은 섬유제품, 신발, 가발, 봉제품, 광물, 시멘트, 수산물, 농산물 등이었고 외국에서 원유, 기계, 화학, 전자 제품 등을 수입하였습니다. 그러나 포항에 제철 공장을 세우고 울산, 여수 등 남부 지방에 중화학산업단지를 세우면서 경제의 중심이 중공업(heavy industries)로 변화되었습니다. 1990년대에는 삼성전자, LG 전자 등이 중심이 되어 반도체, 컴퓨터 산업이 발전하기 시작하였고 2000년대 부터는 전자 통신 정보산

업이 한국의 대표적인 산업으로 발전하면서 이 분야에서는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있는 산업국가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현대적인 산업의 발달은 한국인들의 생활 수준을 크게 향상시키게 되었고 이에 따라 문화 산업, 컨텐츠 산업, 관광 산업, 고급 소비재 산업 등이 크게 발전하여 이제 한국은 모든 산업분야에서 선진국의 수준에 도달하였습니다. 이제 한국의 세계적인 산업중에서 몇가지 가장 중요한 것들을 알아봅시다.

생활 수준 living standard
향상 improve
선진국 advanced country

조선 산업: 한국은 동해, 남해, 서해로 둘러싸여 있어 수산자원이 풍부하고 경치가 아름다울 뿐만 아니라 옛날부터 배를 잘 만드는 나라였습니다. 조선시대에는 조선을 침략한 일본의 해군을 이순신 장군이 거북선을 만들어 물리친 빛나는 역사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전통은 현대에도 이어져서 이제 한국은 세계에서 배를 가장 잘 만드는 나라중의 하나가 되었습니다. 수십만 톤이 넘는 거대한 유조선, 화물선을 비롯하여 군함, 잠수함 등 한국이 만들지 못하는 배가 거의 없게 되었으며 값싸게 우수한 배를 만

수산 자원 fishery resources
전통 heritage
유조선 crude oil carriers
군함 battle ships
잠수함 submarines

한국에서 만든 배들의 모습과 배를 만드는 조선소(shipyard)의 모습(오른쪽 위부터 시계방향으로: 배를 만드는 조선소, 잠수함, 군함, 원유를 실어 나르는 유조선)

드는 나라로 유명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나라는 세계 조선 시장에 본격적으로 참여한 지 10여년이 지나지 않아 다른 나라들을 누르고 일본에 이어 세계 2위의 조선강국의 자리에 올랐고, 2003년 이후에는 배를 가장 많이 주문받고 가장 많이 만들게 되어 세계 1위의 시장 점유율(market share)을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BIG 3라 불리우는 세계적으로 가장 큰 규모의 조선소들(현대중공업, 대우조선해양, 삼성중공업) 모두가 한국에 있습니다.

인기 popularity

자동차 산업: 1970년 이전에는 한국에서 제대로 자동차를 만들 수 있는 기술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한국은 세계에서 자동차를 가장 많이 만드는 나라의 하나입니다. 현대자동차(Hyundai)와 기아자동차(Kia)는 오래전부터 미국과 유럽, 아시아, 남미 국가들에 자동차를 수출하였고 큰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한국에는 다른 자동차회사들도 많아서 세계의 다른 나라 자동차들과 경쟁하고 있습니다. 미국에 자동차를 수출하는 나라는 한국, 독일, 영국, 이탈리아, 스웨덴, 일본뿐입니다. 좋은 자동차를 만들기 위해서는 철강, 화학, 기계, 전자 산업이 모두 발달해야 가능합니다. 한국은 이제 이러한 모든 기술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진출 advance
대형 large-scaled
다리 bridge
터널 tunnel
해상 구조물 sea platforms
건축물 building structure

건설 산업: 한국의 건설 산업과 기술은 세계적인 수준을 자랑합니다. 한국의 많은 건설회사들이 1960년대 부터 사우디 아라비아 등 중동지방의 나라들에 진출하여 대형 건설사업에 참여하였고 초대형 건물, 다리, 터널, 해상 구조물등 모든 종류의 건축물을 만들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되었습니다. 한국은 현재 세계 6위 수준의 건설시장 점유율을 차지 하고 있으며 발달된 건축 및 토목 기술은 고속도로, 고속 철도, 아파트, 상하수도 시설, 간척 사업 등 규모가 큰 사업을 성공적으로 할 수 있게 하여 나라의 발전에 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반도체, 전자•정보 산업: 한국은 삼성, LG, 현대 등 큰 회사들이 일찌기 컴퓨터, 전자•정보 산업 시대를 내다보고 반도체와 전자산업에 투자하였습니다. 반도체와 전자산업은 나노(Nano) 과학과 기술, 재료 과학, 화학 기술 등이 발달해야 만들 수 있는 첨단 산업입니다. 그 결과 지금은 세계에서 이러한 제품들을 가장 잘 만드는 나라의 하나가 되었으며 미국의 큰 전자 상품 매장에 가면 TV, 냉장고, 전화기(Smartphone), 컴퓨터 등 대부분의 전자 제품들이 한국에서 만든 것입니다. 전기 자동차에 사용되는 배터리(Lithium Ion Battery)들은 대부분 한국에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반도체 semi conductor
전자•정보 산업 IT(information and technology) industry
매장 store

이밖에 한국은 화학, 섬유 등의 산업이 세계적인 수준으로 발전하였으며 최근에는 태양 에너지, 배터리, 연료전지, 생물학적 에너지, 원자력 등의 분야에서도 큰 발전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의료 과학도 발전하여 한국에서 병을 치료하기 위하여 이웃 나라들에서 많은 사람들이 한국에 가기도 합니다.

☞ 생각해 봅시다

1. 오늘날 한국의 주요 산업이 무엇인지 알아보고 우리나라가 세계 경제에 어떠한 도움을 주고 공헌하고 있는지 알아봅시다.
2. 미국에서도 잘 알려지고 경제에 도움을 주고 있는 한국 기업의 이름들을 알아보고 한국 제품들은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알아봅시다.

(3) 새로이 조명되는 한국 문화
Korean Culture in the Spotlight

가. 한류 The Korean Wave: Hallyu

문화 상품 cultural goods
친근감 friendliness
형태 format
포함 include

일상 생활 daily life
우정 friendship
주제 topic
독특하게 uniquely
결합 combine
흥미 interest
비결 secret
무대 예술 및 기술 stage art and technology

관광 산업 tourism industry
가족 관계 relationship

1990년대에 이르러 한국의 경제가 발전하고 한국의 현대 문화가 전세계적으로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특히 한국의 TV 드라마, 대중 가요, 한국 음식, 한국말 등이 이웃나라 중국과 일본, 동남아 국가들에 알려지고 인기를 끌게 되면서 그 나라 사람들이 한국의 문화 상품을 좋아하게 되고 한국인들에 대하여 친근감을 갖는 계기가 되었으며 이를 '한류', 즉 '한국의 물결'이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특히 '소녀시대', '원더걸스' 등 젊은 신세대 가요그룹이 귀여운 모습과 빠른 템포의 노래로 큰 인기를 얻게 되었는데 그들로 부터 시작된 이러한 새로운 형태의 대중 음악을 "K-Pop"이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즉, Korean-style pop music이라는 뜻입니다. 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한국에서 만들어진 애니메이션(animation), 게임, 영화, 캐릭터, 만화, 웹툰(webtoons)과 같은 대중 콘텐츠 산업도 '한류'로 포함되기 시작하였습니다. 한류는 그 내용속에 들어있는 한국의 여러가지 재미있는 문화를 볼 수 있어서 다른 나라 사람들이 한국을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의 드라마가 전세계에 수출되어 한국 경제에도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대표적인 음식인 비빔밥, 인기있는 어린이 만화 캐릭터인 뽀로로, 그리고 우리의 말 한글

아시아 국가들과 중동, 아프리카, 유럽, 미국에서도 큰 인기를 끌고 있는 한국의 영화와 드라마

그렇다면 왜 한국의 드라마나 K-Pop이 외국에서 인기가 있게 되었을까요?

한국 드라마는 한국인들의 일상 생활과 가족간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한 내용이 많고 그 내용이 건전하다는 점이 미국의 TV 드라마와 다르다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친구들간의 우정이나 가족, 사랑과 같은 주제는 보다 많은 사람들이 함께 느끼고 즐길 수 있는 내용이고 한국 고유의 전통적인 가치와 서양의 문화를 독특하게 결합한 스토리를 갖고 있어 흥미롭습니다.

한국의 많은 가수 그룹에서 발표한 K-Pop 노래는 2012년 미국에 $3.4 billion 이상을 수출하였고, 특히 가수 싸이의 '강남 스타일'이 미국을 비롯하여 전 세계에서 인기를 끌면서 한류 콘텐츠는 미국과 전세계 다른 나라들 사람들에게 잘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K-Pop은 아시아의 경우 가수들의 '매력적인 외모', 미주와 유럽에서는 '새롭고 독특함'이 인기의 비결이 되었는데 이는 화장, 패션, 춤, 음악 등이 잘 조화되었고 한국인 특유의 무대 예술 및 기술이 함께 발전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K-Pop 가수들의 인기는 외국인들에게 한국 화장품과 의상, 음식에 대한 관심을 크게 일으키고 한국어 공부하기, 한국의 전통 문화 공부하기 등으로 발전하여 한국의 관광 산업이 크게 발전하는 계기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한국의 드라마와 K-Pop은 외국 사람들이 한국 사람과 한국 사회, 한국 문화, 관습이나 전통 및 가족 관계에 대하여 이해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됩니다. 뿐만 아니라 미국에서 태어난 한인 2세들에게도 부모님의 나라인 한국이 어떤 나라인가를 알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는 것 입니다. 최근 인터넷과 소셜미디아(Social Media)의 발달로 한류 문화의 내용을 쉽게 알 수 있는 기회가 만들어졌고 한국 정부에서도 꾸준히 한국을 알리는 많은 프로그램을 발전시켜 이제는 세계의 많은 사람들이 한국에 대해서 알고 싶어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들은 한국어를 배우고 싶어하는데 미국내 대학에서 한국어를 배우려는 학생들도 2009년과 2013년 사이 45%나 증가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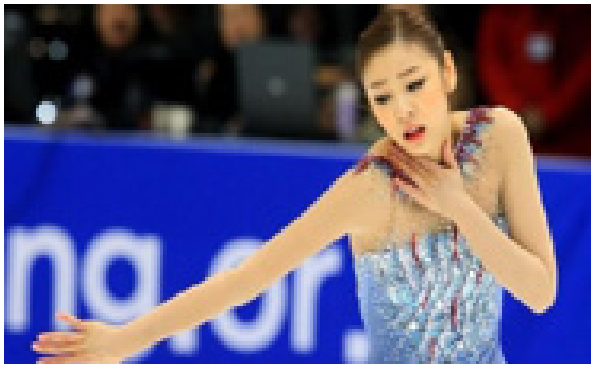
2Ne1, 소녀시대, 빅뱅, 엑소, 원더걸스, JYJ, 동방신기, ...

나. 한국의 스포츠 문화 Modern Sports Culture of Korea

한국 스포츠의 발전은 한국을 전세계에 알리는데 큰 역할을 하였습니다. 1988년에는 서울에서 한국 최초로 서울 올림픽이 열렸고 2002년에는 월드컵 경기가 한국에서 열렸습니다. 특히 2002년 월드컵에서는 한국이 준결승전에 진출하여 세계를 깜짝 놀라게 하였습니다.

한국은 1947년 서윤복 선수가 보스턴 마라톤에 출전하여 우승함으로써 1936년 나라 잃은 슬픔을 안고 베를린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땄던 손기정 선수의 한을 풀었습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45년 뒤인 1992년 바르셀로나 올림픽에서 황영조 선수가 마라톤 금메달을 따서 나라를 빛내었습니다. 또한 김연아 선수는 2010년 뱅쿠버(Vancouver) 동계 올림픽 피겨 스케이팅에서 금메달을 따내 한국을 빛내고 전세계 사람들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또한 한국의 쇼트트랙(short track speed skating)과 양궁(archery)은 꾸준하게 올림픽에서 많은 메달을 따냈고, 한국의 태권도는 2000년 시드니올림픽 때 올림픽 정식종목으로 채택되었습니다.

한을 풀었습니다
fulfilled his wish
꾸준하게 steadily
정식종목 official sports
채택 accepted



피겨 스케이팅의 여왕이라 불리는 김연아 선수와 자랑스러운 한국의 양궁 선수들

최근에는 베이징 올림픽, 중국 광저우 아시안 게임 등 종합 국제 대회에서도 좋은 성적을 내었고 '작지만 강한 나라'라는 인상을 다른 나라 사람들에게 줄 수 있었습니다. 2018년에는 한국의 평창에서 동계 올림픽이 열리게 됩니다.

성적 records
지도자 coaching staff
체계적 systemic

또한 한국의 여자 골프선수들이 미국에 진출하여 수많은 골프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함으로써 한국은 골프의 나라로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한국이 이와 같이 올림픽이나 국제 경기에서 좋은 성적을 낼 수 있게 된 것은 한국의 경제력이 크게 성장한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또한 선수들의 승리하고자 하는 강한 의지와 지도자의 노력,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훈련 및 스포츠에 대한 아낌없는 지원 등이 골고루 갖추어졌기 때문입니다.

☞ **생각해 봅시다**

1. 내가 좋아하는 한국 노래나 한국 음식에 대하여 친구들과 이야기 해 봅시다.
2. 미국 친구들에게 소개하고 싶은 한국 문화는 어떤 것인지 생각해 보고 어떤 점을 소개하고 싶은지 생각해 봅시다.
3. 드라마나 내가 좋아하는 한국의 연예인, 가수, 운동 선수들, 한국 음식 등에 대하여 미국 친구들에게 알리는 brochure를 만들어 봅시다.

(4) 세계 속의 빛나는 한국인
Globally Recognized Koreans

한국이 경제적으로 발전한 나라가 되면서 세계적으로 유명하게 된 한국인들이 많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피겨 스케이팅의 김연아 선수, 축구의 박지성 선수, 미국 프로야구의 박찬호 선수, 미국 여자골프의 챔피언인 박세리 선수 등은 한국인으로서 세계적인 운동선수로 알려졌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박인비 선수 등 한국의 여자 골프선수들이 세계적인 골프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내면서 이제 한국은 미국과 더불어 가장 훌륭한 골프선수가 나오는 나라로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이들 선수들이 각자의 분야에서 세계적인 선수가 된 것은 최선을 다하여 열심히 연습하여 타고난 재능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재능 talent
발휘 demonstrate

또한 음악분야에서는 오페라 가수 조수미가 세계적으로 유명하고 세계 평화를 위해 힘쓰는 한국인 최초의 반기문 UN 사무총장(Secretary General)이 잘 알려져 있습니다. 이 밖에도 수많은 한국인들이 각자의 분야에서 세계적으로 인정받으며 유명하게 된 사람들이 많습니다.

박지성 선수, 박찬호 선수, 박세리 선수

반기문 UN 사무총장, 오페라 가수 조수미

☞ **생각해 봅시다**

1. 국제적으로 이름이 알려져 있거나 세계 발전에 공헌을 한 한국인에 대하여 조사해 보고 그들에 대하여 서로 이야기를 나누어 봅시다.
2. 나는 미국에서 어떻게 사회에 공헌하는 훌륭한 사람이 되고 싶은지 생각해 봅시다.
3.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생각해 보고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누어 봅시다.

(5) 미국 사회에서 빛나는 한국인
Korean-Americans in America

1980년대에 이르러 한국에서 이민 온 이민 1세대의 미국 주류사회 진출이 활발해졌습니다. 캘리포니아에서 한인 최초로 김창준이 연방하원의원(Member of the US House of Representatives)에 선출되어 미국 정치에 참여하게 되었으며 그 후 많은 한인들이 정치와 미국 정부의 관리로 진출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미국의 한인들은 음악, 미술, 학문, 과학, 기술, 사업 등 많은 분야에서 유명해졌고 미국사회와 인류의 발전을 위하여 일하고 있습니다.

이민온 이민 1세대 first generation Korean immigrants
미국 주류사회 main stream American society
선출 elect
관리 officer
분야 fields
소개 introduce
환경 circumstance
극복 overcome
본받을 emulate

여기에서는 미국 사회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잘 알려진 한국인들을 몇사람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들 중에는 한인 이민 1세대도 있고 어렸을 때 부모님을 따라 미국에 이민 와서 미국에서 공부하고 성장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어떻게 해서 어려운 환경을 극복하고 성공할 수 있었는지 알아보고 본받을 점이 무엇인지 알아봅시다.

백남준 (Video Artist)

백남준은 1932년 서울에서 태어나 일본, 독일 등에서 활동하다가 1964년 미국에 왔습니다. 그는 전통적인 예술을 벗어나 TV, audio와 같은 첨단 기술 매체와 사람이 함께 사는 모습을 상상하고 이를 예술로 표현하는 Video Art의 개척자가 되었습니다. 그의 수많은 작품은 전세계의 미술관에 전시되어 있으며 2008년 한국의 용인에 백남준 아트센터가 개관되어 그의 작품이 전시되고 여러가지 예술 행사가 열리기도 합니다. 그는 창의적인 생각으로 현대적인 전자 기계를 이용하여 보통 사람들이 상상할 수 없는 흥미롭고 마치 살아있는 듯한 작품들을 만들었습니다. 한국인으로서 그는 세계적으로 가장 잘 알려진 비디오 예술가가 되었습니다.

첨단 기술 매체 high-tech media
개척자 pioneer
개관 open
전시 exhibit
예술 행사 art event
창의적인 creative

워싱턴 DC에 있는 Smithsonian American Art Museum에 견학(tour)간 성김안드레아 한국학교의 어린이들이 2013년 백남준 특별전에 전시된 그의 비디오 작품인 미국 50 개주 지도 앞에서 기념 사진을 찍었습니다. TV monitor 와 Neon tube를 사용하여 만든 이 거대한 미국 비디오 지도에는 각 주의 특성을 나타내는 비디오가 동시에 TV 화면에서 나타나면서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신비한 마음을 갖게 합니다.

강영우 박사 (Disability Rights Advocate)

한국에서 중학교를 다닐 때 축구공에 눈을 맞아 시력을 잃은 강영우는 신체적 장애를 이기고 미국에서 공부하여 박사학위를 받았으며 미국 대통령의 국가 장애 위원회 정책 차관보(policy advisor of the National Council on Disability to the United States White House)의 직책을 맡았고 세계 장애자를 위한 위원회(The World Committee on Disability)의 부의장(vice-chair)을 지냈습니다. 그가 두눈의 시력을 모두 잃자 그 충격으로 어머니를 잃고 자신을 돌보던 누나가 너무 힘들게 일하다가 세상을 떠나는 고통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결

혼후 미국에 와서 University of Pittsburg 대학원에서 특수교육(Special Education)에 관한 공부를 하여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그의 부인(석은옥)은 실명한 그에게 눈이 되어주었고 미래에 대한 희망과 용기를 잃지 않도록 옆에서 힘이 되어주었습니다. 그는 시력을 잃은 장애자들을 위한 정책을 국가가 펼칠 수 있도록 힘썼으며 George W. Bush 대통령에 의하여 백악관 국가 장애정책 차관보(Assistant Secretary)로써 일하였습니다. 그와 부인은 두 아들 또한 훌륭히 키운 것으로 유명합니다. 그의 큰 아들 Paul이 어렸을 때 아버지인 강영우 박사에게 "어떻게 하면 앞을 볼 수 있나요?"하고 물었는데 강영우 박사는 "네가 커서 안과 의사가 되어 아빠를 고쳐주면 되잖아!"라고 대답하였습니다. 결국 Paul은 안과 의사가 되었고 미국에서 가장 훌륭한 안과 의사의 한사람으로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그는 아버지가 항상 도전하는 정신과 사랑을 베푸는 마음을 갖고 있었다고 말하였습니다.

신체적 장애 physical handicap
직책 position
충격 shock
대학원 Graduate School
시력 vision
안과 의사 ophthalmologist
도전 challenge

Sung Kim (전 주한 미국대사)

1960년 서울 태생인 성 김 전 주한 미국대사는 중학교 1학년 때까지 서울에서 살았습니다. 온 가족이 미국 캘리포니아로 이민을 온 후 Pennsylvania 대를 졸업, Loyola 법과대학(Law School)을 거쳐 검사 생활을 하다가 외교관이 되었습니다. 2011년 한미 수교 129년만에 첫 한국계 주한 미국 대사(U.S. Ambassador to Korea)로 임명되어 일했습니다. 그는 왜 외교관이 되고 싶었는가에 대한 질문에 "국가를 위해 봉사하고 국가를 대표할 수 있는 기회, 평화와 안정을 증진하고 한국과 미국의 파트너쉽(partnership) 같은 중요한 관계를 위해 일할 수 있는 기회, 다양한 문화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 등"이 동기였다고 말했습니다.

검사 prosecutor
외교관 diplomat
안정 security
증진 promote
동기 motive

이덕선 (ALLIED TECHNOLOGY 회장)

1939년 황해도 연백에서 독실한 천주교 집안의 장남으로 태어난 그는 6·25 전쟁 때 부모님을 따라 서울로 피난하였고 전쟁 중 학도병(학생 군인)으로 군 복무를 마치고 한국외국어대에서 다시 대학 공부를 하려 했지만 돈이 없어 학교를 더 이상 다닐 수가 없었습니다. 6 남매 중 장남이지만 그는 가족을 한국에 두고 '아메리칸 드림'을 꿈꾸며 1965년 미국으로 이민을 왔습니다. 그는 Allied Technology 라는 computer network security system 전문 회사를 세워 많은 미국 연방정부 기관들에 소프트웨어를 공급하고 워싱턴 DC, 메릴랜드, 캘리포니아, 플로리다, 텍사스 등에 지사를 둔 큰 회사로 키웠습니다.

피난 evacuate
공급 provide
지사 branch
원칙 principles
모국어 native language
평판 reputation
끌어당겨라 attract

2008년 11월 한국계 기업인으로 유일하게 Business Legend Award(소수 인종 출신 100대 기업인에게 수여되는 상)에 선정(selected)되기도 하였으며 그는 조지타운대학교, 천주교 워싱턴대교구, 여러 한인 단체들의 활동에도 많은 지원을 하고 있고 300만 달러를 기부하여 메릴랜드에 수녀원과 노인요양시설을 짓도록 도왔습니다. 그가 제시한 6 가지 성공의 원칙은 (1) 영어를 모국어처럼 하라, (2) 열심히 푹 빠져들 수 있는 일을 하라, (3) 평판을 우습게 생각하지 말라, (4) 좋은 사람들을 끌어당겨라, (5) 긍정적으로 생각하라, (6) 돈을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잘 쓰는 것도 중요하다, 입니다.

지영석 (출판사 ELSEVIER사장)

세계적인 출판사의 하나인 엘스비어(Elsevier)의 CEO 인 그는 1961년생으로 15살 때 미국에 이민와 Princeton 대학을 졸업하고 Columbia University에서 MBA 학위를 받았습니다. 그는 전자책(e-book) 분야의 개척자로 불리는 Lightning Source사를 설립하였고 그 이후 동양인 최

초로 출판사 Random House의 사장을 거쳐 현재 국제출판협회(International Publishers' Assoc.) 회장직과 세계 1위 출판사인 엘스비어 회장 직을 맡고 있습니다. 엘스비어는 과학·의료·법률 분야의 논문과 전문 정보(professional information)를 제공하는 글로벌 IT 기업으로서 세계 69개 도시에 사무실이 있고 한국 서울에도 지사가 있습니다.

논문 thesis
전문 정보 professional information
멘토 mentor
상상력 imagination
상류 upper class
명성 fame

성공의 비결에 대해서 그는 "대학 친구의 아버지가 내 멘토였습니다. 그분은 "안 보고 상상하는 것은 어렵다. 많이 봐야 상상력도 느는 법이다."라며 20대 동양인인 나에게 미국 상류 백인사회를 경험시켜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직장의 명성을 따지지 마라. 좋은 사람을 만나서 일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지영석 회장은 그 자신도 다른 사람에게 좋은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살아야 하겠다고 생각한다는 말을 하였습니다.

김창준 (전 미연방 하원의원)

김창준은 1939년 한국에서 태어나고 1961년 미국에 와서 University of Southern California(USC)를 졸업하고 1978년 제이킴 엔지니어링(J. Kim Engineering) 이라는 회사를 설립하였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 Diamond Bar 의 City Council(1990), Mayor(1991)로 당선되었고 한국인으로는 처음으로 1992년 캘리포니아주 연방 하원의원이 되었습니다. 그는 세 번이나 당선되었고 한국과 미국이 자유 무역 협정(Free Trade Agreement)을 맺는데도 힘썼습니다. 그는 한국에서 대학까지 다니고 단돈 500달러를 들고 혼자 미국으로 건너와 접시닦이 일을 하며 공부하였고 결국 연방 하원의원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는 자신이 목표로 정한 것은 결코 중단하지 않고 온 힘을 다하여 노력하면 반드시 실천할 수 있다는 정신을 보여주었습니다.

중단 discontinue

이종문
(실리콘 밸리AMBEX VENTURE GROUP의 회장)

이종문 회장(1928년생)은 47세 때인 1975년 미국으로 건너가 1982년 California의 Silicon Valley에 소프웨어 개발업체 '다이아몬드 멀티미디어 시스템(Diamond Multimedia System)'이라는 software 회사를 설립하여 성공하였습니다. 그는 현재 AmBex Venture Group의 회장으로서 IT 분야 venture company들에 대한 투자와 함께 다양한 사회활동과 자선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1995년 미국 최대의 아시아 전문박물관으로 꼽히는 샌프란시스코 아시아 박물관(Asian Art Museum of San Francisco)에 1,600만불을 기증 하였는데 이 박물관의 이름은 이종문 아시아 예술 문화센터(Chong-Moon Lee Center for Asian Art & cultural Center)로 바뀌었습니다.

자선 활동 charity work
재산 wealth
환원 give back
소중 precious

그는 자신이 이룬 재산을 사회에 환원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도록 하는 것이 소중하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안창호 (Rexahn Pharmaceuticals)

1951년생인 안창호 박사는 한국에서 서울대학교를 졸업하고 미국에 유학하여 Ohio State University에서 PhD를 받았습니다. 그는 National Cancer Institute, Food and Drug Administration(FDA)에서 일하였고 2001년 메릴랜드에 Rexahn Pharmaceuticals 회사를 세워 항암제(anticancer drug), 항우울제(antidepressant) 등 치료제를 개발하여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는 약학을 전공한 과학자로서 자신의 연구 경험을 살려 질병을 치료하는 제약회사를 세워 경영에도 성공하여 자신의 능력을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크게 발휘할 수 있다는 좋은 본보기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는 미국의 한인 2세 청소년들에게 자신에게 주어진 도전을 두려워하지 말고 이를 극복

할 수 있는 지도자가 될 것을 생각하라고 하면서 다음과 같은 사람이 되도록 노력할 것을 조언을 하였습니다. (1) 용기있는 사람, (2) 호기심이 많은 사람, (3) 실력있는 사람, (4) 경쟁력이 있는 사람, (5) 다른 사람들에 대하여 관심을 갖고 어려운 처지의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사람. 그는 자신의 성공이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삶도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경영 management
본보기 example
도전 challenge
경쟁력 competitiveness
성공 success
삶 life

고홍주 (예일대 법대 학장)

고홍주 학장은 미국의 대표적인 국제법 학자로 인권법, 국가안보법(National Security Law), 국제경제법 분야의 권위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는 보스턴에서 태어났으며 1975년 하버드 대학을 졸업하고 영국 Oxford 대학에서 철학(Philosophy)·정치학(Politics)·경제학(Economy) (PPE) 학사 학위를 받고 미국에 돌아와 하버드 대학 법대를 졸업하였습니다. 그 후 미국 법무부 법률자문관(legal consultant)과 미국 Yale University Law School 교수가 되었고 미 연방 대법관 서기(supreme court clerk) 등을 거쳐 2004년 부터 Yale 대학의 Law School Dean이 되었습니다. 그는 어느 신문사와의 인터뷰에서 한국계 미국인(American with Korean heritage)으로서 정체성 위기(identity crisis)를 느낀적 없냐는 질문에 다음과 같이 답했습니다. “어른이 된다는 건 내가 바꿀 수 없는 것들을 인정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언젠가 나는 내가 100% 한국인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몇 % 한국인이고 몇 % 미국인인가 고민하다가 ‘나는 100% 한국계 미국인(I am 100% Korean-American)’이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처음엔 물리학(Physics)을 공부했는데 한국과 미국 두 나라 문화를 잘 아는 배경을 활용해야겠다는 생각에서 국제적인 일을 찾게 됐고 결국 법과 외교를 전공하게 됐습니다.”

권위자 authority
인정 admit
과정 process
활용 utilize
외교 diplomacy

Frank Cho (만화가)

게재 publish
만화가 Comic artist
영입 recruit

신세대 만화가로 유명한 그는 서울에서 1971년에 태어나 6살에 미국으로 이민왔습니다. Frank Cho의 부모님은 한국에서 대학까지 교육을 마쳤지만 영어가 서툴어 어머니는 구두 공장에서, 아버지는 낮엔 목수, 밤엔 그레이 하운드 버스역에서 일하였습니다. 메릴랜드 벨츠빌에서 자란 Frank Cho는 만화가의 길을 반대하는 부모님의 뜻을 따라 1996년 메릴랜드대에 입학하여 간호학(nursing)을 전공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대학에서 이미 신문 연재 만화를 게재하였으며 졸업 후 전문적으로(professionally) <Liberty Meadows>라는 만화 신문 창간(first published)을 시작으로 드디어 뛰어난 실력을 인정받는 만화가의 길을 걷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는 Marvel Comics에 영입되어서 지금껏 13년간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Spider-Man', 'X-Man', 'Guardians of the Galaxy', 그리고, "'Wolverine' 등을 그려왔고, 현재는 'Hulk'라는 작품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는 우리 한인 2세 학생들에게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자신의 열정을 따르라!(Don't be afraid of failing but follow your own passion.)"는 말을 해주었습니다.

Roy Choi (요리사)

방황기 vulnerable period
영혼 soul
풍성 lavish
사명감 mission

두살 때 미국으로 이민와 LA 한인타운에서 자란 Roy Choi는 중·고교 때 방황기를 보내기도 하였으며 세계 3대 요리학교인 CIA(Culinary Institute of America)를 졸업하고 뉴욕 유명 레스토랑을 거쳐 힐튼호텔에서 일하였습니다. 그는 2008년 말 이동식(portable) 트럭 '고기 코리안 비비큐(Kogi Korean BBQ)'를 차려 크게 성공하였는데 특히 미국에서 음식과 첨단 IT 기술을 성공적으로 결합해 새로운 음식을 만들어낸 사람으로 큰 관심을 끌었습니다. 요리사를 꿈꾸는 후배들에게 그는 "끝없이 연구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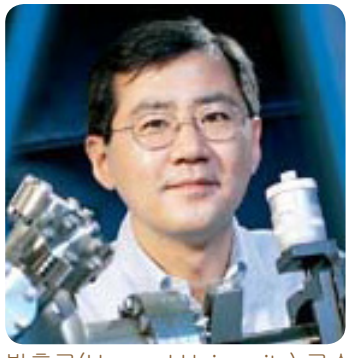
며 요리를 사랑하고 이 음식을 남들에게 먹여 영혼을 풍성하게 하겠다는 사명감이 있었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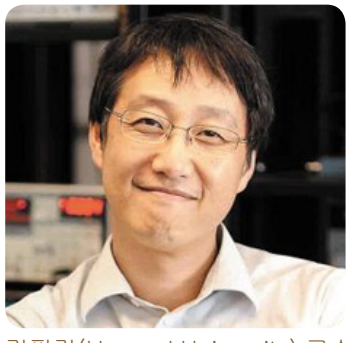
제인 박 (JULEP 화장품 회사 CEO)

매출 sales

Jane Park은 Princeton University 와 Yale University 에서 공부하고 Boston Consulting Group 과 Starbucks 에서 일했으며 2007년 화장품 회사인 Julep을 세워 불과 6년 만에 매출 2000만 달러가 넘는 회사로 발전시켰습니다. 서울에서 태어난 그는 부모님의 근면과 성실함을 보고 자란 것이 그가 성공하게 된 토대가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페이스북과 같은 social media network를 활용하여 새로운 제품을 시장에 빨리 내놓고 판매도 빨리 끝내는 전략(strategy)을 사용하였습니다. Jane Park은 "'만약 오늘 새로 시작한다면 무엇을 할 것인가?'라는 질문을 나 자신에게 매일 던진다."며 항상 새로운 것을 해나갈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박홍근 (Harvard University) 교수와 김필립 (Harvard University) 교수


박홍근(Harvard University) 교수


김필립(Harvard University) 교수

서울대학교 화학과를 졸업한 박홍근 박사는 하바드 대학교의 화학과 물리학 겸임 교수로서 두개의 전극 사이에 분자 하나를 넣고 이 분자가 스위치 역할을 하여 정보를 처리하는 단분자 트랜지스터(Single-molecule transistor)를 세계 최초로 개발하여 미래의 새로운 정보 처리 장치로써, 또한 DNA를 검출할 수 있는 분자 센서(sensor)로서 생명공학에도 응용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어 큰 주목을 받고 있으며 한국인으로서 노벨상에 근접한 학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바드 대학교 물리학과의 김필립 교수는 첨단 나노 소재인 그래핀(graphene) 연구의 세계적인 과학자의 한 사람

으로 한국인으로서 노벨상에 가장 근접한 학자로 꼽히고 있습니다. 그래핀이란 탄소 원자 한 층으로 이루어진 아주 얇은 물질로서 강도는 강철의 200배이며 휘어지기도 하며 이를 응용할 수 있는 곳이 아주 많은 물질로 알려져 있습니다.

☞ 생각해 봅시다

1. 미국에서 태어나 앞으로 미국에서 살아갈 많은 한인 2세 어린이 학생들이 한글학교에서 한국어와 한국의 역사, 문화등에 대하여 공부하고 있습니다. 어린 학생들이 한글학교에서 열심히 공부하는 것은 앞으로의 미래를 위하여 아주 소중한 투자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2. 한국어를 잘하게 되면 나에게 어떠한 도움이 될까요?
3. 미국에서 성공한 한인들이 성공할 수 있었던 비결은 무엇이었을까요?
4. 내가 가장 닮고 싶은 미국의 한인이 있는지 생각해 보고 그들의 어떠한 점을 닮고 싶은지 친구들과 함께 이야기 해 봅시다.
5. **나의 부모님**: 위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미국에서 성공한 한국인이라고 인정(get recognition)받는 사람들에 대하여 배워보았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에게 가장 훌륭한 role model은 누구입니까? 아마 그 사람은 여러분을 낳아주시고 길러주시는 부모님이 아닐까요? 여러분은 부모님이 얼마나 훌륭한 분들이며 자신의 일을 통하여 어떻게 미국을 빛내고 있는지 생각해 본 적이 있나요? 부모님들은 어떠한 일을 하시든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한 일을 하고 계실 것이며 그렇게 함으로써 미국은 더 좋은 사회와 나라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한국인의 이민 역사에 대하여 많은 공부를 하였고 수많은 여러분들의 선조들이 어떻게 용기를 잃지 않고 모국인 한국을 위하여 희생하였으며 또한 미국에 이민와서 많은 어려움을 이기고 살아왔는지 배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은 자신의 부모님에 대하여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부모님들이 어떠한 일을 하시며 나를 위하여 어떻게 애쓰고 계신지 생각해 봅시다. 부모님이야 말로 여러분들에게는 영웅(hero)인 것입니다. 나는 부모님이 나에게 해주시는 모든 것을 아무런 고마움없이 그저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인 사람이었는지 아니면 부모님의 사랑을 조금이라도 느끼며 감사한 마음으로 살고 있는지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커서 이 미국사회에서 어떤 사람이 되는 것을 부모님이 바라시는지 생각해 봅시다.

숨은 단어 찾기

한국경제, 박정희, 조선산업, 한국과학기술연구소, 유조선, 자동차, 한류, 불고기, 소녀시대, 전통가치, 황영조, 김연아, 태권도, 반기문, 박지성, 박세리, 이덕선, 김창준, 강영우, 안창호, 이종문, 싸이, 평창, 드라마, 유교, 문화, 반도체, 영화

한	강	평	조	불	태	권	도	류	한
조	국	창	영	고	소	녀	시	대	국
선	만	과	황	기	차	길	남	이	경
산	세	수	학	박	정	희	자	덕	제
업	자	동	차	기	도	산	안	선	백
반	반	기	통	전	술	김	창	준	남
도	기	유	교	통	드	연	호	회	준
체	문	종	이	가	라	아	구	장	선
영	화	각	싸	치	마	사	랑	소	조
강	영	우	리	세	박	지	성	시	유

책임저자: 최규용
(성 김안드레아 한국학교 교장, University of Maryland 교수)

공동저자: 권경희, 황태윤, 최선희, 성희종
(성 김안드레아 한국학교 임원 교사)

편집: 권경희
교정: 김선희
삽화: 한성은

2016년 1월 1일 첫발행
ISBN 9781-4951-8667-7
저작권자 성 김안드레아 한국학교 www.sakhangul.com
편 찬 자 성 김안드레아 한국학교
발 행 인 성 김안드레아 한국학교
지 원 한국동포재단 워싱턴 한국교육원
후 원 워싱턴 한인천주교회
인 쇄 피피솔류션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영화동 418
TEL: (031) 247-2227, FAX: (031) 255-2227

ISBN 978-1-4951-8667-7
90000>
9 781495 186677

St. Andrew Kim Korean School
17615 Old Baltimore Rd.
Olney, MD 20832, USA
2016